

이명박 정부 3년 검찰 보고서

MB검찰 3년, 한국검찰의 현주소

발행일 | 2011년 4월 13일

제 작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목차

이명박 정부 3년 검찰 보고서

MB검찰 3년, 한국검찰의 현주소

서문		3
1부	이명박 정부 3년 검찰을 말하다	5
2부	이명박 정부 3년 검찰 인사	42
3부	2010년 검찰 주요 수사	99
4부	2010년 검찰(법무) 주요 일지	129

서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는 현 정부 출범 1년째인 2009년 3월에 발표한 <이명박 정부 1년 검찰 보고서 : 정치검찰의 본색을 드러낸 MB 1년 검찰>과 2010년 3월에 발표한 <이명박 정부 2년 검찰 보고서 : 퇴행하는 한국검찰>에 이어 올해는 <이명박 정부 3년 검찰 보고서 : MB검찰 3년, 한국검찰의 현주소>를 내놓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994년 활동을 시작한 이래, '국민을 위한 검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지난 1999년부터는 특별검사제가, 2003년부터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었고, 1997년에는 현직 검사를 청와대에 파견하지 못하도록 검찰청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검사동일체 원칙도 지난 2004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비록 형식적이거나 폐기되어 부당한 지시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법원, 검찰, 변호사 양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개혁을 위한 노력을 통해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결실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혁이 이루어졌고, 재정신청 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기도 했다. 이 같은 변화가 맞물려 검찰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점차 나아지면서 지난 정부 후반기에 들어서는 검찰개혁과 검찰감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인사권을 이용한 집권세력의 검찰 장악과 정치적 의도에 부응한 검찰의 권한 행사로, 정권과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민사회·방송매체·일반 시민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어졌다. 한편 집권세력과 관계된 비리사건에 대해서는 무한한 관용과 부실한 수사가 이어지면서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졌다. 여기에 '위장전입 검사'가 법무부와 검찰의 수장에 오르고 검사장들까지 연루된 '스폰서 사건'이 터지면서 최소한의 공직윤리와 기강조차도 무너져버린 검찰에 대한 비판은 국민적 공분으로 이어졌다.

특히 지난 2010년에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수사에 이어 지방선거에 즈음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까지 더해지면서 여당 내에서조차 검찰이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허위통신죄)를 적용해 기소한 미네르바 사건에 이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논란을 불러온 '천안함·연평도 포격 관련 사건', 또 'G20 정상회담 포스터 쥐그림 사건' 등도 이 정부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검찰권이 남용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청와대 개입 의혹까지 불거진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스폰서 검사'나 '그랜저 검사' 사건, 이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효성그룹 비자금과 해외부동산 의혹 사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로비 사건'과 이 대통령 측근인 천신일 회장이 연루된 '대우조선해양 사건' 등이 정권과 가까운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들에 대한 수사는 꼬리를 자르거나, 제 식구를 감싸거나, 압수수색·소환조사를 미루며 끄는 등 부실수사로 일관하기도 했다.

이렇듯 이 정부 들어 벌어진 '검찰권 오남용 사례와 책임져야 할 검사들'을 정리해 올 2월 8일에 발표한 이슈리포트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를 비롯해 지난 3년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검찰과 관련해 내놓은 각종 자료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은 철저히 과거 '정치검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이번 <이명박 정부 3년 검찰 보고서>는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부터 2011년 2월까지 지난 약 3년간 검찰의 활동을 정리했다. 보고서는 지난 3년 동안 검찰 전반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정리한 1부 '이명박 정부 3년 검찰을 말하다'를 시작으로 지난 3년간 법무검찰 주요 보직을 거친 인물들을 기록한 2부 '검찰 인사' 편, 2010년 검찰이 다룬 주요 사건의 개요와 담당자, 처리경과와 결과를 담은 3부 '주요 사건' 편, 지난 3년 동안 검찰(법무부 포함)의 주요 행적을 기록한 '검찰(법무) 주요 일지' 편 등 모두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3부 '주요 사건' 편에서는 2010년 검찰이 다룬 수사 중에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은 사건을 중심으로, ▲국가 권력기관 관련 수사 ▲권력형 비리 수사 ▲정부정책 비판세력 관련 수사 ▲기업 및 금융관련 수사 ▲기타 수사로 그 범주를 나누어 모두 18건의 사건을 담았다. 지난 두 차례의 <이명박 정부 검찰 보고서>에서 다룬 2008년 사건 24개, 2009년 사건 14개에 대한 재판 경과와 최종적인 결과는 2년 후 '이명박 정부 5년 검찰백서'에서 다룰 예정이다.

매년 보고서를 발표할 때마다 검찰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이 같은 기록들이 모여 검찰감시, 나아가 검찰개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앞으로도 매년 검찰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지금까지 그래왔듯 검찰에 대한 감시와 비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1년 4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1부. 이명박 정부 3년 검찰을 말하다

1부는 이명박 정부 3년 검찰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담았다. 이명박 정부 3년 검찰에 대한 평가는 'MB 검찰'이란 말로 요약된다.

'정권의 가장 든든한 우군'이 되어버린 검찰은 일관성·형평성마저 상실하고 비상식적 법 적용 또한 서슴지 않았다. 서보학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MB검찰 3년을 말한다>에서 ▲무원칙의 원칙 ▲상대편은 가혹하게 우리편은 관대하게 ▲법률가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비상식적인 법 적용 ▲바다으로 떨어진 직업윤리라는 말로 이를 평가하고 있다.

검찰의 무원칙하고 일관성 없는 법 적용을 대표적인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뽑아 <무리하거나, 부실하거나 : 검찰권 오남용 사례와 책임져야 할 검사들>로 묶어냈다. 각 사례들을 비교하기 위해 '부실수사 유형'과 '권한 남용 유형'으로 나누고, 부실수사 유형에는 ▲꼬리자르기식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압수수색·소환조사 미루기 ▲편의 봐주기 수사의 항목을, 권한 남용 유형에는 ▲무리한 기소 ▲무리한 영장청구 ▲별건수사 ▲피의사실공포의 항목을 두었다. 각 항목에 해당하는 '부실수사' 6건과 '권한 남용 수사' 9건을 선정했다. 총 15건의 수사를 담당한 '주임검사-부장검사-차장검사-지검장' 라인을 문제수사의 책임자로 보고, 따로 표로 정리하였다.

‘MB 검찰’ 3년을 말한다

서보학 / 경희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이명박 정권의 가장 든든한 우군, 검찰. 그래서 국민의 검찰이 아닌 ‘MB 검찰’이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현재 한국 검찰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지난 2010년 초 참여연대는 MB 검찰 2년에 대해 “이명박 정부 1년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나서서 대통령의 뜻을 받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허물어뜨렸다면, 이명박 정부 2년의 검찰은 스스로 살아있는 권력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온몸을 던진 해라고 볼 수 있다.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한없이 가혹하고 살아있는 권력에는 더없이 관대했던 검찰, 과잉형사범죄화 시도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데 권한을 남용했던 검찰이었다.”라고 평한바 있다. 매우 혹독한 평가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검찰을 아끼고 검찰이 새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숨어 있었다. 그로부터 다시 1년이 지난 시점, 과연 검찰의 모습은 달라졌을까?

정권의 가장 든든한 우군이 되어버린 검찰

지난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촉발된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검찰개혁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 검찰은 여전히 제 모습을 지닌 채 정권의 전위대 역할에 충실해 오고 있다. 이는 비판의 십자포화 속에서도 검찰을 충직한 도구로 계속 이용하려는 이명박 정부 및 집권여당의 강력한 옹호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국민의 검찰이 되기보다는 비록 정치권의 시녀로 남을지라도 기득권을 누리는 쪽을 택한 검찰구성원들의 폐쇄적이고 반개혁적인 성향이 합작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최근에는 친정인 법무부를 등에 업고 플리바게닝제도·허위진술죄·참고인 강제구인제도·영장항고제도의 도입을 내용하는 형사소송법개정을 추진하는 등 검찰의 수사·기소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공세로 나선 상황이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국민들의 민권의식은 날로 성장하고 있지만 오직 검찰조직만은 변화·개혁의 소용돌이와는 무관한, 세상과의 소통을 단절한 고립된 존재인 것 같아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에게 성경은 “화 있을진저”라고 경고하고 있다.

MB 검찰 3년에 대한 평가도 혹독할 수밖에 없다. 검찰의 비상식적인 수사·기소행태가 계속 되었고 법정에서의 성적표는 매우 초라하였기 때문이다. 정부(정책)의 반대세력에 대해서는 끈질기고 가혹한 수사, 살아 있는 권력이나 자기 식구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답답하리만치 느슨하고 부실한 수사 그리고 청부수사에 대한 높은 무죄율. 이것이 바로 MB 검찰 3년에 대한 총평이다. 이러한 검찰의 행태를 참여연대는 검찰권 오남용사례 리포트에서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로 간단명료하게 표현했다. 철저히 해야 할 수사는 부실하게, 자제해야 할 수사는 무리하게 했다는 뜻이다. 그 구체적인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낱말로 MB 검찰 3년의 행태를 평가해 볼 수 있다.

MB검찰 3년 평가:

1. 무원칙의 원칙

검찰권 행사의 생명은 일관성에 있다. 공정성 또는 공평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법을 어긴 자는 반드시 벌하고 중한 죄를 범한 자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는다’는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죄 없는 자를 핍박하지 않는 것은 원칙으로 언급할 필요도 없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김준규 검찰총장도 2009년 7월 취임식에서 “검찰의 상대는 범죄 그 자체이며 죄를 저지른 사람의 지위나 신분의 높고 낮음 등은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3년 검찰의 행태를 살펴보면 이러한 발언이 단순한 립서비스에 불과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 대상을 가려서 부실하게 수사하거나 무리하게 검찰권을 휘둘렀음이 금방 드러나기 때문이다.

예를 살펴보자.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이 있었다. 최고 권력층이 비선라인을 통해 정부에 비판적인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그의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린 권력남용사건이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여주더니 여러 경로로 청와대의 최고 윗선이 이 사건에 개입하였다는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자 3명을 기소하며 사건을 봉합하였다. 검찰의 특기인 꼬리자르기이다.

대통령의 사돈그룹인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사건도 있었다. 검찰은 이미 2007년 7월 첩보문건을 통해 효성그룹이 여러 해외법인을 통해 200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중수부, 중앙지검 등에서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가 2009년 9월 대부분의 주요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만 결가지라 할 수 있는 70억 원 비자금 조성과 해외교민의 폭로로 드러난 해외부동산 취득 등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대통령의 사돈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검찰의 특별배려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고려대 교우회장을 지낸 대통령의 최측근 **천신일의 대우조선해양 사장연임로비 의혹** 사건,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 땅과 관련하여 모종의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률 전 국제청장의 그림로비 의혹** 사건도 지지부진한 행태를 면치 못했다. 검찰의 위신을 땅에 추락시킨 **그랜저검사 사건·부산지검 스폰서검사 사건** 등에 대한 수사도 제 식구 감싸기 수사(조사)로 끝나고 말았다.

반면 정부정책의 잘못을 감시·비판한 **MBC PD수첩팀에 대한 기소**,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 들인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배임혐의 기소**, 인터넷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허위사실유포혐의 기소**, 2009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다른 사건의 횡령혐의로 구속된 **곽영욱의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러운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야권의 유력한 서울시장후보였던 한명숙에 대한 기소**,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법원의 판결 이후로 미룬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직무유기혐의 기소** 등은 모두 반대 세력을 옥죄기 위한 하명성·청부성 처리 의혹이 강한 사건들이었다.

검찰은 이 사건들의 수사와 기소과정에서 반드시 대상자를 처벌하겠다는 집요함 그 이상을 보여주었다. 필요하다면 피의사실 공표나 별건수사 등 위법한 수사관행도 서슴지 않는 모습이었다. 살아있는 권력에는 한없이 약하고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가차 없다는 세간의 평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이런 검찰의 행태를 두고 “개탄스러웠다. 권력에 굴종하다가 약해지면 물어뜯었다. 나라가 검찰 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러웠다.”고 적었다. ‘원칙 없음이 검찰의 원칙’. 이제 원칙 없는 검찰권의 행사는 검찰의 트레이드마크가 된지 오래다. 원칙 없는 검찰권의 행사를 과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MB검찰 3년 평가:

2. 상대는 가혹하게, 우리 편은 관대하게

이명박 정부 초기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무관용의 원칙과 관용의 원칙을 동시에 천명하였다. 법질서를 어기는 자는 관용하지 않고 단호하게 처벌하되, 법질서를 수호하는 법집행기관의 잘못은 관용으로 봐주겠다는 뜻이었다. 법집행기관에 대해서는 시비나 민원이 제기되는 것을 두려워말고 단호하게 법질서를 집행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반면 집회시위참가자를 대상으로는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었다. 효과는 그대로 드러나, **2008년 촛불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은** 과오의 유무나 경중에 관계없이 대량으로 연행되어 기소된 반면 **집회시위를 진압하는 과정**

에서 과잉폭력을 행사하여 고소·고발된 경찰관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거의 없었다.

이 정부 들어 일어난 대표적 참사였던 **용산참화**에서도 생존을 위해 망루에 올라간 세입자들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쓴 채 증거로 기소되었지만 과잉진압을 행사한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면죄부가 주어졌다. ‘상대는 가혹하게, 우리 편은 관대하게’.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 또 다른 행동규범인 것이다. 그런데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상대방, 반대편으로 보는 위정자, 법집행자들의 왜곡된 의식이 놀랍지 않을 수 없다.

이후 이 원칙은 집회시위에 대한 대처방식을 넘어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도 어김없이 적용되었다. 언론의 비판기능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의 MBC PD수첩팀에 대한 기소, 인터넷상의 비판목소리를 뿌리 뽑기 위한 목적의 미네르바 기소, 방송장악을 목적인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기소, 진보교육감이나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무리한 기소, 한명숙에 대한 기소 등은 정치노선의 반대편에 선 자는 절대 관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건들이었다.

반면 부실한 수사·기소로 일관한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사건, 효성그룹 비자금조성 사건, 그랜저검사나 스폰서검사 사건, 천신일·한상률 사건 등은 같은 편인 허물은 무한한 관용으로 감싸 안는다는 입장을 보여준 사건들이다. ‘유권무죄, 무권유죄’. 권력의 편에 속하였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대로 법을 어기지 않았음에도 권력의 반대진영에 섰기 때문에 검찰을 두려워해야 한다면 그것이 과연 정상적인 법치국가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법의 잣대가 일관성, 공정성, 공평성, 예측가능성을 상실하면 그것은 더 이상 정당한 공권력이 아니라 법의 이름을 빈 횡포이자 폭력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MB검찰 3년 평가:

3. 법률가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비상식적 법적용

검찰의 기소내용을 보면 법률가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비상식적인 법적용이 많았다. MBC PD수첩팀은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죄로 기소당했다. 대법원은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다53805 판결)라고 하여, 공직자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그 제한이 대폭 완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더구나 언론이 공직자

개인의 문제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 자체를 비판한 것을 두고 담당 장관에 대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하는 법해석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어떤 민주국가에서도 비슷한 예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사건수사를 맡았던 부장검사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사표를 던진 것이 아닌가.

정연주 전 KBS 사장은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기소당했다. 그렇다면 2심에서 조정을 권고한 판사는 배임죄의 교사범으로 기소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억지도 이 정도면 개그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미네르바 등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로 기소된 사람들에게 적용된 전기통신법 제47조는 죽은 지 50년 만에 검찰이 되살린 처벌조항이다. 서슬퍼런 긴급조치로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았던 70년대의 군사독재정권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지 한 참이나 된 2009년에, 다시 시민들을 유언비어유포죄로 처벌하기 위하여 오래 전에 죽어 있던 조항을 찾아내 되살린 검찰의 기만함이 탁월하다. 오래 전에 죽은 긴급조치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이다. 그런데 2010년 12월 문제의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았다. 시대의 발전에 40년이나 뒤떨어진 검사들의 법의식이 계몽될 필요성이 있음을 헌법재판소가 보여준 것이다.

김상곤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법원의 판단 이후로 미루었다는 이유로 직무유기죄로 기소됐다.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모든 피의자·피고인은 무죄가 추정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은 법치국가의 기본상식이다. 그런데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교사들에 대하여 징계할 것을 강요하는 검찰은 과연 어느 나라의 헌법질서 하에 살고 있는 것인가? 하위 법령에 불과한 교육공무원징계령이 헌법을 능가한다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들에서 예상대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검찰은 초라한 성적표를 손에 쥐었다. 그러나 무리한 수사·기소권의 남용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검사는 없었다.

검찰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보자.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의 친구 천신일은 지난 2010년 2월 선고공판에서 대부분의 기소된 범죄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유는 검찰이 천신일의 이 사건 핵심 의혹인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 대신 사소한 개인비리로 기소하면서 법적용을 잘못하였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포탈액수를 1억7천만 원으로 산정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연간 포탈액이 5억원 이상이 아니면 이 법을 적용할 수 없고, 또한 국세청의 고발 없이 검찰이 기소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의도적으로 무죄판결을 유도하였다는 의문이 법조계와 언론에서 강하게 제기되었다. 의도적인 실수가 아니라면 법률전문가 집단인 검찰이 한 일로는 믿기지 않는 어처

구니없는 일이었다.

그 어려운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그 중에서도 뛰어난 인재들이 모인다는 검찰. 그런데 이상의 사건과 같이 상식을 벗어난 무리한 법해석·법적용과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보면 '검사들이 과연 법률전문가 맞나?'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아니면 그들의 정상적인 판단을 마비시키는 신성한 계시가 위로부터 있었던 것인지.

MB검찰 3년 평가:

4. 바닥으로 떨어진 직업윤리

검찰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집행기관이자 사정기관이다. 남의 잘못을 적발하고 벌주는 기관이란 얘기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부를 축적하고 고매한 명예를 쌓아도 검찰의 수사망에 걸려든 범죄인은 패가망신하는 횡액을 피할 길이 없다. 검찰에게는 우리 사회의 부패를 막고 건강성을 지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주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조직을 구성하는 검사들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고 건강한 청렴성과 직무윤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 스스로 범질서에 떳떳하지 못한 검사들이 포청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검사들의 직업윤리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 더 이상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도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2009년 검찰총장 후보자였던 **천성관**씨는 스폰서 검사라는 불명예를 쓴 채 낙마해야 했고, 현 **김준규** 검찰총장도 4번이나 주민등록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 법집행기관의 수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질시비에 휩싸였었다. **그랜저검사** 사건은,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검사들의 업무처리 과정에서도 부정이 개입하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을 사실로 확인시켜 주었다. 부산에서 근무한 검사들을 별별 떼게 하였던 부산지검의 **스폰서검사** 사건은 다수의 검사들이 큰 문제의식 없이 조직적인 향응접대문화에 젖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 주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검찰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직업윤리를 보여주지 못했다. 남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서릿발 같은 검찰이 자기 식구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기가 그지없었기 때문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원인이었던 박연차 게이트 사건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중수부장은 퇴임 후 박연차 사건을 변호하고 있던 로펌으로 직행하여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어제는 검사로서 척결의 대상이었던 거악(巨惡)을 오늘은 변호사로서 옹호하기 위하여 그의 진영에 가담한 것이었다. 일반인으로서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고매한 윤리수준이다.

남에게는 추상같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검찰과 검사,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잘 보면서 자기 눈의 커다란 대들보는 보지 못하는 검찰과 검사, 항상 '거악 척결'을 자랑삼아 이야기 하지만 스스로의 부패는 척결할 의지가 없는 검찰과 검사, 그 스스로 외에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치외법권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검찰과 검사. 과연 이들에게서 우리는 청렴하고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를 기대할 수 있을까? 기대안망이라는 단어는 이런 경우에 쓰는 것이다.

99%와 1%

MB 검찰 3년에 대한 총평은 실망 그 자체다. 이에 대한 검사들의 혼한 항변은, 99%의 사건은 잘 처리하고 있는데 1%의 정치적인 사건을 잘못 처리하여 욕을 먹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검찰을 그만 흔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숨기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민주화는 누가 가져다 준 것인가? 국민들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닌가. 정치적 종속관계에 안주하여 기득권을 누리며 독립할 생각이 없는 검사들에게 누가 알아서 독립을 가져다 줄 것인가. 독립은 스스로 쟁취하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국민은 99%의 일반적인 사건처리에 주목하지 않는다. 그것을 원칙과 정도에 맞게 처리하는 것은 검사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자랑거리도 아니다.

국민은 그것을 넘어 대한민국 검사로서의 소신과 신념이 필요한 1%의 사건처리에 주목한다. 우리 사회의 진전과 인권의 발전에 큰 의미를 갖는 1%의 중요한 사건들을 법원칙과 정도에 맞게 처리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그럴 자신이 없는 검사는 검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이다. 이런 검사들은 나라와 검찰조직을 위해 당장 검찰을 떠날 것을 권고한다. 현재 검찰은 단순히 정치권에 종속된 관계도 아니다. 이미 정치권력과 맞먹는 권력, 정치권력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권력으로 성장하여 있다. 정치권력과 공생관계를 형성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러 있다. 검찰조직을 민주법치국가적 통제와 견제의 시스템 하에 끌어들이는 검찰개혁이 시급하게 시작되어야만 하는 이유이다.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 1) : 검찰권 오남용 사례와 책임져야 할 검사들

I. 사건의 선정기준 : 15가지 사건, 왜 어떻게 선정했나

1. 정권과 제식구는 감싸고, 전 정권과 정부 비판세력에는 과도한 수사

- 검찰은 국가형벌권 행사에서 불가결한 요소인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데다 수사권·수사지휘권까지 쥐고 있는 가장 강력한 사정기관임. 이런 이유로 검찰청법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검찰은 가장 엄정한 ‘정의와 형평의 수호자’여야 함. 검찰이 가진 막강한 권한은 ‘형평성’을 잃는 순간 ‘정의롭지 못한 권력’으로 변질되어 도리어 정의실현의 최대 장애물로 될 수도 있음.
- 하지만, 불행하게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늘 비판의 도마에 올라왔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후퇴하였음. 이는 한편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봐주기 수사·제식구 감싸기 수사로 나타났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 정권 관계자나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언론·시민단체·시민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은 검찰 수사의 이중성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현상임. 한편으로 ‘배후’로 지목된 정권 실세에 대해서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경범죄 사건임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배후’를 캐내기 위해 무리하게 공안사건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행태로 볼 수 있음.

2 부실수사 유형 vs. 수사권 남용 유형

- 보고서는 2008년 이후 3년간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들 중 정치적·사회적으로 물의를

1) 이 이슈리포트는 2011년 2월 8일에 발표된 것으로 이번 보고서에 다시 담았습니다.

빛었던 사건들 중 검찰의 수사권 및 기소권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들을 대상으로 하였음.

- 2008~2009년 사례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발간한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주요사건을 대상으로 했고 그 밖에 2010년 검찰이 다루었던 주요사건들 중 권한의 오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일부 추가하였음.
- 검찰의 부실 수사 사례와 무리한 수사 사례를 먼저 유형별로 선정하여 분류하고 분류된 사건들을 다시 구체적인 특징에 따라 34가지로 재분류하였음.
- 이 과정에서 부실수사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 6가지와 권한 남용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 9가지를 최종 선정하였음.

<표 1> 부실수사 유형과 수사권 남용 유형

부실수사 유형	권한 남용 유형
꼬리자르기식 수사	무리한 기소
제 식구 감싸기 수사	무리한 영장청구
압수수색·소환조사 미루기	별건수사
편의 봐주기 수사	피의사실공포

3. 주임검사 - 소속 부장 - 차장 - 지검장, 책임져야 할 사람들

- 검사는 '단독관청'으로 담당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주재함.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상급자의 지휘·감독권 및 소속기관장의 직무이전·승계권한에 때문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음.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 및 법무장관에게까지 상시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그만큼 수사에 대한 상부·외부의 영향력과 압력이 높아짐. 따라서 수사에 대한 책임을 주임검사에게만 묻는 것은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을 배제하게 되며, 실효성도 적음.
- 그러나 수사와 기소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담당하는 주임검사에게 있으며, 준(準) 사법 기관으로서 법적으로는 법관에 준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만큼 담당 검사에 대한 책임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함께 요구됨.
- 보고서는 주임검사 - 소속 부서장 - 차장 - 지검장에 이르는 수사·지휘라인을 문제 사건에 대한 책임자로 보고 그들의 실명을 공개함. 이들은 검사로서 지켜야 할 정의와 형평의 원칙을 무시하였으며, 이는 상명하복에 따른 것이었다 할지라도 마땅히 비판의 대상이 되어

야 함.

4. '정치검찰'이 '잘 나가는 검사'가 되어서는 안 됨

- 실제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수사는 몇몇 수사부서가 대부분 독점하고 있음. 무리하거나 부실한 정치적 수사로 문제가 되는 것 역시 이러한 수사를 담당하는 일부 검사들에 한함. 맡은 바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는 검사들까지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할 수는 없을 것임.
- 문제는,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무죄를 받아도 소위 '잘 나가는 검사'는 승진을 하고 주요 보직을 계속 맡는 현실임. 일부 검사들이 수사에 문제가 있더라도 밀고 나가게 되는 것은 이러한 '정치검찰'의 행태가 제대로 인사에 반영되기는커녕 승진의 사유가 되는 데 있을 것임. 정치적 판단에 의한 무리한 수사나 부실한 수사에 대해 인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꼭 필요함. "아무리 별점을 받아도 잘 나가는 검사는 잘 나간다"는 내부 평가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정치검찰'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 검찰 인사를 통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부실하게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 등 책임을 묻는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임.

II. 검찰권 오남용 사례 : 부실수사·수사권 남용 유형 정리

앞서 부실수사 유형과 수사권 남용 유형을 추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수사 15건을 선정했음을 밝혔음. 각 유형별로 사건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2> 부실수사 유형별 주요 사건 정리

부실수사 유형	해당 수사
꼬리자르기식 수사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그랜저검사 수사 스폰서검사 수사
압수수색·소환조사 미루기	천신일 회장 대우조선해양 관련 수사 한상률 전 국세청장 그림로비 수사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편의 봐주기 수사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스폰서검사 수사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

주 : 한 사건이 여러 유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일부 중복표기됨

<표 3> 수사권 남용 유형별 주요 사건 정리

권한남용 유형	해당 수사
무리한 기소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직무유기 수사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수사 미네르바 전기통신기법법위반 수사 PD수첩 명예훼손 수사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수사
무리한 영장청구	G20 포스터 위그림 수사 최열 환경재단 대표 횡령 수사 사회주의노동자연합 국가보안법 수사
별건수사	전교조 교사 정당가입 수사 한명숙 전 총리 수사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수사
피의사실공포	PD수첩 명예훼손 수사 최열 환경재단 대표 횡령 수사

주 : 한 사건이 여러 유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일부 중복표기됨

〈부실수사 유형 A~D〉

A. 몸통은 어디 가고 깃털만 : 꼬리자르기식 수사

1.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 어떤 사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민간기업 회계자료 등을 압수수색하였으며, 강요에 의한 사직, 불법적 행위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경찰서에 수사의뢰 하는 등 월권적·초법적 행위를 저지름. 검찰 수사과정에서 여권 국회의원까지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으나 검찰은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2급) 개인이 저지른 잘못이라고 결론 지음. 또한 이러한 불법사찰의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총리실 직원이 동원되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기록을 조직적으로 삭제하고 파기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 청와대 행정관 등이 개입했음에도 검찰은 마찬가지로 실무자를 기소하는 수준에서 수사를 마무리.

■ 문제점

① 청와대 개입 드러나도 “재수사 없다”

검찰은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총리실 직원 3명을 직권을 남용하여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 등으로 기소하였으나, 사찰을 지시하고 정기적인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은 혐의가 없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함.

그러나 이러한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청와대가 사찰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잇달아 밝혀지면서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음. 사찰 실무자의 수첩에 ‘BH(청와대) 지시’라는 메모가 수시로 등장하고, 청와대 비서관이 총리실 직원에게 지급한 대포폰이 불법사찰의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미 검찰이 관련 자료를 검토했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수사는 없다”고 공언함.

② 총리실 불법사찰은 눈 감고, 사찰 피해자만 기소유예

민간인 불법사찰이 폭로되기 이전에 이미 검찰은 총리실이 민간인을 사찰한 정황을 알고 있었으나 이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안상돈 부장검사)는 2009.10.19. 민간인 사찰 대상자였던 김종익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처분함. 문제가 된 사건은 김종익 씨

가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을 패러디한 '쥐코' 동영상을 올린 사실. 그러나 이와 같은 혐의사실은 국무총리실의 불법사찰로 인해 수집된 것이었으며, 경찰 수사기록 등에도 이러한 정황이 드러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김종익 씨가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국무총리실 지원관실의 증거 수집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도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까지 제출함.

■ 수사·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노환균 지검장 - 신경식 1차장 (총괄지휘) - 오정돈 형사1부장(팀장)

- 장기석·신자용·최호영·배용찬·박홍주 검사

* 2009년 김종익 씨에 대한 검찰수사·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노환균 지검장 - 신경식 1차장 - 안상돈 부장

□ 주요 일지

2009.10.19 검찰, 김종익 씨 기소유예처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2010.6.21 민주당 신건 의원 등,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

2010.7.2~5 총리실 자체조사

2010.7.5 총리실 대검에 수사의뢰. 대검,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배당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구성

2010.7.9 검찰,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압수수색

2010.8.11 검찰,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3명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 "청와대 연관성 찾지 못했다" 수사결과 발표

2010.9.8 검찰,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지원관실 산하) 과장 등 3명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기소

□ 재판 결과

2010.11.15 이인규·김충곤·원충연·김화기(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방실수색) 1심유죄2)

2010.11.22 진경락·장진수(증거인멸)·권중기(공용물건은닉) 1심유죄3)

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정선재 부장판사

3) 서울중앙지법 2010고합1257, 형사합의35부 정선재 부장판사

2.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

○ 어떤 사건?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의혹에 대해 검찰은 일부 전현직 임직원들의 개인비리로 판단하여 기소하고 2009년 9월 수사를 종결한 바 있음. 이후 2008년 초 대검에서 효성에 대한 범죄정보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봐주기 수사라는 논란이 계속됨. 수사종료 이후 조현준 효성사장의 해외부동산 불법취득이 문제가 되어 검찰이 추가수사에 나섰으며, 조현준·조현상 형제를 불구속기소하였음.

■ 문제점

① 효성그룹 오너일가는 안 건드려

2000년대 초반부터 2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구체적 제보가 입수되어 검찰이 조사에 나섰고 2년여를 끌었으나 효성그룹이나 조석래 회장 일가에 대해서는 혐의를 찾지 못한 채 임직원들의 개인비리로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함. 횡령한 돈의 일부가 조 회장의 주택 수리비용 등으로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조 회장의 “몰랐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비자금 수사임에도 이례적으로 압수수색 한번 하지 않았음. 수사 종결 후 재미동포인 안치용 씨가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에 조석래 회장의 아들인 조현준·조현상 형제의 해외 부동산 구입사실이 공개되고 나서야 검찰은 수사를 재개하여 두 사람을 불구속기소하였음. 검찰이 이 사실을 알고도 덮었다면 봐주기 수사이며, 몰랐다면 부실수사임.

② 수사방치, 누가 책임지나

검찰은 2009.9.30 수사를 종결하면서 효성이 여러 해외법인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관련해 외환관리법 공소시효과 도과되어 공소권이 없다고 발표함. 그러나 검찰은 최초에 수사를 착수하던 시점부터 이러한 의혹을 첩보를 통해 알고 있었고, 당시에는 공소시효도 남아있었음.

대검은 2007.7. 첩보문건을 만들어 대검 중수부에 배당했으나 2007.12. 대선 이후 뒤늦게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시켰음. 서울중앙지검 역시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가 2008.9.에 이르러서 관련자 소환을 시작했음. 수사종결 시점까지 특수1부장만 4명이 바뀔 정도로 수사를 방치. 이에 관해 어떤 수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관한 분명한 해명 없

이 뒤늦게 공소시효 도과로 공소권이 없다는 주장은, 검찰이 공소시효 도과를 방기했다는 의혹마저 들게 함.

■ 수사·지휘라인

① 효성그룹 불법 비자금 조성 수사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2008.3.까지)지검장 명동성 - 3차장 김수남 - 부장 최재경 - 주임검사 박광배

(2009.2.까지)지검장 명동성 - 3차장 김수남 - 부장 문무일 - 주임검사 박광배

(2009.8.까지)지검장 천성관 - 3차장 최재경 - 부장 김오수 - 주임검사 소진

(수사종결)지검장 노환균 - 3차장 김주현 - 부장 김기동 - 주임검사 황현덕

② 조현준·조현상 형제 해외부동산 불법취득 수사 :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지검장 노환균 - 3차장 김주현 - 외사부장 함윤근

□ 주요일지

2006.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효성그룹 관련 수상한 돈 흐름을 포착, 검찰에 통보

2008.2. 국가청렴위, 효성 200~300억대 비자금 조성 내부 제보 입수, 검찰에 수사 의뢰

2007.말~2008.초 대검, 효성 범죄정보 보고서 작성

2009.9.30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효성그룹 불법 비자금 조성 수사 종결. 효성건설 임원 2명 불구속기소(특가법상 횡령)

2009.10.8 안치용 씨 블로그를 통해 조현준 사장의 해외부동산 구입 사실이 확인됨

2009.12.30 검찰, 조현준 사장 불구속기소(외국환거래법 위반)

2010.6.30 검찰, 조현준 사장 소환조사

2010.7.16 검찰, 조현준 사장(특가법상 횡령) 추가기소, 조현준 전무(외환관리법 위반) 불구속 기소

□ 재판결과

2010.6.4 효성건설 임원진 1심 유죄⁴⁾

2010.11.11 효성건설 임원진 2심 유죄⁵⁾

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김용대 부장판사

5) 서울고법 형사9부 최상렬 부장판사

B. 우리가 남이가 :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

1. 그랜저검사 수사

○ 어떤 사건

2008년 초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로 재직하던 정인균이 건설업자로부터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잘 봐 달라는 취지로 그랜저 승용차 등 금품을 받은 사건. 정씨는 사건을 담당하던 후배 검사 도모 씨에게 “기록을 잘 살펴 달라”고 했고, 도씨는 경찰에서 무혐의로 송치된 피의자 4명을 기소했으나, 법원에서는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음. 이에 무죄를 받은 사람들이 정씨와 도씨를 고발하면서 검찰이 수사한 사건.

■ 문제점

① 검사가 받는 것은 뇌물이 아니다?

2009.4. 정인균과 도모 검사에 대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고발과 진정서가 접수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고발된 지 1년 3개월이 지난 2010.7. “청탁이 아닌 차용관계”라며 정인균을 무혐의 처분하였음. 또 한 번의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수사로 끝날 뻔 했던 사건은 2010.10.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결국 검찰총장이 2010.11. 특임검사를 임명해 재수사를 지시하기에 이룸. 이후 정인균이 건설업자로부터 1600만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 구속기소함.

이 과정에서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재수사는 없다” “수사결과에 책임지겠다”고 공언하였지만, 재수사 이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음. 또한 특임검사 역시 검찰수사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었음.

■ 수사·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노환균 지검장 - 신경식 1차장 - 오정돈 형사1부장(주임검사)

(재수사) 특임검사팀

김준규 검찰총장 - 강찬우 대검 선임연구관(특임검사)

6) 서울중앙지법 2010고합1031, 형사합의24부 조한창 부장판사

- 이선봉(대검), 박철웅(부산지검), 김윤희(성남지청) 검사

□ 주요 일지

2010.7. 검찰, 정인균 씨 무혐의 처분

2010.10. 사건 언론 보도, 국정감사에서 '부실수사' 지적

2010.11.16 검찰총장, 재수사 지시

2010.12.8 검찰, 정인균 구속기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재판 결과

2010.1.28 1심 유죄. 정인균 징역 2년6월7

2 스폰서검사 수사

○ 어떤 사건

부산·경남지역 건설업자 정용재 씨로부터 25년에 걸쳐 전·현직 검사 백여 명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성상납을 받아왔다는 내용이 MBC PD수첩을 통해 공개됨.

■ 문제점

① 감찰이 아닌 수사를 해야

뇌물수수·성매매 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와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검찰은 수사가 아닌 감찰을 진행함. 외부인사들이 다수 참가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비난을 피하려고 했지만 법적 근거조차 모호한 위원들은 제대로 된 신문권조차 보장받지 못 했으며, 실제 조사는 검사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이 하고 사후 추인하는 들러리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음. 결국 특검이 구성되어 수사에 착수함.

■ 수사·지휘라인 : (감찰성격) 진상규명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

단장 채동욱(대전고검장) - 팀장 이성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 박찬호(서울고검), 김영기(서울중앙지검), 주영환(범죄정보연구원), 이용일(서울중앙지검), 신봉수(고양지청) 검

7) 서울중앙지법 2010고합1614, 2011.1.28 선고. 형사합의23부 홍승면(재판장), 조지환, 황은규 판사

사

□ 주요일지

2010.4.20 MBC PD 수첩, '검사와 스폰서'편 방송

2010.4.22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위촉(성낙인 서울대 교수). 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
감찰 시작

2010.6.9 진상규명위원회, 진상조사결과·제도개선안 발표

2010.6.29 국회, 특검법 통과

C. 수사는 언제쯤 : 압수수색·소환조사 미루기

1. 천신일 회장 대우조선해양 관련 수사

○ 어떤 사건?

이명박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이자 현 정권 실세인 천신일 세종나모여행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도 당초 '권력형 게이트'로 지목됐던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을 위한 청와대 로비와는 무관한 것으로 결론 내림. 대우조선해양 협력사인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함.

■ 문제점

① 출국금지도 강제소환도 없었다

임천공업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직후 천신일 회장은 도피성 출국을 함. 검찰은 외유 중인 천 회장에게 3차례에 걸쳐 소환통보만 했을 뿐 강제소환하지 않다 2개월여 만에 천신일 회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우회적 방식으로 귀국을 종용하는 것에 그침. 그 이후 1개월이 지나서야 귀국한 천 회장에 대해 곧바로 소환하지 않는 등 다른 사건 피의자들과는 다른 특별대우를 했음.

■ 수사·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지검장 노환균 - 3차장 윤갑근 - 부장 이동열 - 주임검사 주영환

□ 주요일지

- 2010.8.10 검찰, 임천공업 압수수색
- 2010.8.19 천신일 회장 출국
- 2010.10.28 검찰, 천신일 회장 사무실 압수수색
- 2010.11.30 천신일 회장 귀국
- 2010.12.3 검찰, 천신일 회장 구속영장 청구 (7일, 법원 영장 발부)
- 2010.12.23 검찰, 천신일 회장 기소(특가법·특경가법상 알선수재)

2. 한상률 전 국세청장 그림로비 의혹 수사

○ 어떤 사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차장 재임 때 전군포 당시 국세청장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고 최 옥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선물했다는 '그림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2009.1.이후 2년이나 계속되고 있음. 한상률 씨에 대해서는 이외에도 현 정권 실세에게 인사로비를 벌였다는 의혹과 신성해운 세무조사 무마 대가 금품수수 의혹, 박연차게이트와 관련된 의혹들이 있음.

■ 문제점 : 올 때까지 기다린다

전군포 전 국세청장 부인의 폭로, 한 전 청장의 지시로 그림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기관의 진술,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 부인의 '인사로비설' 녹취록 공개 등이 있었지만 검찰의 의혹의 중심에 있는 한상률에 대해 강제소환하지 않고 있음. 한씨는 2009.1.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국세청장직을 사임하고 2009.3. 돌연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고 있음.

■ 수사·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 (배당)지검장 천성관 - 3차장 최재경 - 부장 박정식
- (2009.8.이후)지검장 노환균 - 3차장 김주현 - 부장 권오성
- (2010.8.이후)지검장 노환균 - 3차장 윤갑근 - 부장 최윤수

□ 주요일지

2009.3.22 한상률, 미국 출국

3.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

■ 문제점

① 3년만의 범죄인 인도요청

조석래 회장의 동서인 주관엽 씨가 실소유주인 로우테크놀로지는 국방부에 장비를 납품하는 방위사업체임. 로우테크놀로지는 납품단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국고를 편취하고 비자금을 조성함. 경찰의 내사 직후인 2007.5. 주씨가 미국으로 도피하였으나 경찰과 검찰 모두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지 않았음. 2010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야 검찰은 인터폴에 수배요청을 함.

4.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 문제점

① 압수수색 미루는 동안 증거는 사라졌다

2010.7.9 검찰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압수수색 하면서 “사상 처음 총리실 압수수색”이라는 의미가 부여되었으나, 이미 청와대 비서관까지 개입된 조직적 증거인멸이 일어난 다음이었음. 검찰은 총리실이 자체조사를 마친 후 2010.7.5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다음에야 수사에 착수했으며, 압수수색을 하는 데까지 나흘을 더 보냈음. 바로 그 사이인 7월 5일과 7일에 지원관실 직원들이 동원되어 자료를 삭제하고 영구적으로 훼손하는 행위가 벌어졌음.

D. 불편하신 점은 없는지 : 편의 봐주기 수사

1.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 문제점

① 대포폰 지급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호텔 조사

불법사찰의 증거가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과정에 쓰였던 대포폰이 청와대 최종석 행정관에 의해 지급된 사실을 밝혀내고도, 검찰은 핵심 참고인인 최 행정관을 서울 시내 호텔에서 조사하는 등 편의를 봐줬음.

2. 스폰서검사 수사

■ 문제점

① 특검도 검찰에게는 약하다?

특검수사과정에서 황희철 법무부 차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면서, 황 차관에게는 특검 사무실이 아닌 제3의 장소로 소환하는 편의를 봐주었음. 또한 황 차관의 국회출석 일정 이후에 소환조사 사실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기도 함.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에 대해서 특검은 공개소환 방침을 밝혔다가, 특검에 파견된 검찰 직원의 도움으로 몰래 사무실에 들어올 수 있었음.

3. 효성 비자금 수사

■ 문제점

① 상대적으로 '너무' 조용한 수사

검찰이 2009.4.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사실이 2009.10.15 뒤늦게 밝혀짐. 소환 당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등 박연차게이트 관련자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수사가 사실상 공개수사로 진행된 것과는 너무 대조적인 수사였음.

수사종결은 더욱 의아스러운 방식으로 진행.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한 기업형 비리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종료하고 기소를 하면서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료를 내거나 브리핑조차 하지 않음. 추석연휴 전전날 서울중앙지검 기자실 칠판에 종료했다고 쓰고, 법조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효성사건 종결됐다'고 알렸다고 함.

〈수사권 남용 유형 A~D〉

A. 일단 하고 본다 : 무리한 기소

1. 김상곤 경기교육감 수사

○ 어떤 사건?

2009.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발표한 행위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은 이들을 기소함. 검찰은, 기소된 교사들에 대해 김상곤 경기교육감에게 교육공무원징계령에 의하여 1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김 교육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한 사건.

■ 문제점

① 상위법에 맞지 않는 시행령 해석을 근거로 기소

검찰은 교육공무원징계령을 근거로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가 교육기관장에게 통보된 경우 1월 이내에 교육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된다고 판단함.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선출직 교육감으로서 교원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에 대한 일차적 판단과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기계적 판단임. 실제 다른 사례에서도 음주운전·성매매 등으로 범죄처분결과가 지방교육청에 통보된 경우에도 징계의결을 하지 않고 내부종결·주의·경고 등으로 사안이 종료되기도 하였음. 범죄처분결과통보만으로 징계의결요구가 발생한다는 논리라면 다른 교육감들에게도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어야 할 것임.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김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음. 법원은 “시국선언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행위인지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 행사 범위 내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이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김 교육감의 징계의결요구 유보가 교육감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았음. 판결문을 보면 교육과학기술부 내에도 시국선언 서명운동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음.

이렇듯 상위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 법의 적용은 기소권 남용의 전형적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임.

■ 수사·지휘라인 : 수원지검 공안부

지검장 박영렬 - 2차장 윤갑근 - 부장 변창훈 - 주임검사 김종현

□ 주요 수사 및 재판결과

2010.3.5. 검찰,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직무유기혐의로 불구속기소

2010.7.27. 1심 무죄⁸⁾

2011.1.6. 2심 무죄⁹⁾

2 정연주 전 KBS 사장 수사

○ 어떤 사건

2005년 KBS가 국세청과의 세금반환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하고도 2심 재판부의 조정에 응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2448억원(1심 승소액 1764억원과 이자 684억원)을 포기하고 556억원만 돌려받음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정연주 사장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한 사건.

■ 문제점

KBS는 이사회와 법무법인, 감사실을 통한 법률검토까지 마친 상태에서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수용하는 결정을 했음.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비판이 많았으며, 법조인들의 상당수가 무죄판결을 예상했던 사건이었음. 실제 1심과 2심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음.

■ 수사·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지검장 명동성 - 1차장 최교일 - 부장 박은석 - 주임검사 이기욱·장성훈

□ 수사 및 재판경과

2008.8.20. 정연주 전 사장 불구속 기소(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8) 수원지법 2010고합95, 제11형사부(나) 유상재(재판장), 오지원, 정선균 판사

9) 서울고등법원 2010노2212, 제2형사부(나) 김상철 부장판사

2009.8.18. 1심 무죄¹⁰⁾

2010.10.28. 2심 무죄¹¹⁾

3. 미네르바 사건 등 전기통신기본법 관련 수사

○ 어떤 사건

‘미네르바 사건’으로 알려진 ‘허위통신죄’ 처벌조항인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수사와 기소를 한 사건.

■ 문제점

검찰이 이 조항을 적용하여 수사하거나 기소한 사건들 대부분 촛불집회나 천안함 침몰 처럼, 정부의 활동과 관련해 국민들 사이에 엇갈린 견해가 대립하고 있었던 사안이었음. 이 조항은 약 50년 전에 제정되어 사문화되어 있다가 이명박 정부 이후인 2008년에야 처음으로 적용되었음. 검찰이 이 조항을 적용하면서 조항의 위헌성 시비가 계속되었으나 (위헌소원 심리 중, 국가인권위 위헌의견서 제출 등) 계속 적용하다 2010.12.28 현재의 위헌결정 이후 검찰이 기소한 사건들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음.

■ 수사·지휘라인(미네르바 건) :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지검장 천성관 - 부장 김주선 - 주임검사 오현철

□ 수사 및 재판경과

2009.1.22 검찰, ‘미네르바’ 박대성 씨 구속기소

2009.4.20 1심 무죄¹²⁾

2009.5.26 헌법재판소, 미네르바 사건 위헌소원 심판회부(2009헌바88)

2010.12.28 헌법재판소,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결정

1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이규진(재판장) 장재용 최규진 판사

11) 서울고법 형사5부 안영진(재판장) 오상용 신종오 판사

12) 서울중앙지법 2009고단 304,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

4. PD수첩 명예훼손 수사

○ 어떤 사건

2008.4.29 MBC PD수첩 방영 프로그램(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에 대해 제작진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한 사건.

■ 문제점

수사를 맡았던 주임검사(임수빈 형사2부장)가 명예훼손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주임검사 사표를 제출 이후, 형사6부로 사건이 재배당되어 기소되었음.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성격을 가진 언론보도에 대해 정책을 담당했던 관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그것도 민사소송이 아닌 국가가 나서 형사소추를 하였다는 데 비판이 많았으며, 1·2심 무죄판결로 무리한 기소였음이 드러남.

■ 수사·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지검장 천성관 - 1차장 정병두 - 부장 전현준 - 주임검사 박길배·김경수·정진우·송경호

□ 수사결과 및 재판경과

2009.6.18. PD수첩 제작진 5명 불구속 기소(명예훼손·업무방해)

2010.1.20. 1심 무죄¹³⁾

2010.12.02. 2심 무죄¹⁴⁾

5.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수사

○ 어떤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재임 당시 광영옥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 부터 인사 청탁의 대가로 5만달러를 수수했다는 혐의로 수사한 사건.

13)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14)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상훈 부장판사)

■ 문제점

① 신빙성 부족한 진술에만 의존한 기소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혐의에 대해 수사하던 검찰은 곽 전 사장으로부터 “2007년 초 총리공관에서 한명숙 당시 총리에게 5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함. 다른 사건으로 구속수사 중이던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였으며, 무리한 기소로 인해 검찰은 1심 재판 도중 공소장을 변경하는 수모를 겪었으나 결국 무죄가 선고되었음. 한편 곽영욱의 다른 범죄혐의(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내사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진술을 대가로 사실상의 유죄협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 수사·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지검장 노환균 - 3차장 김주현 - 부장 권오성 - 주임검사 이태관

□ 수사 및 재판경과

2009.12.22. 한명숙 전 총리 불구속 기소(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2010.4.9. 1심 무죄¹⁵⁾

B. 안 되면 다시 한다 : 무리한 영장청구

1. G20 포스터 쥐그림 수사

○ 어떤 사건

2010.10.31. 길거리에 부착된 G20 정상회의 포스터 위에 쥐 그림을 그린 혐의(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로 대학강사 박모 씨 등을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당하자 불구속 기소

■ 문제점

1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형두(재판장) 염경호 박승혜 판사

① 포스터에 그림 그렸다고 구속하나?

일반적으로 훈방하거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할 만한 사안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11월 1일)했다 기각당함. 경찰은 대학생 박모씨에 대해서 체포시한을 넘겨 불법구금하기도 함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는 범죄수사를 공안부에서 담당한 검찰은 “G20이라는 국가 중대 행사를 폄훼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결국 2011년 1월 기소하였음. 혐의사실과는 다르게 공안사건화 하려고 했고 ‘수유+너머’를 배후단체로 보고 조사하기도 했음.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제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함.

■ 수사·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지검장 노환균 - 2차장 공상훈 - 부장 안병익 - 주임검사 강수산나

□ 수사 경과

2010.11.1 검찰, 박정수 씨 구속영장 청구

2010.11.2 법원, 구속영장 기각. 경찰, 대학생 박모씨에 대해 체포시한 넘겨 불법구금

2011.01.26. 검찰 박정수 씨 등 2명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

2 최열 환경재단 대표 횡령 수사

○ 어떤 사건

환경재단 최열 대표에 대해 기업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한 사건임. 기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하거나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으로 전용한 혐의와 부동산업체로부터 토지용도변경 등에 관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됨.

■ 문제점

① 두 번이나 무리하게 구속영장 청구하다 기각됨

2008.9.7 SBS가 환경운동연합 보조금 횡령 의혹을 보도한 다음날 검찰은 곧바로 환경운동연합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개시하였음.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때 느장대응을 했던 것과 대조적임. 또한 검찰은 2008.9.19 최열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는데 한상률·천신일 등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리지 않았던 것과 역시 대조적임.

검찰은 최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청구하였으나 이는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되었음. 2008.12.1에는 후원금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재판에서 다뤄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음. 2009.3.25 3개월여 만에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하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되어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가 비판받음.

■ 수사·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수사개시)지검장 명동성 - 3차장 김수남 - 부장 김광준

(2009.1.이후)지검장 천성관 - 3차장 최재경 - 부장 김기동 - 주임검사 노정환

□ 수사결과 및 재판경과

2008.9.8 검찰, 환경운동연합 압수수색

2009.9.19 검찰, 최열 대표 출국금지조치

2009.11.7 검찰, 환경재단 압수수색

2008.12.1 검찰, 최열 대표 구속영장 청구(3일 기각)

2009.3.25 검찰, 최열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28일 기각)

2009.4.1. 최열 대표 불구속기소(업무상 횡령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

2011.1.28 1심 선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¹⁶⁾

3.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수사

○ 어떤 사건

2008.2.23 출범한 사회주의 이론 연구단체인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을 ‘이적단체’로 판단하여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노련 회원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한 사건.

■ 문제점

16) 서울중앙지법 2009고합352,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구성원과 활동내용을 공개해온 단체의 구성원들을 수사하면서 긴급체포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소명 부족'의 이유로 기각됨. 이에 검찰은 약 3개월 만에 다시 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사노련의 활동이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됨. 형사소송법 원칙상 불구속수사를 하여야 함에도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하려 했지만, 범죄의 소명 부족이라는 이유로 두 차례나 가각을 당하면서 애초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삼.

■ 수사·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지검장 천성관 - 2차장 김희관 - 부장 윤용걸

□ 수사 및 재판 경과

2008.8.26 경찰, 오세철 교수 등 사노련 회원 7명 긴급체포, 자택 압수수색

2008.8.27 검찰, 7명 전원 구속영장 청구(29일 기각)

2008.11.14 검찰, 오세철 교수 등 5명 구속영장 재청구(17일 기각)

2009.5.4 경찰, 사노련 홈페이지 DB 압수수색

2009.8.11 검찰, 오세철 교수 등 8명 불구속기소

2011.2.18 1심 선고 예정¹⁷⁾

C. 이게 안 되면 저걸 한다 : 별건수사

1. 전교조 교사 민노당 가입 수사

○ 어떤 사건

민주노동당에 당원 또는 당우로 가입하여 당비를 납부해온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무더기로 기소한 사건.

■ 문제점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929, 제27형사부

① 다른 사건으로 압수한 자료로 수사한 검찰

검찰은 전교조에 대해 2009년에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수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여 당비를 납부한 자료를 찾아냈음. 그것을 근거로 2010.5.6 전현직 교사 183명을 불구속기소함. 그러나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시국선언을 수사하기 위해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한 자료를 민주노동당 당원 가입 사건 공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함. 검찰은 2010.1. 전교조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10년치 회의록 등 내부자료를 확보하였고 그를 바탕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를 진행했음. 법원은 이에 대해 “영장이 허가한 범위를 벗어나 압수된 자료들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배척함.

■ 수사·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지검장 노환균 - 2차장 오세인 - 부장 유호근 - 주임검사 정영학

□ 수사 및 재판 경과

2010.5.6 검찰, 전현직 교사 183명 불구속기소, 4명 기소유예처분

2011.01.26. 1심 선고 정당가입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면소, 정당에 후원금을 납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됨¹⁸⁾

2 한명숙 전 총리 수사·김상곤 경기교육감 수사

■ 문제점

① 무죄가 나면 다른 사건으로 기소한다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1심 선고 전날인 2010.4.8. 한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에 대한 공개수사에 착수함(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김기동 부장검사). 검찰은 이에 대해 한 전 총리에 대한 뇌물수수 재판과정 중 제보가 들어와서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당시 한 전 총리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상황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무죄가 나올 것에 대비해 다른 사건으로 갑작스레 기소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았음.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경우, 직무유기혐의로 기소한 사건이 2010.7.27 법원에 의해 무죄를

18) 서울중앙지법 2010고합483. 형사합의23부 홍승면(재판장), 조지환, 황은규 판사

받고 나서 4개월 후인 2010.12.1 다시 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함(수원지검 공안부. 이태형 부장검사 - 홍용준 주임검사). 김 교육감의 공소사실은 경기장학재단을 통한 기부행위였는데, 이는 전임 김진춘 교육감의 주도로 2007년 설립되었으며 매년 중고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던 것임. 검찰은 이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다가 2010.7. 교과부의 수사의뢰를 받고나서 김상곤 교육감만을 기소하여 편파수사의 비판을 받았음.

D. 여론을 통한 모욕주기 : 피의사실공표

1. PD수첩 명예훼손 수사

■ 문제점

① 범죄와 관계없는 개인의 사생활 까발리기

검찰이 PD수첩 제작진을 2009.6.18 불구속기소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은희 작가의 개인 메일 3건의 내용을 공개함. 검찰은 김 작가의 7년치 이메일을 뒤지고 나서 김씨가 지인들과 사적으로 주고받은 내용(“이명박 대통령을 증오한다”)을 마치 PD수첩이 왜곡 보도를 한 증거인 양 껴어 맞추기식 수사발표를 함. 이에 대해 ‘사생활 및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 검찰은 이 내용이 “수사상 꼭 필요한 증거”라고 해명함. 그러나 정작 재판과정에서는 이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음.

2. 최열 환경재단 대표 수사

■ 문제점

① ‘먼지털이’ 수사와 ‘쓰레받기’ 보도

특수부가 투입되어 7개월이 넘는 수사기간 동안 최열 대표 주변 인물 80여 명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하여 ‘먼지털이식’ ‘저인망 수사’ 등의 비판을 받음. 이 과정에서 수차례 검찰에 소환당한 참고인이 여럿이고, 최 대표 역시 세 차례 소환,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하였음.

무엇보다 이러한 과정이 언론을 통해 그대로 노출되면서 사법적 판단을 구하기도 전에 수사단계에서 이미 여론재판을 받아야 했음. 최 대표의 출국금지사실이 알려지자 언론은

최 대표의 횡령혐의를 기정사실화하는 기사를 썼으며, 구체적인 혐의내용뿐만 아니라 혐의와 관계없는 사실까지 언론에 보도되면서 최 대표는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음.

지난 2011.1.28 1심 법원은, 최열 대표에 대해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거나 건설사업 승인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주요 혐의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내렸음. 재판을 통해 검찰의 기소 대부분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셈이지만 피의사실공포와 무리한 수사로 입은 이미 입은 피해는 복구할 수 없는 것임.

III. 책임져야 할 검사들 : 부실수사·수사권 남용 사건의 책임자들

부실수사 유형과 수사권 남용 유형으로 사건을 분류하고, 그 유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로 15건의 수사를 선정함. 6건의 부실수사 사례와 9건의 권한남용 수사 사례는 다음 <표 4>, <표 5>과 같음.

15건의 수사 중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한 수사는 총 13건으로, 스폰서검사 감찰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수사를 제외하면 문제의 수사로 뽑힌 사건 전부를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한 것을 알 수 있음. 서울중앙지검 사건 중에서도 특수1~3부가 담당한 사건이 5건으로 전체 사건의 1/3에 해당함.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총 3건의 수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 단일 부서로는 최다임.

<표 4> 주요 부실수사 사례 관련 수사지휘라인

무슨 수사	부실수사 유형	누가 했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꼬리자르기식 수사 압수수색·소환조사 미루기 편의 봐주기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노환균 지검장 - 신경식 1차장 - 팀장 오정돈 - 장기석·신자용·최호영·배용찬·박흥주 검사
그랜저검사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노환균 지검장 - 신경식 1차장 - 오정돈 부장(주임검사)
스폰서검사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진상규명위원회 진상조사단 단장 채동욱 - 팀장 이성운 - 박찬호·김영기·주영환·이용일·신봉수 검사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	꼬리자르기식 수사 압수수색·소환조사 미루기 편의 봐주기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노환균 지검장 - 김주현 3차장 - 김기동 부장 - 황현덕(주임검사)
천신일 회장 대우해양조선 관련 수사	압수수색·소환조사 미루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노환균 지검장 - 윤갑근 3차장 - 이동열 부장 - 주영환(주임검사)
한상률 전 국세청장 그림로비 수사	압수수색·소환조사 미루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노환균 지검장 - 윤갑근 3차장 - 최윤수 부장

주 : 수사·지휘라인은 기소 시점의 책임자임. 기소 이전 사건의 경우 가장 최근 담당자를 적었음

<표 5> 주요 검찰권한 남용 사례 관련 수사지휘라인

무슨 수사	권한남용 유형	누가 했나
G20 포스터 쥐그림 수사	무리한 영장청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노환균 지검장 - 공상훈 2차장 - 안병익 부장 - 강수산나(주임검사)
PD수첩 명예훼손 수사	무리한 기소 피의사실공포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천성관 지검장 - 정병두 1차장 - 전현준 부장 - 박길배·김경수·송경호(주임검사)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수사	무리한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노환균 지검장 - 김주현 3차장 - 권오성 부장 - 이태관(주임검사)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수사	무리한 기소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명동성 지검장 - 최교일 1차장 - 박은석 부장 - 이기욱·장성훈(주임검사)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직무유기 수사	무리한 기소	수원지검 공안부
		박영렬 지검장 - 윤갑근 2차장 - 변창훈 부장 - 김종현(주임검사)
최열 환경재단 대표 횡령 수사	무리한 영장청구 피의사실공포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천성관 지검장 - 최재경 3차장 - 김기동 부장 - 노정환(주임검사)
전교조 정당가입 수사	별건수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노환균 지검장 - 오세인 2차장 - 유호근 부장 - 정영학(주임검사)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수사	무리한 영장청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천성관 지검장 - 김희관 2차장 - 윤웅걸 부장 - 이태순(주임검사)
미네르바 전기통신기법위반 수사	무리한 기소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천성관 지검장 - 김수남 3차장 - 김주선 부장 - 오현철(주임검사)

주 : 수사·지휘라인은 기소 시점의 책임자임. 기소 이전 사건의 경우 가장 최근 담당자를 적었음

문제 검사들, 무엇을 했고 어디로 갔나

문제가 된 15가지 수사에서 수사·지휘라인에 포함된 검사는 총 51명으로, 퇴직한 검사를 제외한 명단은 아래 표4와 같음(총 47명). 사건 배당 이후 기소가 되기 전에 수사·지휘라인이 바뀐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제 사건의 책임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임. 표에서는 기소가 된 사건의 경우 기소시점의 자를, 기소가 안 된 사건은 가장 최근의 담당자만을 적었음.

검사별로 수사했거나 지휘한 사건을 다시 정리해보면, **노환균 대구고검장**이 총 8건에 대한 수사·지휘라인에 올라 최다로 꼽혔으며,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3건, **신경식·김주현·오정돈·김기동·주영환** 검사가 각각 2건의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라인에 있었음.

<표 6> 부실수사·권한남용 책임자별 주요 사건 및 보직 이동 현황

책임자(당시 직책)	주요수사/보직이동	출신
노환근 (서울중앙지검장)	민간인사찰, 그랜저검사, 효성, 천신일, 한상률, G20포스터, 한명숙, 전교조	경북 상주
	(현)대구고검장	고려대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 수원지검 2차장)	천신일, 한상률, 김상곤	충북 청주
	(현)서울중앙지검 3차장	성균관대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	민간인사찰, 그랜저검사	서울
	(현)서울중앙지검 1차장	서울대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	효성, 한명숙	서울
	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대
오정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민간인사찰, 그랜저검사	서울
	현 법무부 검찰담당관	서울대
김기동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장)	효성, 최열	경남 진주
	현 대검 연구관 겸 검찰기획단장	서울대
주영환 (서울서부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스폰서검사, 천신일	경남 울진
	(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서울대
채동욱 (대전고검장)	스폰서검사	서울
	(현)대전고검장	서울대
공상훈 (서울중앙지검 2차장)	G20포스터	대구
	현 서울중앙지검 2차장	서울대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	PD수첩	경남 하동
	춘천지검장 - (현)대검 공판송무부장	서울대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	정연주	경북 영주
	서울고검 차장 - (현)법무부 검찰국장	고려대
최재경 (서울중앙지검 3차장)	최열	경남 산청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서울대
김희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전북 익산
	대전지검 차장 - (현)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대
오세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	전교조	강원 양양
	(현)부산고검 검사	서울대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	미네르바	대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청주지검장 - (현)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서울대
전현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PD수첩	대구
	서울중앙지검 금조1부장 - (현)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서울대
윤용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전남 해남
	법무연수원 교수 - (현)서울고검 검사	고려대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천신일	경기 안양
	(현)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연세대

최윤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한상률	
	(현)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서울대
안병익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G20포스터	강원 횡성
	(현)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서울대
김주선 (서울중앙지검 마조부장)	미네르바	강원 속초
	춘천지검 강릉지청장 -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 - (현)제주지검 차장	단국대
이성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스폰서검사	전북 무주
	(현)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경희대
권오성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한명숙	경북 칠곡
	(현)인천지검 형사3부장	경북대
박은석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정연주	충북 청원
	법무연수원 교수 -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 (현)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서울대
변창훈 (수원지검 공안부장)	김상곤	경북 예천
	(현)인천지검 형사5부장	서울대
유호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전교조	경북 안동
	(현) 수원지검 형사3부장	서울대
오현철 (서울중앙지검 검사)	미네르바	전남 무안
	(현)서울중앙지검 검사	경희대
정영학 (서울중앙지검 검사)	전교조	경남 진해
	(현)서울중앙지검 검사	서울대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검사)	최열	대구
	수원지검 부부장 - (현)주중대사관 파견	경찰대
김종현 (수원지검 검사)	김상곤	서울
	(현)수원지검 검사	서울대(경영학)
이기욱 (서울중앙지검 검사)	정연주	충남 예산
	(현)청주지검 검사	연세대
장성훈 (서울중앙지검 검사)	정연주	경북 안동
	(현)서울중앙지검 검사	외대
이태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한명숙	전남 여수
	(현)서울중앙지검 검사	서울대
박길배 (서울중앙지검 검사)	PD수첩	경남 함안
	(현)대검 연구관	서울대
김경수 (서울중앙지검 검사)	PD수첩	
	(현)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 검사	고려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검사)	PD수첩	충남 보은
	(현)서울중앙지검 검사	서울대
강수산나 (서울중앙지검 검사)	G20포스터	서울
	(현)서울중앙지검 검사	외대(영어과)
황현덕	효성	경북 의성

(서울중앙지검 검사)	(현) 수원지검 부부장	고려대
박찬호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스폰서검사	전남 광양
	(현)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전남대(철학과)
김영기 (서울중앙지검 검사)	스폰서검사	충남 태안
	(현)대전지검 부부장	고려대
이용일 (서울중앙지검 검사)	스폰서검사	전남 고흥
	(현)서울중앙지검 검사	고려대
신봉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	스폰서검사	전북 완주
	(현)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형통추진단 파견)	연세대
장기석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민간인사찰	서울
	(현)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고려대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검사)	민간인사찰	전남 장흥
	(현)서울중앙지검 검사	한양대
최호영 (인천지검 검사)	민간인사찰	인천
	(현)인천지검 검사	고려대
배용찬 (서울중앙지검 검사)	민간인사찰	서울
	(현)부산지검 부부장	서울대
박흥주 (서울중앙지검 검사)	민간인사찰	
	(현)서울중앙지검 검사	

주1 : 수사·지휘라인은 기소 시점의 책임자임. 기소 이전 사건의 경우 가장 최근 담당자를 적었음

주2 : 퇴임한 검사들(천성관, 명동성, 박영렬)은 제외시켰음

2부. 이명박 정부 3년 검찰 인사

1. 2008 ~ 2010년 20개 검찰(법무) 핵심직책 인사

검찰(법무부포함) 조직의 간부 직책 중에서 검찰(법무)활동의 방향을 좌우하거나 또는 중요사건을 담당하는 주요 직책으로는 다음 20개가 우선 꼽히며 이들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법무부장관

- 법무부차관

- **법무부 검찰국장** : 검찰행정(인사, 조직 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검찰청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자료 작성, 검찰 예산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형사사건 관련 검찰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과 검찰사무보고 및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형사사건의 수사·공소유지 등의 지휘·감독 등을 담당한다.(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제10조)

- **법무부기획조정실장** : 법무부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종합 및 조정, 주요 업무계획의 지침 수립 종합 및 조정, 법질서 바로세우기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제8조)

- 검찰총장

- 대검차장

- **대검 중수부장** :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을 수사하는 대검 중앙수사부를 관할하며 중앙수사1과장, 2과장, 첨단범죄수사과를 지휘하며 대검수사기획관 1인의 보좌를 받는다.

- **대검수사기획관** : 대검 중앙수사부에 속해 있으며 검찰총장이 정하는 수사업무의 기획 및 조정, 지도, 유관기관협조에 관한 사항, 공무원·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 직원·변호사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에 대한 검찰사무 지휘 감독 관련 사항(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6조) 등에 관하여 대검 중수부장을 보좌하다.

- **대검중수1과장** :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을 수사한다.

- **대검중수2과장** :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을 수사한다.

- **대검공안부장** : 대검 공안부를 관할하며 공안1과장, 2과장을 지휘하고, 대검공안기획관 1인의 보좌를 받는다(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8조)

- **대검공안기획관** : 공안업무 기획, 공안사건 수사지도, 공안정세 분석 및 판단, 공안관련 출판물과 유인물의 분석 및 평가,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에 관한 수사의 기획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대검 공안부장을 보좌한다.(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8조)

- **대검공안1과장** : 대공사건, 선거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지휘 감독 등을 맡는다(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8조)
- **대검공안2과장** : 노동관련 사건, 학원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지휘 감독 등을 맡는다(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8조)
- **대검공안3과장**(2009.3.신설) : 사회·종교·정치 등 단체 관련 공안사건 및 집단행동 관련 사건, 테러사건, 출입국 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8조)
- **대검범죄정보기획관** : 대검 차장검사를 보좌하고, 부정부패사범 정보, 경제질서저해사범 정보, 신문방송간행물정보통신의 공개범죄정보(이상 범죄정보1담당관 소관), 대공사회단체 및 종교단체관련 공안사건 범죄정보, 선거·노동관련사건 정보, 학원·외사관련사건 정보(이상 범죄정보2담당관 소관)를 수집하고 관리한다.

- **서울중앙지검장**

- **서울중앙지검 1차장** : 서울중앙지검의 형사1~8부와 조사부를 지휘하며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하고 서울중앙지검장 사고 시 직무를 대리한다.(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12조)
- **서울중앙지검 2차장** : 서울중앙지검의 공안1,2부와 공판1,2부, 외사부를 지휘하며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한다.(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12조)
- **서울중앙지검 3차장** :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1~3부, 강력부, 첨단범죄수사1,2부, 금융조세조사1,2부를 지휘하며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한다.(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12조)

이들 20개 직책에 있었던 인사들의 명단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개 주요 직책 인사

직책 / 인사시점	성명	출생지	출신 고교	출신대학	연수원 기수	이전 직책
법무부장관						
2008년	김경한	경북 안동	경북고	서울대 법대	1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2009년 1월	김경한	경북 안동	경북고	서울대 법대	1	법무부장관(유임)
2009년 9월	이귀남	전남 장흥	인창고	고려대 법대	12	법무부차관(2009년) -대구고검장
2010년 7월	이귀남	전남 장흥	인창고	고려대 법대	12	법무부장관(유임)
2011년 2월	이귀남	전남 장흥	인창고	고려대 법대	12	법무부장관(유임)
검찰총장						
2008년	임채진	경남 남해	부산고	서울대 법대	9	
2009년 1월	임채진	경남 남해	부산고	서울대 법대	9	대검찰청 검찰총장
2009년 8월	김준규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11	전 대전고검장
2010년 7월	김준규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11	검찰총장(유임)
2011년 2월	김준규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11	검찰총장(유임)
대검 차장						
2008년	권재진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10	
2009년 1월	문성우	광주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11	법무부차관(2008)
2009년 8월	차동민	경기 평택	제물포고	서울대 법대	12	수원지검장(2009.1) -법무부 검찰국장(2008)
2010년 7월	차동민	경기 평택	제물포고	서울대 법대	12	대검 차장(유임)
2011년 2월	박용석	경북 군위	경북고	서울대 법대	13	법무연수원장(2009.8) - 부산지검장(2009.1)
법무부차관						
2008년	문성우	광주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11	
2009년 1월	이귀남	전남 장흥	인창고	고려대 법대	12	대구고검장
2009년 8월	황희철	광주	경동고	서울대 법대	13	서울남부지검장(2009.1) -광주지검장(2008)
2010년 7월	황희철	광주	경동고	서울대 법대	13	법무부차관(유임)
2011년 2월	황희철	광주	경동고	서울대 법대	13	법무부차관(유임)
서울중앙지검장						
2008년	명동성	전남 강진	광주고	서울대 법대	10	

2009년 1월	천성관	충남 논산	경기고	서울대 법대	12	수원지검장
2009년 8월	노환균	경북 상주	대건고	고려대 법대	14	대검公安부장(2009.1) -울산지검장(2008)
2010년 7월	노환균	경북 상주	대건고	고려대 법대	14	서울중앙지검장(유임)
2011년 2월	한상대	서울	보성고	고려대 법대	13	서울고검장(2009.8) - 법무부 검찰국장(2009.1)
법무부 검찰국장						
2008년	차동민	경기 평택	제물포 고	서울대 법대	13	
2009년 1월	한상대	서울	보성고	고려대 법대	13	법무부 법무실장
2009년 8월	최교일	경북 영주	경북고	고려대 법대	15	서울고검 차장(2009.1) -서울중앙1차장(2008)
2010년 7월	최교일	경북 영주	경북고	고려대 법대	15	법무부 검찰국장(유임)
2011년 2월	최교일	경북 영주	경북고	고려대 법대	15	법무부 검찰국장(유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2008년	소병철	전남 순천	광주 제 일고	서울대 법대	15	
2009년 1월	김수남	대구	대구 청구고	서울대 법대	16	서울중앙지검 3차장(2008)
2009년 8월	최재경	경남 산청	대구고	서울대 법대	17	서울중앙지검 3차장(2009.1) -대검수사기획관(2008)
2010년 7월	김희관	전북 익산	전주고	서울대 법대	17	대전지검 차장(2009.8) -서울중앙지검 2차장(2009.1)
2011년 2월	김희관	전북 익산	전주고	서울대 법대	17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유임)
대검 중앙수사부장						
2008년	박용석	경북 군위	경북고	서울대 법대	13	
2009년 1월	이인규	경기 용인	경동고	서울대 법대	14	대검 기획조정부장
2009년 8월	김홍일	충남 예산	예산고	충남대 법대	14	대검 마약조직범죄부(2009.1) -사법연수원 부원장(2008)
2010년 7월	김홍일	충남 예산	예산고	충남대 법대	14	대검 중앙수사부장(유임)
2011년 2월	김홍일	충남 예산	예산고	충남대 법대	14	대검 중앙수사부장(유임)
대검公安부장						
2008년	박한철	부산	제물포 고	서울대 법대	13	
2009년 1월	노환균	경북 상주	대건고	고려대 법대	14	울산지검장
2009년 8월	신종대	서울	대일고	서울대 법대	14	춘천지검장(2009.1) -부산지검 1차장(2008)
2010년 7월	신종대	서울	대일고	서울대 법대	14	대검公安부장(유임)
2011년	신종대	서울	대일고	서울대	14	대검公安부장(유임)

2월				법대		
서울중앙지검 1차장						
2008년	최교일	경북영주	경북고	고려대 법대	15	수원지검1차장
2009년 1월	정병두	경남하동	부산동고	서울대 법대	16	수원지검1차장
2009년 8월	신경식	서울	고려고	서울대 법대	16	수원지검 1차장(2009.1) -대검 미래기획단장(2007)
2010년 7월	신경식	서울	고려고	서울대 법대	16	서울중앙지검 1차장(유임)
2011년 2월	신경식	서울	고려고	서울대 법대	16	서울중앙지검 1차장(유임)
서울중앙지검 2차장						
2008년	국민수	대전	대신고	서울대 법대	16	수원지검2차장
2009년 2월	김희관	전북익산	전주고	서울대 법대	17	대검공안기획관
2009년 8월	오세인	강원양양	강릉고	서울대 법대	18	대검 공안기획관(2009.2) -대검 대변인
2010년 8월	공상훈	대구	대구고	서울대 법대	19	서울고검 검사 (국정원 파견, 2009.2) - 서울중앙 공안1부장(2008)
2011년 2월	공상훈	대구	대구고	서울대 법대	19	서울중앙지검 2차장(유임)
서울중앙지검 3차장						
2008년	김수남	대구	대구청구고	서울대 법대	16	인천지검2차장
2009년 2월	최재경	경남산청	대구고	서울대 법대	17	대검수사기획관
2009년 8월	김주현	서울	서라벌고	서울대 법대	18	법무부 대변인(2009.1) -서울중앙형사1부장(2008)
2010년 8월	윤갑근	충북청원	청주고	성균관대 법대	19	수원지검 2차장(2009.8) -충주지청장(2009.1)
2011년 2월	윤갑근	충북청원	청주고	성균관대 법대	19	서울중앙지검 3차장(유임)
대검 수사기획관						
2008년	최재경	경남산청	대구고	서울대 법대	17	
2009년 2월	홍만표	강원삼척	대일고	성균관대 법대	17	법무부 대변인
2009년 8월	이창재	서울	환일고	서울대 법대	19	서울중앙형사1부장(2009.1) -검찰과장(2008)
2010년 8월	우병우	경북봉화	영주고	서울대 법대	19	대검 범죄정보기획관(2009.8) -대검 중수1과장(2009.2)
2011년 2월	우병우	경북봉화	영주고	서울대 법대	19	대검 수사기획관(유임)
대검 중앙수사1과장						
2008년	박경호	충북	서대전	연세대	19	

2009년 2월	우병우	경북 봉화	영주고	서울대 법대	19	서울중앙금융조세조사2부장
2009년 8월	노승권	대구	대구 심인고	서울대 법대	21	서울중앙첨단범죄수사2부장 (2009.1)-서울서부형사5부장
2010년 8월	노승권	대구	대구 심인고	서울대 법대	21	대검 중앙수사1과장(유임)
2011년 2월	노승권	대구	대구 심인고	서울대 법대	21	대검 중앙수사1과장(유임)
대검 중앙수사2과장						
2008년	박정식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20	
2009년 2월	이석환	광주	광주 송일고	고려대 법대	21	해남지청장
2009년 8월	이석환	광주	광주 송일고	고려대 법대	21	대검 중수2과장(2009.1) -해남지청장(2008)
2010년 8월	윤석열	서울	충암고	서울대 법대	23	대검범죄정보2담당관(2009.8) - 대구지검 특수부장(2009.1)
2011년 2월	윤석열	서울	충암고	서울대 법대	23	대검 중앙수사2과장(유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2008년	조성욱	부산	경성고	서울대 법대	17	
2009년 2월	조성욱	부산	경성고	서울대 법대	17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2009년 8월	우병우	경북 봉화	영주고	서울대 법대	19	대검 중수1과장(2009)-서울중 앙금융조세조사2부장(2008)
2010년 8월	전현준	대구	화곡고	서울대 법대	20	서울중앙 금융조세조사1부장 (2009.8) -서울중앙 형사6부장(2009.1)
2011년 2월	전현준	대구	화곡고	서울대 법대	20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유임)
대검 공안기획관						
2008년	김희관	전북 익산	전주고	서울대 법대	17	
2009년 2월	오세인	강원 양양	강릉고	서울대 법대	18	대검찰청 대변인
2009년 8월	봉 옥	서울	여의도 고	서울대	19	여주지청장(2009.1)-서울중앙 금융조세조사1부장(2008)
2010년 8월	이영만	전남 화순	검정고 시	서울대 국문학	20	수원지검 평택지청장(2009.8) -대검 감찰1과장(2009.1)
2011년 2월	이영만	전남 화순	검정고 시	서울대 국문학	20	대검 공안기획관(유임)
대검 공안1과장						
2008년	정점식	경남 고성	경상고	서울대 법대	20	
2009년 2월	이진한	경기 화성	영등포 고	고려대 법대	21	대검 공안2과장
2009년	김창희	서울	영일고	서울대	22	대검 공안2과장(2009.1)

8월				법대		-대검 피해자인권과장(2008)
2010년 8월	이정희	경북 상주	대구 계성고	서울대 법대	23	대검 공안2과장(2009.8) -대구지검 공안부장(2009.1)
2011년 2월	이정희	경북 상주	대구 계성고	서울대 법대	23	대검 공안1과장(유임)
대검 공안2과장						
2008년	이진한	경기 화성	영등포고	고려대 법대	21	
2009년 2월	김창희	서울	영일고	서울대 법대	22	대검피해자인권과장
2009년 8월	이정희	경북 상주	대구 계성고	서울대 법대	23	대구지검 공안부장(2009.1) -울산지검공안부장(2008)
2010년 8월	최성남	강원 춘천	강원사대부고	서울대 법대	24	울산지검 공안부장(2009.8) -평택지청 부장(2009.1)
2011년 2월	최성남	강원 춘천	강원사대부고	서울대 법대	24	대검 공안2과장(유임)
대검 공안3과장(2009.3.신설)						
2009년 3월	고기영	광주	광주 인성고	서울대 법대	33	전주지검 남원지청장(2008)
2010년 8월	김영규	전남 담양	광주 인성고	고려대 법대	34	광주지검 공안부장(2009.8)

이명박 정부 검찰의 인사가 편중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통령의 출신지역인 대구경북과 출신대학인 고려대 출신이 우대받는다든 것이다. 실제 그러한 경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았다.

- 20개 직책 중 대구경북 출신(출생지 및 고교 포함)이 맡은 직책을 보면,
 - △ 2008년 3월 인사발령 기준 : 법무부장관, 대검차장, 대검 중수부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수사기획관, 대검 중수2과장,
 - △ 2009년 1월 인사발령 기준 : 법무부장관, 대검 공안부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중수1과장,
 - △ 2009년 8월 인사발령 기준 :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검 중수1과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대검 공안2과장
 - △ 2010년 8월 인사발령 기준 :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검 수사기획관, 대검 중수1과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대검 공안1과장
 - △ 2011년 2월 인사발령 기준 : 대검 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검 수사기획관, 대검 중수1과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대검 공안1과장이다.

- 또 20개 직책 중 고려대 법대 출신이 맡은 직책을 보면,
 - △ 2008년 3월 인사발령 기준 : 서울중앙지검 1차장, 대검 공안2과장,
 - △ 2009년 1월 인사발령 기준 : 법무부차관,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공안부장, 대검 중수2과장, 대검 공안1과장
 - △ 2009년 8월 인사발령 기준 : 법무부장관,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중수2과장
 - △ 2010년 8월 인사발령 기준 : 법무부장관,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공안3과장
 - △ 2011년 2월 인사발령 기준 : 법무부장관,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이 두 경우를 합쳐서 살펴보면, 즉 20개 직책 중 대구경북 출신 또는 고려대 법대 출신이 맡은 직책은

- △ 2008년 3월 인사발령 기준 : 법무부장관, 대검차장, 대검 중수부장, 대검 수사기획관, 대검 중수2과장, 대검 공안2과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상 8개 직책)
- △ 2009년 1월 인사발령 기준 : 법무부장관, 법무부차관,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검 중수1과장, 대검 중수2과장, 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1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상 9개 직책)
- △ 2009년 8월 인사발령 기준 : 법무부장관,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검 중수1과장, 대검 중수2과장, 대검 공안2과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서울중앙지검장(이상 8개 직책)
- △ 2010년 8월 인사발령 기준 : 법무부장관,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검 수사기획관, 대검 중수1과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대검 공안1과장, 대검 공안3과장(이상 9개 직책)
- △ 2011년 2월 인사발령 기준 : 법무부장관,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검 수사기획관, 대검 중수1과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대검 공안1과장, 대검 공안3과장(이상 10개 직책)이다.

이명박 정부 3년 내내 검찰 법무부 주요 보직 20개 중 8~10개를 대구경북 및 고려대 출신이 차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2. 2008 ~ 2010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법무부와 검찰청에서 근무하지는 않지만 검찰권 행사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직책중의 하나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는 민정수석비서관이다. 이 자리는 검찰과 국세청, 경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곳이며, 실제 검찰의 수사방향에 대한 다양한 정보수집과 법무부장관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민정수석비서관에 2011년 2월 현재까지 3명을 임명한 바 있는데, 모두 검찰 최고위 간부 출신들이다. 이명박 정부가 검찰권을 통치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검찰고위 간부 출신의 민정수석비서관을 통해 검찰과 법무부에 대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표2]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인사시점	성명	출생지	출신고교	출신대학	연수원 기수	검찰 최종 경력
2008년 2월	이종찬	경남 고성	삼천포 제일고	고려대 법대	2	전 서울고검장 (`03.2 퇴임)
2008년 6월	정동기	서울	경동고	한양대 법대	8	전 대검차장 (`09.1 퇴임)
2009년 9월 이후 (현재)	권재진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10	전 서울고검장 (`09.7 퇴임)

이는 검찰권에 대한 통치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공연히 천명했던 노무현 정부의 민정수석비서관 내역과는 뚜렷이 구별된다. 노무현 정부의 민정수석 비서관은 모두 4명(문재인, 박정규, 전해철, 이호철)이었는데, 3명은 비검찰 출신이고, 1명(박정규)만 검찰 출신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서울동부지청 형사3부장이 최종 경력으로 고위 간부 출신은 아니었다.

* 노무현 정부의 민정수석비서관들

문재인(03.2~04.2) - 박정규(~05.1) - 문재인(~06.5) - 전해철(~07.12) - 이호철(~08.2)

검찰 최고위 간부출신을 임명했다는 점 외에도 기수서열 관계에 매우 민감한 것이 법무검찰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보다 연수원 기수가 높은 사람을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한 것도 민정수석을 통해 법무검찰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가 보이는 부분이다.

2008년부터 2009년 6월까지 검찰총장이었던 임채진 총장은 사법연수원 9기인데, 같은 시기에 법무부장관을 맡았던 이는 사법연수원 1기의 김경한 장관이었다. 이때의 민정수석비서관은 이종찬(연수원 2기)과 정동기(연수원 8기)였다.

이후 2009년 8~9월에 취임한 이귀남 법무부장관(연수원 12기)과 김준규 검찰총장(연수원 11기)와 같은 시기에 민정수석에 임명된 사람은 연수원 10기인 권재진 전 서울고검장이었다.

3. 2008 ~ 2010년 검사장급 이상 검찰(법무) 지휘부

2008~2010년 기간 동안 검사장급 이상 직책의 검찰·법무 지휘부 명단은 다음과 같다. [표 3]은 고등검사장급 이상을 [표4]는 검사장급 직책을 담았다.

[표3] 고등검사장 이상 직책

직책/ 인사시점	성명	출신 지역	출신 고교	출신대학	사시 회수	이전 직책
법무부장관						
2008년	김경한	경북 안동	경북고	서울대 법대	11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2009년 1월	김경한	경북 안동	경북고	서울대 법대	11	
2009년 9월	이귀남	전남 장흥	인창고	고려대 법대	22	법무부차관(2009년) -대구고검장
2010년 7월	이귀남	전남 장흥	인창고	고려대 법대	22	법무부장관(유임)
2011년 2월	이귀남	전남 장흥	인창고	고려대 법대	22	법무부장관(유임)
검찰총장						
2008년	임채진	경남 남해	부산고	서울대 법대	19	법무연수원장
2009년 1월	임채진	경남 남해	부산고	서울대 법대	19	
2009년 8월	김준규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21	전 대전고검장
2010년 7월	김준규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21	검찰총장(유임)
2011년 2월	김준규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21	검찰총장(유임)
대검 차장						
2008년	권재진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20	대검 차장(2007)
2009년 1월	문성우	광주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21	법무부차관(2008)
2009년 8월	차동민	경기 평택	제물포 고	서울대 법대	22	수원지검장(2009.1) -검찰국장(2008)
2010년 7월	차동민	경기 평택	제물포 고	서울대 법대	22	대검 차장(유임)
2011년 2월	박용석	경북 군위	경북고	서울대 법대	23	법무연수원장(2009.8) - 부산지검장(2009.1)
법무연수원장						

2008년	김태현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20	부산지검장(2007)
2009년 1월	명동성	전남 강진	광주고	서울대 법대	20	서울중앙지검장(2008)
2009년 8월	박용석	경북 군위	경북고	서울대 법대	23	부산지검장(2009.1) - 대검 중수부장(2008)
2010년 7월	박용석	경북 군위	경북고	서울대 법대	23	법무연수원장(유임)
2011년 2월	조근호	부산	대일고	서울대 법대	23	부산고검장(2009.8) - 서울북부지검장(2009.1)
법무부차관						
2008년	문성우	광주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21	법무부 검찰국장(2006)
2009년 1월	이귀남	전남 장흥	인창고	고려대 법대	22	대구고검장(2008)
2009년 8월	황희철	광주	경동고	서울대 법대	23	서울남부지검장(2009.1) - 광주지검장(2008)
2010년 7월	황희철	광주	경동고	서울대 법대	23	법무부차관(유임)
2011년 2월	황희철	광주	경동고	서울대 법대	23	법무부차관(유임)
서울고검장						
2008년	박영수	제주	동성고	서울대 법대	20	대전고검장(2007.3)
2009년 1월	권재진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20	대검 차장(2008)
2009년 8월	한상대	서울	보성고	고려대 법대	23	법무부 검찰국장(2009.1) - 법무부 법무실장(2008)
2010년 7월	한상대	서울	보성고	고려대 법대	23	서울고검장(유임)
2011년 2월	차동민	경기 평택	제물포 고	서울대 법대	22	대검 차장(2009.8) - 법무부 검찰국장(2008)
대전고검장						
2008년	문효남	부산	부산고	서울대 법대	21	대구지검장(2007)
2009년 1월	김준규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21	부산고검장(2008)
2009년 8월	채동욱	서울	세종고	서울대 법대	24	법무부 법무실장(2009.1) - 전주지검장(2008)
2010년 7월	채동욱	서울	세종고	서울대 법대	24	대전고검장(유임)
2011년 2월	채동욱	서울	세종고	서울대 법대	24	대전고검장(유임)
부산고검장						
2008년	김준규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21	대전지검장(2007)

2009년 1월	문호남	부산	부산고	서울대 법대	21	대전고검장(2008)
2009년 8월	조근호	부산	대일고	서울대 법대	23	서울북부지검장(2009.1) -대전지검장(2008)
2010년 7월	조근호	부산	대일고	서울대 법대	23	부산고검장(유임)
2011년 2월	황교안	서울	경기고	성균관대 법대	23	대구고검장(2009.8) -창원지검장(2009.1)
대구고검장						
2008년	이귀남	전남 장흥	인창고	고려대 법대	22	대검 중수부장(2007)
2009년 1월	이준보	전남 강진	경기고	서울대 법대	21	광주고검장(2008)
2009년 8월	황교안	서울	경기고	성균관대 법대	23	창원지검장(2009.1) -법무연수원기획부장(2008)
2010년 7월	황교안	서울	경기고	성균관대 법대	23	대구고검장(유임)
2011년 2월	노환균	경북 상주	대건고	고려대 법대	24	서울중앙지검장(2009.8) -대검 공안부장(2009.1)
광주고검장						
2008년	이준보	전남 강진	경기고	서울대 법대	21	대검 공안부장(2007)
2009년 1월	신상규	강원 철원	경북고	서울대 법대	21	인천지검장(2008)
2009년 8월	신상규	강원 철원	경북고	서울대 법대	21	인천지검장(유임)
2010년 7월	신상규	강원 철원	경북고	서울대 법대	21	인천지검장(유임)
2011년 2월	신상규	강원 철원	경북고	서울대 법대	21	인천지검장(유임)
서울중앙지검장						
2008년	명동성	전남 강진	광주고	서울대 법대	20	서울중앙지검장(2007.11)
2009년 1월	천성관	충남 논산	경기고	서울대 법대	22	수원지검장(2008)
2009년 8월	노환균	경북 상주	대건고	고려대 법대	24	대검 공안부장(2009.1) -울산지검장(2008)
2010년 7월	노환균	경북 상주	대건고	고려대 법대	24	서울중앙지검장(유임)
2011년 2월	한상대	서울	보성고	고려대 법대	23	서울고검장(2009.8) - 법무부 검찰국장(2009.1)

[표4] 검사장 직책별 인사

직책/ 인사시점	성명	출신 지역	출신 고교	출신 대학	사시 회수	이전 직책
법무부 검찰국장						
2008년	차동민	경기 평택	제물포 고	서울대 법대	22	대검 기획조정부장(2006)
2009년 1월	한상대	서울	보성고	고려대 법대	23	법무부 법무실장(2007)
2009년 8월	최교일	경북 영주	경북고	고려대 법대	25	서울고검 차장(2009.1) -서울중앙지검 1차장(2008)
2010년 7월	최교일	경북 영주	경북고	고려대 법대	25	법무부 검찰국장(유임)
2011년 2월	최교일	경북 영주	경북고	고려대 법대	25	법무부 검찰국장(유임)
법무부 법무실장						
2008년	한상대	서울	보성고	고려대 법대	23	법무부 법무실장(2007)
2009년 1월	채동욱	서울	세종고	서울대 법대	24	전주지검장(2008)
2009년 8월	성영훈	서울	명지고	연세대 법대	25	대구지검 1차장(2009.1) -고양지청장(2008)
2010년 7월	한명관	서울	성동고	서울대 법대	25	대전지검장(2009.8) -대검 기획조정부장(2009.1)
2011년 2월	한명관	서울	성동고	서울대 법대	25	대전지검장(2009.8) -대검 기획조정부장(2009.1)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2008년	박기준	부산	경북고	성균관대 법대	24	서울고검 송무부장(2007)
2009년 1월	소병철	전남 순천	광주 제 일고	서울대 법대	25	법무부 기획조정실장(2008)
2009년 8월	주철현	전남 여수	여수고	성균관대 법대	25	부산고검 차장(2009.1) -대전지검차장(2008)
2010년 7월	김수남	대구	청구고	서울대 법대	26	청주지검장(2009.8) -법무부 기획조정실장(2009.1)
2011년 2월	김수남	대구	청구고	서울대 법대	26	청주지검장(2009.8) -법무부 기획조정실장(2009.1)
법무부 감찰관						
2008년	곽상욱	서울	환일고	서울대 법대	24	고양지청장(2007.3)
2009년 1월	곽상욱	서울	환일고	고려대 법대	24	법무부 감찰관(2008초)
2009년 10월	이경재	대전	대전고	고려대 법대	26	서울고검 검사(2009.8) -인천지검 부천지청장(2009.1)
2010년 9월	안장근	전북 김제	익산 남성고	성균관대 법대	25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장
2011년	안장근	전북	익산	성균관대	25	법무부 감찰관(유임)

2월		김제	남성고	법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2008년	소병철	전남 순천	광주 제 일고	서울대 법대	25	대전지검 차장(2007)
2009년 1월	김수남	대구	청구고	서울대 법대	26	서울중앙지검 3차장(2008)
2009년 8월	최재경	경남 산청	대구고	서울대 법대	27	서울중앙지검 3차장(2009.1) -대검수사기획관(2008)
2010년 7월	김희관	전북 익산	전주고	서울대 법대	27	대전지검 차장(2009.8) -서울중앙지검 2차장(2009.1)
2011년 2월	김희관	전북 익산	전주고	서울대 법대	27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유임)
대검 중앙수사부장						
2008년	박용석	경북 군위	경북고	서울대 법대	23	청주지검장(2007)
2009년 1월	이인규	경기 용인	경동고	서울대 법대	24	대검 기획조정부장(2008)
2009년 8월	김홍일	충남 예산	예산고	충남대 법대	24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2009.1)- 사법연수원부원장(2008)
2010년 7월	김홍일	충남 예산	예산고	충남대 법대	24	대검 중앙수사부장(유임)
2011년 2월	김홍일	충남 예산	예산고	충남대 법대	24	대검 중앙수사부장(유임)
대검公安부장						
2008년	박한철	부산	제물포 고	서울대 법대	23	삼성비자금 특별수사본부장(2007)
2009년 1월	노환균	경북 상주	대건고	고려대 법대	24	울산지검장(2008)
2009년 8월	신종대	서울	대일고	서울대 법대	23	춘천지검장(2009.1) -부산지검1차장(2008)
2010년 7월	신종대	서울	대일고	서울대 법대	23	대검公安부장(유임)
2011년 2월	신종대	서울	대일고	서울대 법대	23	대검公安부장(유임)
대검 형사부장						
2008년	안창호	대전	대전고	서울대 사회학	23	대검 형사부장(2008)
2009년 1월	김진태	경남 사천	검정고 시	서울대 법대	24	청주지검장(2008)
2009년 8월	소병철	전남 순천	광주 제 일고	서울대 법대	25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2009.1)-기획조정실장(2008)
2010년 7월	송해은	충북 청주	청주고	한양대 법대	25	전주지검장(2009.8) -부산지검 1차장(2009.1)
2011년 2월	조영곤	경북 영천	경북고	서울대 법대	25	대검 강력부장과 겸직
대검 강력부장						

2008년	민유태	경기 김포	중경고	연세대 행정학	24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2008)
2009년 1월	김홍일	충남 예산	예산고	충남대 법대	24	사법연수원 부원장(2008)
2009년 8월	조영근	경북 영천	경북고	서울대 법대	25	대전고검 차장
2010년 7월	조영근	경북 영천	경북고	서울대 법대	25	대검 형사부장(유임)
2011년 2월	조영근	경북 영천	경북고	서울대 법대	25	대검 형사부장과 겸직
대검 기획조정부장						
2008년	이인규	경기 용인	경동고	서울대 법대	24	대전고검 차장(2007)
2009년 1월	한명관	서울	성동고	서울대 법대	25	광주지검 차장(2008)
2009년 8월	국민수	대전	대신고	서울대 법대	26	서울고검 공판부장(2009.1) -서울중앙2차장(2008)
2010년 7월	홍만표	강원 삼척	대일고	성균관대 법대	27	서울고검 송무부장(2009.8) -대검 수사기획관(2009.1)
2011년 2월	홍만표	강원 삼척	대일고	성균관대 법대	27	대검 기획조정부장(유임)
대검 공판송무부장						
2008년	길태기	서울	동북고	고려대 법대	25	광주지검 차장(2007)
2009년 1월	남기춘	서울	홍대부 고	서울대 법대	25	대구지검 1차장(2008)
2009년 8월	정동민	경남 양산	금성고	고려대 법대	26	광주지검 차장(2009.1) -서울동부지검차장(2008)
2010년 7월	정병두	경남 하동	부산동 고	서울대 법대	26	춘천지검장(2009.8) -서울중앙지검 1차장(2009.1)
2011년 2월	정병두	경남 하동	부산동 고	서울대 법대	26	대검 공판송무부장(유임)
대검 감찰부장						
2008년	이창세	경북 칠곡	대구 오성고	서울대 법대	25	청주지검 차장(2007.3)
2009년 1월	이창세	경북 칠곡	대구 오성고	서울대 법대	25	대검 감찰부장(2008초)
2009년 8월	한승철	광주	광주고	서울대 법대	27	창원지검 차장(2009.1) -부천지청차장(2008)
2010년 9월	홍지욱	충남 당진	서울 양정고	서울대 법대	25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이화여대 겸임교수
2011년 2월	홍지욱	충남 당진	서울 양정고	서울대 법대	25	대검 감찰부장(유임)
서울중앙지검 1차장						
2008년	최교일	경북 영주	경북고	고려대 법대	25	수원지검 1차장(2007)
2009년	정병두	경남	부산동	서울대	26	수원지검 1차장(2008)

1월		하동	고	법대		
2009년 8월	신경식	서울	고려고	서울대 법대	26	수원지검 1차장(2009.1) -대검미래기획단장(2007)
2010년 7월	신경식	서울	고려고	서울대 법대	26	서울중앙지검 1차장(유임)
2011년 2월	신경식	서울	고려고	서울대 법대	26	서울중앙지검 1차장(유임)
서울동부지검장						
2008년	이복태	경남 밀양	경성고	성균관대 법대	21	법무부 감찰관(2007)
2009년 1월	김종인	충남 천안	경북고	서울대 법대	22	대구지검장(2008)
2009년 8월	박한철	부산	제물포 고	서울대 법대	23	대구지검장(2009.1) -대검公安부장(2008)
2010년 7월	이재원	광주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24	의정부지검장(2009.8) -전주지검장(2009.5) -광주고검 차장(2009.1)
2011년 2월	이재원	광주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24	서울동부지검장(유임)
서울남부지검장						
2008년	박영렬	경기 하남	경기고	서울대 법대	23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2007)
2009년 1월	황희철	광주	경동고	서울대 법대	23	광주지검장(2008)
2009년 8월	김학익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24	울산지검장(2009.1) -춘천지검장(2008)
2010년 7월	길태기	서울	동북고	고려대 법대	25	광주지검장(2009.8) -사법연수원 부원장(2009.1)
2011년 2월	길태기	서울	동북고	고려대 법대	25	서울남부지검장(유임)
서울북부지검장						
2008년	박상옥	경기 시흥	경기고	서울대 법대	20	의정부지검장(2007.3)
2009년 1월	조근호	부산	대일고	서울대 법대	23	대전지검장(2008)
2009년 8월	김진태	경남 사천	검정 고시	서울대 법대	24	대검 형사부장(2009.1) -청주지검장(2008)
2010년 7월	이창세	경북 칠곡	대구 오성고	서울대 법대	25	창원지검장(2009.8) -대검 감찰부장(2008초)
2011년 2월	이창세	경북 칠곡	대구 오성고	서울대 법대	25	서울북부지검장(유임)
서울서부지검장						
2008년	안창호 (직대)	대전	대전고	서울대 사회학	23	대검 형사부장(2008)
2009년 1월	정진영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23	창원지검장(2008)

2009년 8월	곽상욱	서울	한일고	고려대 법대	24	법무부 검찰관(2008초) -서울고검검사(2008)
2010년 7월	남기춘	서울	홍대 부고	서울대 법대	25	울산지검장(2009.8) -대검 공판송무부장(2009.1)
2011년 2월	송해은	충북 청주	청주고	한양대 법대	25	대검 형사부장(2010.7) -전주지검장(2009.8)
의정부지검장						
2008년	박태규	경남 남해	남해중 고	동아대 법대	23	춘천지검장
2009년 1월	박기준	부산	경북고	성균관대 법대	24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2008)
2009년 8월	이재원	광주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24	전주지검장(2009.05) -광주고검 차장(2009.1)
2010년 7월	김병화	경북 군위	경북고	서울대 법대	25	서울고검 차장(2009.8) -대구고검 차장(2009.1)
2011년 2월	김병화	경북 군위	경북고	서울대 법대	25	의정부지검장(유임)
인천지검장						
2008년	신상규	강원 철원	경북고	서울대 법대	21	광주지검장(2007)
2009년 1월	김수민	부산	경기고	성균관대 법대	22	부산지검장(2008)
2009년 8월	정진영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23	서울서부지검장(2009.1) -창원지검장(2008)
2010년 7월	김학익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24	서울남부지검장(2009.8) -울산지검장(2009.1)
2011년 2월	김학익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24	인천지검장(유임)
수원지검장						
2008년	천성관	충남 논산	경기고	서울대 법대	22	서울남부지검장(2007)
2009년 1월	차동민	경기 평택	제물포 고	서울대 법대	22	법무부 검찰국장(2008)
2009년 8월	박영렬	경기 하남	경기고	서울대 법대	23	광주지검장(2009.1) -서울남부지검장(2008)
2010년 7월	김영한	경북 의성	경북고	연세대 경제학	24	대구지검장(2009.8) -청주지검장(2009.1)
2011년 2월	김영한	경북 의성	경북고	연세대 경제학	24	수원지검장(유임)
춘천지검장						
2008년	김학익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24	법무연수원 기획부장(2007)
2009년 1월	신종대	서울	대일고	서울대 법대	23	부산지검 1차장(2008)
2009년 8월	정병두	경남 하동	부산동 고	서울대 법대	26	서울중앙지검 1차장(2009.1) -수원지검1차장(2008)
2010년	김현웅	전남	광주	서울대	26	부산고검 차장(2009.8)

7월		고흥	제일고	법대		-서울고검 형사부장(2009.1)
2011년 2월	김현웅	전남 고흥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26	춘천지검장(유임)
대전지검장						
2008년	조근호	부산	대일고	서울대 법대	23	사법연수원 부원장(2007)
2009년 1월	안창호	대전	대전고	서울대 사회학	23	서울서부지검장 직무대리(2008)
2009년 8월	한명관	서울	성동고	서울대 법대	25	대검 기획조정부장(2009.1) -광주지검차장(2008)
2010년 7월	소병철	전남 순천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25	대검 형사부장(2009.8)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2009.1)
2011년 2월	소병철	전남 순천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25	대전지검장(유임)
청주지검장						
2008년	김진태	경남 사천	검정고 시	서울대 법대	24	대구고검 차장(2007)
2009년 1월	김영한	경북 의성	경북고	연세대 경제학	24	대구고검 차장(2008)
2009년 8월	김수남	대구	청구고	서울대 법대	26	법무부 기초실장(2009.1) -서울중앙지검3차장(2008)
2010년 7월	국민수	대전	대신고	서울대 법대	26	대검 기획조정부장(2009.8) -서울고검 공판부장(2009.1)
2011년 2월	국민수	대전	대신고	서울대 법대	26	청주지검장(유임)
대구지검장						
2008년	김종인	충남 천안	경북고	서울대 법대	22	대검 감찰부장(2007)
2009년 1월	박한철	부산	제물포 고	서울대 법대	23	대검公安부장(2008)
2009년 8월	김영한	경북 의성	경북고	연세대 경제학	24	청주지검장(2009.1) -대구고검차장(2008)
2010년 7월	김진태	경남 사천	검정 고시	서울대 법대	24	서울북부지검장(2009.8) -대검 형사부장(2009.1)
2011년 2월	김진태	경남 사천	검정 고시	서울대 법대	24	대구지검장(유임)
부산지검장						
2008년	김수민	부산	경기고	성균관대 법대	22	서울서부지검장(2007)
2009년 1월	박용석	경북 군위	경북고	서울대 법대	23	대검 중수부장(2008)
2009년 8월	박기준	부산	경북고	성균관대 법대	24	의정부지검장(2009.1) -범죄예방정책국장(2008)
2010년 7월	곽상욱	서울	환일고	고려대 법대	24	서울서부지검장(2009.8) -법무부 감찰관(2008초)
2011년 2월	곽상욱	서울	환일고	고려대 법대	24	부산지검장(유임)

울산지검장						
2008년	노환균	경북상주	대건고	고려대법대	24	부산지검 1차장(2007)
2009년 1월	김학익	서울	경기고	서울대법대	24	춘천지검장(2008)
2009년 8월	남기춘	서울	홍대부고	서울대법대	25	대검 공판송무부장(2009.1) -대구지검 1차장(2008)
2010년 7월	박청수	경북경산	경북고	한양대법대	26	사법연수원 부원장(2009.8) -대전지검 차장(2009.1)
2011년 2월	박청수	경북경산	경북고	한양대법대	26	울산지검장(유임)
창원지검장						
2008년	정진영	대구	경북고	서울대법대	23	제주지검장(2007)
2009 1월	황교안	서울	경기고	성균관대법대	23	법무연수원 기획부장(2008)
2009년 8월	이창세	경북칠곡	대구오성고	서울대법대	25	대검 검찰부장(2008초) -서울고검 검사(2008)
2010년 7월	주철현	전남여수	여수고	성균관대법대	25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2009.8) -부산고검 차장(2009.1)
2011년 2월	주철현	전남여수	여수고	성균관대법대	25	창원지검장(유임)
광주지검장						
2008년	황희철	광주	경동고	서울대법대	23	대검 공판송무부장(2007)
2009년 1월	박영렬	경기하남	경기고	서울대법대	23	서울남부지검장(2008)
2009년 8월	길태기	서울	동북고	고려대법대	25	사법연수원 부원장(2009.1) -대검공판송무부장(2008)
2010년 7월	성영훈	서울	명지고	연세대법대	25	법무부 법무실장(2009.8) -대구지검 1차장(2009.1)
2011년 2월	성영훈	서울	명지고	연세대법대	25	광주지검장(유임)
전주지검장						
2008년	채동욱	서울	세종고	서울대법대	24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2006)
2009년 1월	민유태	경기김포	중경고	연세대행정학	24	대검 형사부장 직무대리(2008)
2009년 5월	이재원	광주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24	광주고검 차장(2009.1) -서울고검 형사부장(2008)
2009년 8월	송해은	충북청주	청주고	한양대법대	25	부산지검 1차장(2009.1) -성남지청장(2008)
2010년 7월	정동민	경남양산	금성고	고려대법대	26	대검 공판송무부장(2009.8) -광주지검 차장(2009.1)
2011년 2월	정동민	경남양산	금성고	고려대법대	26	전주지검장(유임)
제주지검장						

2008년	박영관	전남 신안	목포고	성균관대 법대	23	
2009년 1월	김정기	전북 정읍	전주고	서울대 법대	24	서울고검 차장(2008)
2009년 8월	이득홍	대구	관악고	고려대 법대	26	법무연수원 기획부장(2009.1) -서울북부지검차장(2008)
2010년 7월	이건리	전남 함평	전주고	서울대 법대	26	광주고검 차장(2009.8) -서울고검 송무부장(2009.1)
2011년 2월	이건리	전남 함평	전주고	서울대 법대	26	제주지검장(유임)
서울고검 차장						
2008년	김정기	전북 정읍	전주고	서울대 법대	24	서울고검 공판부장(2007)
2009년 1월	최교일	경북 영주	경북고	고려대 법대	25	서울중앙지검 1차장(2008)
2009년 8월	김병화	경북 군위	경북고	서울대 법대	25	대구고검 차장(2009.1) -서울고검 공판부장(2008)
2010년 7월	이득홍	대구	관악고	고려대 법대	26	제주지검장(2009.8) -법무연수원 기획부장(2009.1)
2011년 2월	이득홍	대구	관악고	고려대 법대	26	서울고검 차장(유임)
대전고검 차장						
2008년	-					
2009년 1월	석동현	경북 성주	부산동 고	서울대 법대	25	서울고검 송무부장(2008)
2009년 8월	조영곤	경북 영천	경북고	서울대 법대	25	법무부 인권국장(2009.1) -의정부지검 차장(2008)
2010년 7월	황윤성	전북 전주	전주고	서울대 법대	26	대구고검 차장(2009.8) -대구지검 서부지청장(2009.1)
2011년 2월	황윤성	전북 전주	전주고	서울대 법대	26	대전고검 차장(유임)
대구고검 차장						
2008년	김영한	경북 의성	경북고	연세대 경제학	24	수원지검 성남지청장(2007)
2009년 1월	김병화	경북 군위	경북고	서울대 법대	25	서울고검 공판부장(2008)
2009년 8월	황윤성	전북 전주	전주고	서울대 법대	26	대구지검 서부지청장(2009.1) -서울서부지검차장(2008)
2010년 7월	임정혁	서울	중앙고	서울대 법대	26	서울고검 형사부장(2009.8) -수원지검 성남지청장(2009.1)
2011년 2월	임정혁	서울	중앙고	서울대 법대	26	대구고검 차장(유임)
부산고검 차장						
2008년	김상봉	서울	동성고	성균관대 법대	22	서울고검 차장(2007)
2009년 1월	주철현	전남 여수	여수고	성균관대 법대	25	대전지검 차장(2008)

2009년 8월	김현웅	전남 고흥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26	서울고검 형사부장(2009.1) -인천지검1차장(2008)
2010년 7월	이경재	대전	대전고	고려대 법대	26	법무부 검찰관(2009.10) -서울고검 검사(2009.8)
2011년 2월	이경재	대전	대전고	고려대 법대	26	부산고검 차장(유임)
광주고검 차장						
2008년	조한욱	부산	경남고	부산대 법대	23	서울고검 형사부장(2007)
2009년 1월	이재원	광주	광주 제 일고	서울대 법대	24	서울고검 형사부장(2008)
2009년 8월	이건리	전남 함평	전주고	서울대 법대	26	서울고검 송무부장(2009.1) -전주지검차장(2008)
2010년 7월	임권수	전남 화순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26	서울고검 공판부장(2009.8) -부산지검 동부지청장(2009.1)
2011년 2월	임권수	전남 화순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26	광주고검 차장(유임)
서울고검 형사부장						
2008년	이재원	광주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24	수원지검 안산지청장(2007)
2009년 1월	김현웅	전남 고흥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26	인천지검 1차장(2008)
2009년 8월	임정혁	서울	중앙고	서울대 법대	26	성남지청장(2009.1) -울산지검차장(2008)
2010년 7월	김경수	경남 진주	진주고	연세대 법대	27	부산지검 1차장(2009.8) -인천지검 1차장(2009.1)
2011년 2월	김경수	경남 진주	진주고	연세대 법대	27	서울고검 형사부장(유임)
서울고검 공판부장						
2008년	김병화	경북 군위	경북고	서울대 법대	25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007)
2009년 1월	국민수	대전	대신고	서울대 법대	26	서울중앙지검 2차장(2008)
2009년 8월	임권수	전남 화순	광주 제 일고	서울대 법대	26	부산지검 동부지청장(2009.1) -서울고검 검사(2008)
2010년 7월	박성재	경북 청도	대구고	고려대 법대	27	대구지검 1차장(2009.8) -서울동부지검 차장(2009.1)
2011년 2월	박성재	경북 청도	대구고	고려대 법대	27	서울고검 공판부장(유임)
서울고검 송무부장						
2008년	석동현	경북 성주	부산동 고	서울대 법대	25	대전지검 천안지청장(2006)
2009년 1월	이건리	전남 함평	전주고	서울대 법대	26	전주지검 차장(2008)
2009년 8월	홍만표	강원 삼척	대일고	성균관대 법대	27	대검 수사기획관(2009.1) -법무부 대변인(2008)
2010년	강경필	제주	제일고	서울대	27	광주지검 차장(2009.8)

7월		서귀포	(제주)	법대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2007)
2011년 2월	강경필	제주 서귀포	제일고 (제주)	서울대 법대	27	서울고검 송무부장(유임)
대전지검 차장						
2008년	주철현	전남 여수	여수고	성균관대 법대	25	인천지검 1차장(2007)
2009년 1월	박청수	경북 경산	경북고	한양대 법대	26	서울남부지검 차장(2008)
2009년 8월	김희관	전북 익산	전주고	서울대 법대	27	서울중앙지검 2차장(2009.1) -대검 공안기획관(2008)
2010년 7월	한무근	경북 경산	경북고	서울대 법대	27	수원지검 성남지청장(2009.8) -서울남부지검 차장(2009.1)
2011년 2월	한무근	경북 경산	경북고	서울대 법대	27	대전지검 차장(유임)
대구지검 1차장						
2008년	남기춘	서울	홍대부 고	서울대 법대	25	서울북부지검 차장(2007)
2009년 1월	성영훈	서울	명지고	연세대 법대	25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2008)
2009년 8월	박성재	경북 청도	대구고	고려대 법대	27	서울동부지검 차장(2009.1) -법무부 검찰담당관
2010년 7월	백종수	경기 양주	부평고	고려대 법대	27	인천지검 부천지청장(2009.8) -서울고검 검사(2009.1)
2011년 2월	백종수	경기 양주	부평고	고려대 법대	27	대구지검 1차장(유임)
부산지검 1차장						
2008년	신종대	서울	대일고	서울대 법대	23	서울중앙지검 2차장(2007)
2009년 1월	송해은	충북 청주	청주고	한양대 법대	25	수원지검 성남지청장(2008)
2009년 8월	김경수	경남 진주	진주고	연세대 법대	27	인천지검 1차장(2009.1) -수원지검 2차장
2010년 7월	송찬엽	전북 부안	전주고	서울대 사회교육	27	법무부 인권국장(2009.8) -서울서부지검 차장(2009.1)
2011년 2월	송찬엽	전북 부안	전주고	서울대 사회교육	27	부산지검 1차장(유임)
광주지검 차장						
2008년	한명관	서울	성동고	서울대 법대	25	서울동부지검 차장(2007)
2009년 1월	정동민	경남 양산	금성고	고려대 법대	26	서울동부지검 차장(2008)
2009년 8월	강경필	제주 서귀포	제일고 (제주)	서울대 법대	27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2007)
2010년 7월	이건주	부산	인천고	서울대 법대	27	수원지검 안산지청장(2009.8) -의정부지검 차장(2009.1)

2011년 2월	이건주	부산	인천고	서울대 법대	27	광주지검 1차장(유임)
사법연수원 부원장						
2008년	김홍일	충남 예산	예산고	충남대 법대	24	서울중앙지검 3차장(2007)
2009년 1월	길태기	서울	동북고	고려대 법대	25	대검 공판송무부장(2008)
2009년 8월	박청수	경북 경산	경북고	한양대 법대	26	대전지검 차장(2009.1) -서울남부지검차장(2008)
2010년 7월	최재경	경남 산청	대구고	서울대 법대	27	법무부 기획조정실장(2009.8) -서울중앙지검 3차장(2009.1)
2011년 2월	최재경	경남 산청	대구고	서울대 법대	27	사법연수원 부원장(유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2008년	황교안	서울	경기고	성균관대 법대	23	법무부 정책기획단장(2007)
2009년 1월	이득홍	대구	관악고	고려대 법대	26	서울북부지검 차장(2008)
2009년 8월	조성욱	부산	경성고	서울대 법대	27	청와대 민정2비서관(08.8) -대검 범죄정보기획관(2008)
2010년 7월	조성욱	부산	경성고	서울대 법대	27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유임)
2011년 2월	조성욱	부산	경성고	서울대 법대	27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유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						
2009년 8월	석동현	경북 성주	부산동 고	서울대 법대	25	대전고검 차장(2009.1) -서울고검 송무부장(2008)
2010년 7월	석동현	경북 성주	부산동 고	서울대 법대	25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유임)
2011년 2월	석동현	경북 성주	부산동 고	서울대 법대	25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유임)
법무부 인권국장						
2009년 1월	조영곤	경북 영천	경북고	서울대 법대	25	의정부지검 차장
2009년 8월	송찬엽	전북 부안	전주고	서울대	27	서울서부지검 차장
2010년 7월	박민표	인천	인창고	서울대 법대	28	울산지검 차장(2009.8) -제주지검 차장(2009.1)
2011년 2월	박민표	인천	인창고	서울대 법대	28	법무부 인권국장(유임)

4. 2008 ~ 2010년 검찰 중간 간부

아래 [표5]는 일부 소규모 지청의 부장과 각 고등검찰청 검사 등 일부를 제외한 중간간부급의 인사내역이다.

[표5] 중간 간부급 (고검 검사급 중 일부 제외)

소속직책	인사시점	이름	출신지역	출신고교	출신대학	사시
법무부						
대변인	2008년	홍만표	강원 삼척	대일고	성균관대 법대	27
	2009년 1월	김주현	서울	서라벌고	서울대 법대	28
	2009년 8월	김강욱	경북 안동	경북고	서울대 법대	29
	2010년 8월	김영진	경북 안동	서울 경희고	고려대 법대	31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2008년	-	-	-	-	-
	2009년 1월	김용남	경기 수원	수원고	서울대 법대	34
	2010년 2월	김석재	전남 나주	광주 인성고	서울대 법대	34
감찰담당관	2008년	박성재	경북 청도	대구고	고려대 법대	27
	2009년 1월	이명재	충남 논산	경신고	고려대 법대	28
	2009년 8월	정의식	경기 여주	수원고	서울대 법대	29
	2010년 8월	오정돈	서울	성동고	서울대 법대	30
법질서담당 관(법질서· 규제개혁 담당관)	2008년	백방준	인천	부평고	고려대 법대	31
	2009년 1월	박 철	서울	성남고	서울대 법대	32
	2009년 8월	박 철	서울	성남고	서울대 법대	32
	2010년 8월	이두식	충남 당진	천안고	단국대 법대	31
법무심의관	2008년	이건태	전남 영암	광주 제일고	고려대 법대	29
	2009년 1월	오정돈	서울	성동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8월	백방준	인천	부평고	고려대 법대	31
	2010년 8월	김우현	전남 여천	광주 제일고	고려대 법대	32
법무과장	2008년	오정돈	서울	성동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1월	백방준	인천	부평고	고려대 법대	31
	2009년 8월	안병익	강원 횡성	원주고	서울대 법대	32
	2010년 8월	박근범	서울	성보고	고려대 법대	33
국제법무 과장	2008년	백기봉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1월	백기봉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8월	이상용	광주	광주 진흥고	서울대 법대	32
	2010년 8월	김기준	경남 김해	동아고	서울대 법대	33
국가송무 과장	2008년	최창호	서울	오산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1월	김희준	전남 함평	광주 석산고	전남대 법대	32
	2009년 8월	김희준	전남 함평	광주 석산고	전남대 법대	32
	2010년 8월	이상철	경북 김천	능인고	고려대 법대	33
통일법무 과장	2008년	전현준	대구	화곡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1월	이천세	충남 논산	배문고	서울대 경제학	32
	2009년 8월	이천세	충남 논산	배문고	서울대 경제학	32
	2010년 8월	이형택	전북 고창	전주 영생고	고려대 법대	34

법조인력 (정책)과장	2008년	한찬식	서울	성남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1월	최세훈	부산	부산남고	서울대 법대	32
	2009년 8월	최세훈	부산	부산남고	서울대 법대	32
	2010년 8월	박순철	강원 인제	남강고	서울대 법대	34
상사법무 과장	2008년	이두식	충남 당진	천안고	단국대 법대	31
	2009년 1월	김우현	전남 여천	광주 제일고	고려대 법대	32
	2009년 8월	김우현	전남 여천	광주 제일고	고려대 법대	32
	2010년 8월	김운상	서울	대원외고	서울대 법대	34
검찰과장	2008년	이창재	서울	환일고	서울대 법대	29
	2009년 1월	신유철	경기 김포	장훈고	서울대 법대	28
	2009년 8월	신유철	경기 김포	장훈고	서울대 법대	28
	2010년 8월	권익환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법대	32
형사기획 과장	2008년	신유철	경기 김포	장훈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1월	진경준	전남 목포	환일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8월	권익환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법대	32
	2010년 8월	조상철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법대	33
공공형사과 장(공안기획 과장)	2008년	이금로	충북 괴산	청주 신흥고	고려대 법대	30
	2009년 1월	이상호	충남 논산	충남고	고려대 법대	32
	2009년 8월	이상호	충남 논산	충남고	고려대 법대	32
	2010년 8월	오인서	서울	동성고	고려대 법대	33
국제형사 과장	2008년	진경준	전남 목포	환일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1월	유호근	경북 안동	경기고	서울대 법대	32
	2009년 8월	이흥락	경북 경주	부산동고	서울대 법대	33
	2010년 8월	권정훈	대구	경원고	서울대 법대	34
형사법제 과장	2008년	권익환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법대	32
	2009년 1월	전강진	대구	경북사대고	고려대 법대	33
	2009년 8월	전강진	대구	경북사대고	고려대 법대	33
	2010년 8월	김석재	전남 나주	광주 인성고	서울대 법대	34
범죄예방 기획과장	2008년	허상구	부산	부산동고	부산대 법대	31
	2009년 1월	허상구	부산	부산동고	부산대 법대	31
	2009년 8월	송진섭	경남 합천	대구심인고	고려대 법대	32
	2010년 8월	김현채	서울	대원고	연세대 법대	33
사회보호 정책과장/ 보호법제 과장	2008년	김석우	전북 임실	완산고	전북대 법대	32
	2009년 1월	이상용	광주	광주 진흥고	서울대 법대	32
	2009년 8월	김현채	서울	대원고	연세대 법대	33
	2010년 8월	김영문	울산	경남고	서울대 법대	34
인권정책 과장	2008년	김호철	부산	영동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1월	김종민	부산	부산동고	고려대 법대	31
	2009년 8월	김종민	부산	부산동고	고려대 법대	31
	2010년 8월	이승한	서울	여의도고	고려대 법대	33
인권지원 과장/ 인권구조 과장	2008년	김학석	경북 경주	경주고	고려대 법대	31
	2009년 1월	백종우	서울	신일고	연세대 법대	32
	2009년 8월	김현철	경남 진주	진주동명고	서울대 법대	33
	2010년 8월	조남관	전북 전주	전주고	서울대 법대	34
인권옹호 과장/ 인권조사 과장	2008년	이주일	서울	중앙고	고려대 법대	32
	2009년 1월	김현철	경남 진주	진주동명고	서울대 법대	33
	2009년 8월	조남관	전북 전주	전주고	서울대 법대	34
	2010년 8월	김병구	전남 해남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35
여성아동 과장	2008년	최정숙	경남 진주	진주여고	이화여대 법대	33
	2009년 1월	노정연	서울	중앙여고	이화여대 법대	35
	2009년 8월	노정연	서울	중앙여고	이화여대 법대	35
	2010년 8월	-	-	-	-	-
대검찰청						

대변인	2008년	오세인	강원 양양	강릉고	서울대 법대	28
	2009년 1월	조은석	전남 장성	광덕고	고려대 법대	29
	2009년 8월	조은석	전남 장성	광덕고	고려대 법대	29
	2010년 8월	한찬식	서울	성남고	서울대 법대	31
범죄정보 기획관	2008년	조성욱	부산	경성고	서울대 법대	27
	2009년 1월	강찬우	경남 하동	진주고	서울대 법대	28
	2009년 8월	우병우	경북 봉화	영주고	서울대 법대	29
	2010년 8월	전현준	대구	화곡고	서울대 법대	30
범죄정보 1담당관	2008년	김오수	전남 영광	광주 대동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1월	유상범	강원 영월	경기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8월	이동열	경기 안양	안양 신성고	연세대 법대	32
	2010년 8월	김영종	강원 정선	건대부고	한양대 법대	33
범죄정보 2담당관	2008년	유상범	강원 영월	경기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1월	권익환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법대	32
	2009년 8월	윤석열	서울	총암고	서울대 법대	33
	2010년 8월	김재훈	경북 성주	대일외고	서울대 법대	38
과학수사 기획관	2008년	이건주	부산	인천고	서울대 법대	27
	2009년 1월	서범정	대구	거제 중앙고	고려대 법대	28
	2009년 8월	박경호	충북 보은	서대전고	연세대 법대	29
	2010년 8월	이 용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30
과학수사 담당관	2008년	이정만	충남 보령	충남고	중앙대 법대	31
	2009년 1월	이정만	충남 보령	충남고	중앙대 법대	31
	2009년 8월	홍순보	경남 함안	마산 경상고	고려대 법대	32
	2010년 8월	안상훈	강원 철원	성남고	연세대 법대	33
디지털수사 담당관	2008년	남상봉	강원 영월	원주고	연세대 법대	31
	2009년 1월	최성진	전남 구례	대성고	서울대 법대	33
	2009년 8월	최성진	전남 구례	대성고	서울대 법대	33
	2010년 8월	안성수	인천	인하대부고	서울대 법대	34
정책기획 과장	2008년	안태근	경남 함안	영동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1월	장호중	서울	장충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8월	차경환	서울	단대부고	서울대 법대	32
	2010년 8월	구분선	인천	인하대부고	서울대 교육학	33
정보통신 과장	2008년	장호중	서울	장충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1월	김영대	경북 청송	영남고	경북대 법대	32
	2009년 8월	김영대	경북 청송	영남고	경북대 법대	32
	2010년 8월	이헌상	서울	동성고	서울대 법대	33
수사기획관	2008년	최재경	경남 산청	대구고	서울대 법대	27
	2009년 1월	홍만표	강원 삼척	대일고	성균관대 법대	27
	2009년 8월	이창재	서울	환일고	서울대 법대	29
	2010년 8월	우병우	경북 봉화	영주고	서울대 법대	29
중수1과장	2008년	박경호	충북 보은	서대전고	연세대 법대	29
	2009년 1월	우병우	경북 봉화	영주고	서울대 법대	29
	2009년 8월	노승권	대구	대구 심인고	서울대 법대	31
	2010년 8월	노승권	대구	대구 심인고	서울대 법대	31
중수2과장	2008년	박정식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1월	이석환	광주	광주 송일고	고려대 법대	31
	2009년 8월	이석환	광주	광주 송일고	고려대 법대	31
	2010년 8월	윤석열	서울	총암고	서울대 법대	33
첨단범죄 수사과장	2008년	이동열	경기 안양	안양 신성고	연세대 법대	32
	2009년 1월	이동열	경기 안양	안양 신성고	연세대 법대	32
	2009년 8월	김영종	강원 정선	건대부고	한양대 법대	33
	2010년 8월	심재돈	경기 김포	인천 선인고	서울대 법대	34

형사1과장	2008년	안상돈	경북 김천	우신고	고려대 법대	30
	2009년 1월	박균택	광주	대동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8월	이명순	강원 춘천	춘천고	서울대 법대	32
	2010년 8월	이완규	인천	인천 송도고	서울대 법대	32
형사2과장	2008년	김영진	경북 안동	경희고	고려대 법대	31
	2009년 1월	이영주	서울	혜화여고	서울대 법대	32
	2009년 8월	이영주	서울	혜화여고	서울대 법대	32
	2010년 8월	문찬석	전남 영광	경기고	성균관대 법대	34
조직범죄과장	2008년	이준명	경북 영주	경신고	연세대 법대	30
	2009년 1월	김영진	경북 안동	경희고	고려대 법대	31
	2009년 8월	최윤수	경북 금릉	부산 내성고	서울대 법대	31
	2010년 8월	김희종	경남 산청	진주기계공고	부산대 법대	33
마약과장	2008년	최윤수	경북 금릉	부산 내성고	서울대 법대	32
	2009년 1월	최윤수	경북 금릉	부산 내성고	서울대 법대	32
	2009년 8월	허철호	경남 진주	진주고	서울대 법대	33
	2010년 8월	박성진	부산	동성고	한양대 법대	34
피해자인권과장	2008년	김창희	서울	영일고	서울대 법대	32
	2009년 1월	김주원	경남 창원	경북고	서울대 법대	33
	2009년 8월	김주원	경남 창원	경북고	서울대 법대	33
	2010년 8월	김한수	서울	용산고	서울대 법대	34
공안기획관	2008년	김희관	전북 익산	전주고	서울대 법대	27
	2009년 1월	오세인	강원 양양	강릉고	서울대 법대	28
	2009년 8월	봉 옥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법대	29
	2010년 8월	이영만	전남 화순	검정고시	서울대 국문학	30
공안1과장	2008년	정점식	경남 고성	경상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1월	이진한	경기 화성	영등포고	고려대 법대	31
	2009년 8월	김창희	서울	영일고	서울대 법대	32
	2010년 8월	이정희	경북 상주	대구 계성고	서울대 법대	33
공안2과장	2008년	이진한	경기 화성	영등포고	고려대 법대	31
	2009년 1월	김창희	서울	영일고	서울대 법대	32
	2009년 8월	이정희	경북 상주	대구계성고	서울대 법대	33
	2010년 8월	최성남	강원 춘천	강원사대부고	서울대 법대	34
공안3과장	2009년 3월	고기영	광주	광주 인성고	서울대 법대	33
	2010년 8월	김영규	전남 담양	광주 인성고	고려대 법대	34
공판송무과장	2008년	이상호	충남 논산	충남고	고려대 법대	32
	2009년 1월	이상철	경북 김천	능인고	고려대 법대	33
	2009년 8월	이상철	경북 김천	능인고	고려대 법대	33
	2010년 8월	박은재	서울	관악고	서울대 법대	34
감찰1과장	2008년	김수창	서울	고려고	연세대 법대	29
	2009년 1월	이영만	전남 화순	검정고시	서울대 국문학	30
	2009년 8월	김 창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31
	2010년 8월	김승식	충남 당진	관악고	고려대 법대	31
감찰2과장	2008년	김진수	충북 옥천	남대전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1월	김 창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8월	김경태	전남 완도	송원고	서울대 법대	32
	2010년 8월	박계현	서울	예일여고	고려대 법대	32
서울중앙지검						
2차장	2008년	국민수	대전	대신고	서울대 법대	26
	2009년 1월	김희관	전북 익산	전주고	서울대 법대	27
	2009년 8월	오세인	강원 양양	강릉고	서울대 법대	28
	2010년 8월	공상훈	대구	대구고	서울대 법대	29
3차장	2008년	김수남	대구	대구 청구고	서울대 법대	26

	2009년 1월	최재경	경남 산청	대구고	서울대 법대	27
	2009년 8월	김주현	서울	서라벌고	서울대 법대	28
	2010년 8월	윤갑근	충북 청주	청주고	성균관대 법대	29
형사1부장	2008년	김주현	서울	서라벌고	서울대 법대	28
	2009년 1월	이창재	서울	환일고	서울대 법대	29
	2009년 8월	오정돈	서울	성동고	서울대 법대	30
	2010년 8월	신유철	경기 김포	장훈고	서울대 법대	28
형사2부장	2008년	임수빈	서울	장충고	서울대 법대	29
	2009년 1월	이건태	전남 영암	광주 제일고	고려대 법대	29
	2009년 8월	안상돈	경북 김천	우신고	고려대 법대	30
	2010년 8월	김 창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31
형사3부장	2008년	조은석	전남 장성	광덕고	고려대 법대	29
	2009년 1월	안상돈	경북 김천	우신고	고려대 법대	30
	2009년 8월	허상구	부산	부산동고	부산대 법대	31
	2010년 8월	이기석	경북 칠곡	경북고	서울대 법대	32
형사4부장	2008년	지익상	전북 김제	전주고	연세대 법대	29
	2009년 1월	이금로	충북 괴산	청주신흥고	고려대 법대	30
	2009년 8월	백기봉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대	31
	2010년 8월	박 철	서울	성남고	서울대 법대	32
형사5부장	2008년	김하중	전남 담양	사레지오고	고려대 법대	29
	2009년 1월	염동신	광주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8월	박균택	광주	대동고	서울대 법대	31
	2010년 8월	이명순	강원 춘천	춘천고	서울대 법대	32
형사6부장	2008년	황철규	서울	명지고	서울대 법대	29
	2009년 1월	전현준	대구	화곡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8월	장호중	서울	장충고	서울대 법대	31
	2010년 8월	차경환	서울	단대부고	서울대 법대	32
형사7부장	2008년	조희진	충남 예산	성신여고	고려대 법대	29
	2009년 1월	김청현	부산	경남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8월	이 옥	전남 고흥	사레지오여고	고려대 법대	31
	2010년 8월	김창희	서울	영일고	서울대 법대	32
형사8부장	2008년	정의식	경기 여주	수원고	서울대 법대	29
	2009년 1월	김태영	경남 마산	마산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8월	김학석	경북 경주	경주고	고려대 법대	31
	2010년 8월	박용호	경남 밀양	밀양고	한양대 법대	32
조사부장	2008년	박은석	충북 청원	세광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1월	최종원	경북 상주	경북고	연세대 법대	31
	2009년 8월	손준호	경북 의성	경북고	연세대 법대	32
	2010년 8월	배성범	경남 창원	마산고	서울대 법대	33
총무부장	2008년	염동신	광주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1월	한찬식	서울	성남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8월	이기석	경북 칠곡	경북고	서울대 법대	32
	2010년 8월	전강진	대구	경북사대고	고려대 법대	33
공안1부장	2008년	공상훈	대구	대구고	서울대 법대	29
	2009년 1월	정점식	경남 고성	경상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8월	이진한	경기 화성	영등포고	고려대 법대	31
	2010년 8월	이진한	경기 화성	영등포고	고려대 법대	31
공안2부장	2008년	이영만	전남 화순	검정고시	서울대 국문학	30
	2009년 1월	윤웅걸	전남 해남	영등포고	고려대 법대	31
	2009년 8월	유호근	경북 안동	경기고	서울대 법대	32
	2010년 8월	안병익	강원 횡성	원주고	서울대 법대	32
공판1부장	2008년	조정철	경북 달성	청구고	서울대 법대	29

	2009년 1월	민만기	경남 밀양	마산고	성균관대 법대	30
	2009년 8월	양근복	광주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31
	2010년 8월	이주일	서울	중앙고	고려대 법대	32
공판2부장	2008년	김청현	부산	부산 경남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1월	이 옥	전남 고흥	사레지오여고	고려대 법대	31
	2009년 8월	박용호	경남 밀양	밀양고	한양대 법대	32
	2010년 8월	고기영	광주	광주 인성고	서울대 법대	33
특수1부장	2008년	문무일	광주	광주 제일고	고려대 법대	28
	2009년 1월	김오수	전남 영광	광주 대동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8월	김기동	경남 진주	부산 해광고	서울대 법대	31
	2010년 8월	이동열	경기 안양	안양 신성고	연세대 법대	32
특수2부장	2008년	윤갑근	충북 청원	청주고	성균관대 법대	29
	2009년 1월	박정식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8월	권오성	경북 칠곡	영남고	경북대 법대	32
	2010년 8월	최윤수	경북 금릉	부산 내성고	서울대 법대	32
특수3부장	2008년	김광준	경북 경주	대구 영신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1월	김기동	경남 진주	부산 해광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8월	양부남	전남 담양	담양공고	전남대 법대	31
	2010년 8월	송삼현	전남 고흥	순천고	한양대 법대	33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강력부장	2008년	김주선	강원 속초	강릉고	단국대 법대	29
	2009년 1월	이두식	충남 당진	천안고	단국대 법대	31
	2009년 8월	김영진	경북 안동	경희고	고려대 법대	31
	2010년 8월	김희준	전남 함평	광주 석산고	전남대 법대	32
첨단범죄수사부장/첨단범죄수사1부장	2008년	구본진	서울	세종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1월	이 혁	전북 무주	경희고	고려대 법대	30
	2009년 8월	한찬식	서울	성남고	서울대 법대	31
	2010년 8월	이천세	충남 논산	배문고	서울대 경제학	32
첨단범죄수사2부장(2009.1.신설)	2009년 1월	노승권	대구	대구심인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8월	위재천	전남 장흥	대동고	전남대 법대	31
	2010년 8월	김영대	경북 청송	영남고	경북대 법대	32
금융조세조사1부장	2008년	봉 옥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법대	29
	2009년 1월	김강욱	경북 안동	경북고	서울대 법대	29
	2009년 8월	전현준	대구	화곡고	서울대 법대	30
	2010년 8월	이석환	광주	광주 송일고	고려대 법대	31
금융조세조사2부장	2008년	우병우	경북 봉화	영주고	서울대 법대	29
	2009년 1월	안태근	경남 함안	영동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8월	진경준	전남 목포	환일고	서울대 법대	33
	2010년 8월	이성윤	전북 무주	전주고	경희대 법대	33
금융조세조사3부장(2009.1.신설)	2009년 1월	박진만	서울	경희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8월	유상범	강원 영월	경기고	서울대 법대	31
	2010년 8월	이중희	충북 괴산	강릉고	고려대 법대	33
외사부장	2008년	이홍재	서울	중동고	고려대 법대	29
	2009년 1월	황인규	서울	대성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8월	함윤근	서울	영동고	고려대 법대	31
	2010년 8월	김석우	전북 임실	완산고	전북대 법대	31
서울동부지검						
차장	2008년	정동민	경남 양산	금성고	고려대 법대	26
	2009년 1월	박성재	경북 청도	대구고	고려대 법대	27
	2009년 8월	변찬우	경북 안동	대구대건고	경북대 법대	28
	2010년 8월	김강욱	경북 안동	경북고	서울대 법대	29
형사1부장	2008년	곽규홍	충남	여의도고	고려대 법대	29

	2009년 1월	김광준	경북 경주	영신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8월	정필재	전남 함평	조선대부고	서울대 법대	29
	2010년 8월	박진만	서울	경희고	서울대 법대	31
형사2부장	2008년	황인규	서울	대성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1월	정필재	전남 함평	조선대부고	서울대 법대	29
	2009년 8월	민영선	서울	서울고	건국대 법대	31
형사3부장	2010년 8월	김 훈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31
	2008년	김희재	전남 여천	순천고	연세대 법대	30
	2009년 1월	민영선	서울	서울고	건국대 법대	31
형사4부장	2009년 8월	이정만	충남 보령	충남고	중앙대 법대	31
	2010년 8월	이상용	광주	광주 진흥고	서울대 법대	32
	2008년	김희재	전남 여천	순천고	연세대 법대	30
형사5부장	2009년 1월	위재천	전남 장흥	대동고	전남대 법대	31
	2009년 8월	김성진	대구 달성	대구대건고	고려대 법대	32
	2010년 8월	이홍락	경북 경주	부산동고	서울대 법대	33
형사6부장	2008년	함윤근	서울	영동고	고려대 법대	31
	2009년 1월	김창희	서울	경기고	연세대 법대	32
	2009년 8월	임진섭	경남 창녕	광성고	한양대 법대	32
공판부장	2010년 8월	이경훈	충남 홍성	남대전고	고려대 법대	33
	2008년	박균택	광주	대동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1월	이명순	강원 춘천	춘천고	서울대 법대	32
서울남부지검	2009년 8월	이중희	충북 괴산	강릉고	고려대 법대	33
	2010년 8월	여환섭	경북 김천	김천고	연세대 법대	34
	2008년	김동철	충남 태안	대전고	중앙대 법대	31
차장	2009년 1월	양재식	전북 김제	해성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8월	안성욱	경남 김해	성남서고	고려대 법대	33
	2010년 8월	이용주	전남 여수	여수고	서울대 법대	34
형사1부장	2008년	박청수	경북 경산	경북고	한양대 법대	26
	2009년 1월	한무근	경북 경산	경북고	서울대 법대	27
	2009년 8월	이영렬	서울	경북고	서울대 법대	28
	2010년 8월	이창재	서울	환일고	서울대 법대	19
형사2부장	2008년	신동현	전남 해남	광주 대동고	고려대 법대	29
	2009년 1월	이 용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20
	2009년 8월	김홍우	경북 포항	대구 능인고	서울대 법대	29
	2010년 8월	양재식	전북 김제	해성고	서울대 법대	31
형사3부장	2011년 2월	박경춘	전남 완도	광주 서석고	연세대 법대	31
	2008년	최상철	충북 진천	세광고	서울대 법대	29
	2009년 1월	김호철	부산	영동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8월	허태욱	부산	부산 배정고	서울대 법대	30
형사4부장	2010년 8월	박경춘	전남 완도	광주 서석고	연세대 법대	31
	2008년	이 용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1월	최창호	서울	오산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8월	최창호	서울	오산고	서울대 법대	31
형사5부장	2010년 8월	김경태	전남 완도	송원고	서울대 법대	32
	2008년	김태영	경남 마산	마산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1월	함윤근	서울	영동고	고려대 법대	31
	2009년 8월	강신엽	경북 안동	안동고	한양대 법대	31
형사6부장	2010년 8월	홍순보	경남 함안	마산 경상고	고려대 법대	32
	2008년	원범연	충남 공주	공주사대부고	성균관대 법대	31
	2009년 1월	김석우	전북 임실	완산고	전북대 법대	31
형사7부장	2009년 8월	김석우	전북 임실	완산고	전북대 법대	31

	2010년 8월	김주원	경남 창원	경북고	서울대 법대	33
형사6부장	2008년	김 창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1월	양부남	전남 담양	담양공고	전남대 법대	31
	2009년 8월	배성범	경남 창원	마산고	서울대 법대	33
	2010년 8월	차맹기	경남 밀양	창원고	서울대 법대	34
공판부장	2008년	박철완	전북 익산	전주고	고려대 법대	31
	2009년 1월	이형철	부산	해운대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8월	이태한	부산	경남고	고려대 법대	33
	2010년 8월	김찬중	충북 옥천	청주 세광고	중앙대 법대	34
서울북부지검						
차장	2008년	이득홍	대구	관악고	고려대 법대	26
	2009년 1월	손기호	부산	부산해동고	서울대 법대	27
	2009년 8월	이명재	충남 논산	경신고	고려대 법대	28
	2010년 8월	조은석	전남 장성	광덕고	고려대 법대	29
형사1부장	2008년	임채원	대구	서울고	고려대 법대	29
	2009년 1월	김홍우	경북 포항	대구능인고	서울대 법대	29
	2009년 8월	김진수	충북 옥천	남대전고	서울대 법대	30
	2010년 8월	추일환	전남 광양	순천고	고려대 법대	31
형사2부장	2008년	신문식	경북 문경	검정고시	연세대 법대	29
	2009년 1월	김진수	충북 옥천	남대전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8월	남상봉	강원 영월	원주고	연세대 법대	31
	2010년 8월	류일준	서울	영동고	서울대 법대	31
형사3부장	2008년	김경석	광주	광주고	전남대 법대	30
	2009년 1월	남상봉	강원 영월	원주고	연세대 법대	31
	2009년 8월	김인원	전북 남원	울산 우신고	성균관대 법대	31
	2010년 8월	최운식	충남 금산	대전고	한양대 법대	32
형사4부장	2008년	이제관	부산	부산상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1월	김인원	전북 남원	울산 우신고	성균관대 법대	31
	2009년 8월	이주일	서울	중앙고	고려대 법대	32
	2010년 8월	이중제	서울	용산고	한양대 법대	32
형사5부장	2008년	송길룡	전남 고흥	조선대 부고	조선대 법대	30
	2009년 1월	이주일	서울	중앙고	고려대 법대	32
	2009년 8월	김성준	부산	성남고	서울대 법대	32
	2010년 8월	허철호	경남 진주	진주고	서울대 법대	33
형사6부장	2008년	박경춘	전남 완도	광주 서석고	연세대 법대	31
	2009년 1월	권오성	경북 칠곡	영남고	경북대 법대	32
	2009년 8월	김회중	경남 산청	진주기계공고	부산대 법대	33
	2010년 8월	김태철	전북 부안	전주 해성고	한양대 법대	34
공판부장	2008년	김진원	경남 함양	함양종합고	부산대 법대	31
	2009년 1월	정중택	대구	달성고	한양대 법대	31
	2009년 8월	고병민	경남 진주	진주 대아고	고려대 법대	33
	2010년 8월	최용석	서울	동대부속고	연세대 행정학	34
서울서부지검						
차장	2008년	황윤성	전북 전주	전주고	서울대 법대	26
	2009년 1월	송찬엽	전북 부안	전주고	서울대 사회고	27
	2009년 8월	오광수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대	28
	2010년 8월	봉 옥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법대	29
형사1부장	2008년	홍효식	서울	성동고	고려대 법대	29
	2009년 1월	김용호	경북 예천	신일고	연세대 법대	30
	2009년 8월	이재구	충남 홍성	홍성고	연세대 법대	30
	2010년 8월	방봉혁	전북 장수	전주고	고려대 법대	31
형사2부장	2008년	서정식	대구	대구고	고려대 법대	29

	2009년 1월	이재구	충남 홍성	홍성고	연세대 법대	30
	2009년 8월	박진만	서울	경희고	서울대 법대	31
	2010년 8월	이형철	부산	해운대고	서울대 법대	31
형사3부장	2008년	정석우	경남 진해	경북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1월	양근복	광주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8월	백종우	서울	신일고	연세대 법대	32
	2010년 8월	이영주	서울	혜화여고	서울대 법대	32
형사4부장	2008년	김용호	대구	대구심인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1월	김학석	경북 경주	경주고	고려대 법대	31
	2009년 8월	지석배	서울	대일고	서울대 법대	32
	2010년 8월	이수철	전남 화순	충주고	서울대 법대	32
형사5부장	2008년	노승권	대구	대구 심인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1월	박용호	경남 밀양	밀양고	한양대 법대	32
	2009년 8월	이성윤	전북 무주	전주고	경희대 법대	33
	2010년 8월	이원곤	전남 함평	동성고	고려대 법대	34
공판부장	2008년	옥선기	서울	서울고	고려대 법대	31
	2009년 1월	김태광	충남 예산	예산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8월	조인형	전남 강진	전남고	연세대 법대	33
	2010년 8월	김용남	경기 수원	수원고	서울대 법대	34
의정부지검						
차장	2008년	조영곤	경북 영천	경북고	서울대 법대	26
	2009년 1월	이건주	부산	인천고	서울대 법대	27
	2009년 8월	최준원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28
	2010년 8월	지익상	전북 김제	전주고	연세대 법대	29
형사1부장	2008년	김 환	전북 완주	전주고	고려대 법대	29
	2009년 1월	허태욱	부산	부산 배정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8월	남삼식	경남 거창	성동고	고려대 법대	30
	2010년 8월	정중택	대구	달성고	한양대 법대	31
형사2부장	2008년	손영기	대구	대구 경신고	서울대 법대	29
	2009년 1월	송길룡	전남 고흥	조선대부고	조선대 법대	30
	2009년 8월	양재식	전북 김제	해성고	서울대 법대	31
	2010년 8월	옥선기	서울	서울고	고려대 법대	31
형사3부장	2008년	강여찬	제주	한성고	고려대 법대	30
	2009년 1월	이임성	서울	경기고	한양대 법대	31
	2009년 8월	정재봉	서울	서라벌고	성균관대 법대	32
	2010년 8월	김성일	서울	서울 광성고	연세대 법대	32
형사4부장	2008년	이재구	충남 홍성	홍성고	연세대 법대	30
	2009년 1월	강신엽	경북 안동	안동고	한양대 법대	31
	2009년 8월	김태훈	강원 홍천	강원사대부고	고려대 법대	32
	2010년 8월	박형관	전남 보성	광주광덕고	서울대 법대	32
형사5부장	2008년	류혁상	서울	마포고	연세대 법대	31
	2009년 1월	임진섭	경남 창녕	광성고	한양대 법대	32
	2009년 8월	한동영	전북 순창	전주고	성균관대 법대	33
	2010년 8월	한상진	충남 부여	공주사대부고	한양대 법대	34
공판송무 부장	2008년					
	2009년 1월	김태훈	강원 홍천	강원사대부고	고려대 법대	32
	2009년 8월	전석수	충북 청원	대광고	서울대 법대	34
	2010년 8월	이상규	전북 전주	전주 영생고	서울대 법대	34
고양지청장	2008년	성영훈	서울	명지고	연세대 법대	25
	2009년 1월	김현정	부산	부산대동고	서울대 법대	26
	2009년 8월	손기호	부산	부산해동고	서울대 법대	27
	2010년 8월	이명재	충남 논산	경신고	고려대 법대	28

고양지청 차장	2008년	정윤기	전남 광양	순천고	전남대 법대	27
	2009년 1월	김해수	경남 합천	대구고	고려대 법대	28
	2009년 8월	조희진	충남 예산	성신여고	고려대 법대	29
	2010년 8월	김광준	경북 경주	영신고	서울대 법대	30
인천지검						
1차장	2008년	김현웅	전남 고흥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26
	2009년 1월	김경수	경남 진주	진주고	연세대 법대	27
	2009년 8월	문무일	광주	광주제일고	고려대 법대	28
	2010년 8월	정인창	부산	부산남고	서울대 법대	28
2차장	2008년	송찬엽	전북 부안	전주고	서울대 사범대	27
	2009년 1월	이영렬	서울	경북고	서울대 법대	28
	2009년 8월	지익상	전북 김제	전주고	연세대 법대	29
	2010년 8월	김수창	서울	고려고	연세대 법대	29
형사1부장	2008년	최준원	대구 달성	경북고	서울대 법대	28
	2009년 1월	박재권	경기 안산	동인천고	한양대 법대	29
	2009년 8월	이 혁	전북 무주	경희고	고려대 법대	30
	2010년 8월	김청현	부산	경남고	서울대 법대	30
형사2부장	2008년	박진영	전남 목포	서울고	고려대 법대	29
	2009년 1월	이제관	부산	부산상업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8월	추일환	전남 광양	순천고	고려대 법대	31
	2010년 8월	남상봉	강원 영월	원주고	연세대 법대	31
형사3부장	2008년	권도욱	대구	대구 대륜고	고려대 법대	30
	2009년 1월	추일환	전남 광양	순천고	고려대 법대	31
	2009년 8월	윤보성	전남 강진	해동고	경희대 법대	31
	2010년 8월	권오성	경북 칠곡	영남고	경북대 법대	32
형사4부장	2008년	이성욱	서울	용산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1월	윤보성	전남 강진	해동고	경희대 법대	31
	2009년 8월	김용승	전남 고흥	광주제일고 부 설 방송통신고	고려대 법대	32
	2010년 8월	임진섭	경남 창녕	광성고	한양대 법대	32
형사5부장	2008년	이 옥	전남 고흥	사례지오여고	고려대 법대	31
	2009년 1월	이기석	경북 칠곡	경북고	서울대 법대	32
	2009년 8월	최길수	경기 파주	명지고	서울대 법대	33
	2010년 8월	변창훈	경북 예천	대구 심인고	서울대 법대	33
공판송무 부장	2008년	김우현	전남 여천	광주 제일고	고려대 법대	32
	2009년 1월	김종휘	경북 안동	안동고	한양대 법대	32
	2009년 8월	이원규	대구	대구 성광고	서울대 법대	32
	2010년 8월	변창범	제주	제주 오현고	고려대 법대	35
공안부장	2008년	류일준	서울	영동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1월	김용승	전남 고흥	광주제일고 부 설 방송통신고	고려대 법대	32
	2009년 8월	오자성	대구	대구 영신고	성균관대 법대	33
	2010년 8월	김충우	부산	내성고	고려대 법대	34
특수부장	2008년	최종원	경북 상주	경북고	연세대 법대	31
	2009년 1월	홍순보	경남 함안	마산 경상고	고려대 법대	32
	2009년 8월	이경훈	충남 홍성	남대전고	고려대 법대	33
	2010년 8월	윤희식	경남 고성	진주고	건국대 법대	33
강력부장	2008년	최운식	충남 금산	대전고	한양대 법대	32
	2009년 1월	이성윤	전북 무주	전주고	경희대 법대	33
	2009년 8월	박장우	충북 충주	상문고	서울대 법대	34
	2010년 8월	이영기	전북 장수	석관고	고려대 법대	35
외사부장	2008년					

	2009년 1월	김희종	경남 산청	진주기계공고	부산대 법대	33
	2009년 8월	안성수	인천	인하대부고	서울대 법대	34
	2010년 8월	이원규	대구	대구 성광고	서울대 법대	32
부천지청장	2008년	성시웅	충남 예산	경기고	서울대 법대	25
	2009년 1월	이경재	대전	대전고	고려대 법대	26
	2009년 8월	백종수	경기 양주	부평고	고려대 법대	27
	2010년 8월	이영렬	서울	경북고	서울대 법대	28
부천지청차장	2008년	한승철	광주	광주고	서울대 법대	27
	2009년 1월	조주태	경남 남해	진주고	한국외대 법대	28
	2009년 8월	김주선	강원 속초	강릉고	단국대 법대	29
	2010년 8월	박정식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30
수원지검						
1차장	2008년	정병두	경남 하동	부산동고	서울대 법대	26
	2009년 1월	신경식	서울	고려고	서울대 법대	26
	2009년 8월	강찬우	경남 하동	진주고	서울대 법대	28
	2010년 8월	김영준	전북 군산	서울고	서울대 법대	28
2차장	2008년	김경수	경남 진주	진주고	연세대 법대	27
	2009년 1월	문무일	광주	광주 제일고	고려대 법대	28
	2009년 8월	윤갑근	충북 청원	청주고	성균관대 법대	29
	2010년 8월	박경호	충북 보은	서대전고	연세대 법대	29
형사1부장	2008년	박종기	경북 청송	대구 달성고	고려대 법대	28
	2009년 1월	신문식	경북 문경		연세대 법대	29
	2009년 8월	김청현	부산	경남고	서울대 법대	30
	2010년 8월	김경석	광주	광주고	전남대 법대	30
형사2부장	2008년	강태순	경남 진양	부산상고	고려대 법대	29
	2009년 1월	이상현	경남 마산	마산 중앙고	고려대 법대	30
	2009년 8월	김 훈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31
	2010년 8월	이용민	경북 성주	대구 심인고	서울대 법대	31
형사3부장	2008년	김홍우	경북 포항	대구 능인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1월	김 훈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8월	방봉혁	전북 장수	전주고	고려대 법대	31
	2010년 8월	유호근	경북 안동	경기고	서울대 법대	32
형사4부장	2008년	정필재	전남 함평	조선대 부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1월	방봉혁	전북 장수	전주고	고려대 법대	31
	2009년 8월	나기주	전남 나주	광덕고	서울대 법대	32
	2010년 8월	변광호	부산	부산 배정고	서울대 법대	32
공판송무부장	2008년	김성준	부산	서울 성남고	서울대 법대	32
	2009년 1월	유원근	강원 춘천	대성고	서울대 법대	32
	2009년 8월	김충우	부산	내성고	고려대 법대	34
	2010년 8월	노정연	서울	중앙여고	이화여대 법대	35
공안부장	2008년	윤웅걸	전남 해남	영등포고	고려대 법대	31
	2009년 1월	송진섭	경남 합천	대구 심인고	고려대 법대	32
	2009년 8월	변창훈	경북 예천	대구 심인고	서울대 법대	33
	2010년 8월	이태형	경남 산청	영등포고	고려대 법대	34
특수부장	2008년	박진만	서울	경희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1월	김경태	전남 완도	송원고	서울대 법대	32
	2009년 8월	송삼현	전남 고흥	순천고	한양대 법대	33
	2010년 8월	한동영	전북 순창	전주고	성균관대 법대	33
강력부장	2008년	권오성	경북 칠곡	영남고	경북대 법대	32
	2009년 1월	허철호	경남 진주	진주고	서울대 법대	33
	2009년 8월	김영문	울산	경남고	서울대 법대	34
	2010년 8월	윤재필	울산	울산 학성고	부산대 법대	35

성남지청장	2008년	송해은	충북 청주	청주고	한양대 법대	25
	2009년 1월	임정혁	서울	중앙고	서울대 법대	26
	2009년 8월	한무근	경북 경산	경북고	서울대 법대	27
	2010년 8월	변찬우	경북 안동	대구 대건고	경북대 법대	28
성남지청차장	2008년	정대표	대구	경북고	성균관대 법대	27
	2009년 1월	김영준	전북 군산	서울고	서울대 법대	28
	2009년 8월	신동현	전남 해남	광주 대동고	고려대 법대	29
	2010년 8월	김오수	전남 영광	광주 대동고	서울대 법대	30
여주지청장	2008년	김영준	전북 군산	서울고	서울대 법대	28
	2009년 1월	봉 옥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법대	29
	2009년 8월	안태근	경남 함안	영동고	서울대 법대	30
	2010년 8월	박은석	충북 청원	세광고	서울대 법대	30
평택지청장	2008년	이영렬	서울	경북고	서울대 법대	28
	2009년 1월	박경호	충북 보은	서대전고	연세대 법대	29
	2009년 8월	이영만	전남 화순	김정고시	서울대 국문학	30
	2010년 8월	이정만	충남 보령	충남고	중앙대 법대	31
안산지청장	2008년	구본민	전남 담양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25
	2009년 1월	문규상	부산	경남고	서울대 법대	26
	2009년 8월	이건주	부산	인천고	서울대 법대	27
	2010년 8월	오광수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대	28
안산지청차장	2008년	신은철	대전	대전고	서울대 법대	27
	2009년 1월	박종기	경북 청송	대구 달성고	고려대 법대	28
	2009년 8월	임채원	대구	서울고	고려대 법대	29
	2010년 8월	구본진	서울	세광고	서울대 법대	30
안양지청장	2009년 3월	이부영	강원 인제	서울사대부고	한양대 법대	26
	2009년 8월	이은중	강원 춘천	춘천고	서울대 법대	27
	2010년 8월	김주현	서울	서라벌고	서울대 법대	28
안양지청차장	2009년 3월	정인창	부산	부산남고	서울대 법대	28
	2009년 8월	홍효식	서울	성동고	고려대 법대	29
	2010년 8월	김희재	전남 여천	순천고	연세대 법대	30
춘천시검						
차장	2008년	박충근	서울	덕수상고	건국대 법대	27
	2009년 1월	이석수	서울	상문고	서울대 법대	28
	2009년 8월	김영준	전북 군산	서울고	서울대 법대	28
	2010년 8월	홍효식	서울	성동고	고려대 법대	29
1부장	2008년	이재덕	경기 화성	동국사대부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1월	백성근	경남 진주	진주고	동아대	32
	2009년 8월	김기준	경남 김해	동아고	서울대 법대	33
	2010년 8월	임용규	경기 이천	수성고	고려대 법대	33
2부장	2008년	김성렬	전남 함평	-	단국대 법대	33
	2009년 1월	서흥기	경기 평택	평택고	성균관대 법대	34
	2009년 8월	김찬중	충북 옥천	청주 세광고	중앙대 법대	34
	2010년 8월	황순철	대구	대구 성광고	경북대 법대	35
강릉지청장	2008년	이의경	경북 예천	대구 대륜고	고려대 법대	28
	2009년 1월	김주선	강원 속초	강릉고	단국대 법대	29
	2009년 8월	김호철	부산	영동고	서울대 법대	30
	2010년 8월	김호철	부산	영동고	서울대 법대	30
원주지청장	2008년	김진태	강원 춘천	성수고	서울대 법대	28
	2009년 1월	지익상	전북 김제	전주고	연세대 법대	29
	2009년 8월	김오수	전남 영광	광주대동고	서울대 법대	30
	2010년 8월	최종원	경북 상주	경북고	연세대 법대	31
속초지청장	2008년	박용호	경남 밀양	밀양고	한양대 법대	32

	2009년 1월	조상철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법대	33
	2009년 8월	조상철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법대	33
	2010년 8월	고 흥	경기 수원	수원고	서울대 법대	34
영월지청장	2008년	이중희	충북 괴산	강릉고	고려대 법대	33
	2009년 1월	윤희식	경남 고성	진주고	건국대 법대	33
	2009년 8월	윤희식	경남 고성	진주고	건국대 법대	33
	2010년 8월	정수봉	경북 영양	서울 인창고	서울대 법대	34
대전지검						
형사1부장	2008년	이중재	대전	대전고	고려대 법대	26
	2009년 1월	강창조	제주	오현고	연세대 법대	29
	2009년 8월	김호정	서울	대광고	연세대 법대	30
	2010년 8월	허태욱	부산	부산 배정고	서울대 법대	30
형사2부장	2008년	김영태	충북 청주	청주 청석고	서울대 법대	29
	2009년 1월	김호정	서울	대광고	연세대 법대	30
	2009년 8월	김동철	충남 태안	대전고	중앙대 법대	31
	2010년 8월	허상구	부산	부산동고	부산대 법대	31
형사3부장	2008년	이선훈	대전	대전고	고려대 법대	30
	2009년 1월	김동철	충남 태안	대전고	중앙대 법대	31
	2009년 8월	김형준	강원 영월	영월고	한양대 법대	32
	2010년 8월	김용승	전남 고흥	광주제일고 부설 방송통고	고려대 법대	32
공안부장	2008년					
	2009년 1월					
	2009년 8월					
	2010년 8월	최태원	서울	서울 대일고	서울대 법대	35
특수부장	2008년	박 철	서울	서울 성남고	서울대 법대	32
	2009년 1월	이경훈	충남 홍성	남대전고	고려대 법대	33
	2009년 8월	최재호	경북 상주	성동고	고려대 법대	34
	2010년 8월	최경규	경기 화성	송문고	한양대 법대	35
공판부장	2008년					
	2009년 1월	임용규	경기 이천	수성고	고려대 법대	33
	2009년 8월	김충한	서울	자양고	고려대 법대	34
	2010년 8월	최득신	경북 상주	영일고	고려대 법대	35
홍성지청장	2008년	정병하	경남 산청	진주고	연세대 법대	28
	2009년 1월	곽규홍	충남	여의도고	고려대 법대	29
	2009년 8월	김용호	경북 예천	신일고	연세대 법대	30
	2010년 8월	김종민	부산	부산동고	고려대 법대	31
공주지청장	2008년	구본선	인천	인하대부고	서울대 교육학	33
	2009년 1월	심재돈	경기 김포	인천 선인고	서울대 법대	34
	2009년 8월	심재돈	경기 김포	인천 선인고	서울대 법대	34
	2010년 8월	김병현	전북 부안	전주 해성고	서울대 법대	35
논산지청장	2008년	윤석열	서울	충암고	서울대 법대	33
	2009년 1월	오인서	서울	동성고	고려대 법대	33
	2009년 8월	오인서	서울	동성고	고려대 법대	33
	2010년 8월	박장우	충북 충주	상문고	서울대 법대	34
서산지청장	2008년	오광수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대	28
	2009년 1월	신동현	전남 해남	광주 대동고	고려대 법대	29
	2009년 8월	황인규	서울	대성고	서울대 법대	30
	2010년 8월	박균택	광주	광주 대동고	서울대 법대	31
천안지청장	2008년	이재순	충북 영동	신일고	서울대 법대	26
	2009년 1월	박충근	서울	덕수상고	건국대 법대	27
	2009년 8월	강인철	경남 하동	홍대부고	고려대 법대	28

	2010년 8월	조희진	충남 예산	성신여고	고려대 법대	29
청주시검						
차장	2008년	문규상	부산	경남고	서울대 법대	26
	2009년 1월	신은철	대전	대전고	서울대 법대	27
	2009년 8월	장인창	부산	부산남고	서울대 법대	28
	2010년 8월	정상환	경북 경산	대구 능인고	서울대 법대	29
1부장	2008년	김현호	전북 임실	원광고	고려대 법대	30
	2009년 1월	이수철	전남 화순	충주고	서울대 법대	32
	2009년 8월	정용진	대전	오산고	고려대 법대	33
	2010년 8월	김봉석	경남 고성	진주고	서울대 법대	33
2부장	2008년	한동영	전북 순창	전주고	성균관대 법대	33
	2009년 1월	한상진	충남 부여	공주사대부고	한양대 법대	34
	2009년 8월	권중영	대전	대전 대신고	서울대 법대	34
	2010년 8월	박성동	경남 진주	동성고	경찰대 행정학	34
충주시청장	2008년	이명재	충남 논산	경신고	고려대 법대	28
	2009년 1월	윤갑근	충북 청원	청주고	성균관대 법대	29
	2009년 8월	김태영	경남 마산	마산고	서울대 법대	30
	2010년 8월	최창호	서울	오산고	서울대 법대	31
제천시청장	2008년	박윤희	경북 상주	김천고	서울대 법대	32
	2009년 1월	이완규	인천	송도고	서울대 법대	32
	2009년 8월	이완규	인천	송도고	서울대 법대	32
	2010년 8월	장영수	경북 칠곡	대원고	고려대 법대	34
영동지청장	2008년	김영종	강원 정선	건대부고	한양대 법대	33
	2009년 1월	김윤상	서울	대원외고	서울대 법대	34
	2009년 8월	김윤상	서울	대원외고	서울대 법대	34
	2010년 8월	권순철	대전	한밭고	고려대 법대	34
	2011년 2월	서봉규	대구	서울 현대고	서울대 법대	36
대구지검						
2차장	2008년	차동언	경남 울산	경기고	서울대 법대	27
	2009년 1월	변찬우	경북 안동	대구 대건고	경북대 법대	28
	2009년 8월	곽규홍	충남	여의도고	고려대 법대	29
	2010년 8월	안상돈	경북 김천	우신고	고려대 법대	30
형사1부장	2008년	서범정	대구	거제 중앙고	고려대 법대	28
	2009년 1월	이현득	경북 성주	대구 능인고	경북대 법대	29
	2009년 8월	권도욱	대구	대구 대륜고	고려대 법대	30
	2010년 8월	유상범	강원 영월	경기고	서울대 법대	31
형사2부장	2008년	장성윤	전남 담양	광주 송일고	고려대 법대	29
	2009년 1월	강여찬	제주	한성고	고려대 법대	30
	2009년 8월	홍종호	경북 군위	대구 성광고	성균관대 법대	31
	2010년 8월	백방준	인천	부평고	고려대 법대	31
형사3부장	2008년	송영호	대전	대전고	충남대 법대	31
	2009년 1월	김종호	전남 무주	제주 제일고	한양대 법대	31
	2009년 8월	이수철	전남 화순	충주고	서울대 법대	32
	2010년 8월	나기주	전남 나주	광덕고	서울대 법대	32
형사4부장	2008년	장영돈	서울	상문고	서울대 법대	32
	2009년 1월	안상훈	강원 철원	성남고	연세대 법대	33
	2009년 8월	이석우	경북 상주	대구 영남고	서울대 법대	33
	2010년 8월	안성욱	경남 김해	성남서고	고려대 법대	33
공판부장	2008년	이상철	경북 김천	능인고	고려대 법대	33
	2009년 1월	김재훈	경북 성주	대일외고	서울대 법대	38
	2009년 8월	박두순	충남 서천	면목고	서울대 법대	34
	2010년 8월	최득신	경북 상주	영일고	고려대 법대	35

공안부장	2008년	유호근	경북 안동	경기고	서울대 법대	32
	2009년 1월	이정희	경북 상주	대구 계성고	서울대 법대	33
	2009년 8월	김재훈	경북 성주	대일외고	서울대 법대	38
	2010년 8월	윤영준	부산	해동고	고려대 법대	34
특수부장	2008년	이천세	충남 논산	배문고	서울대 경제학	32
	2009년 1월	윤석열	서울	총암고	서울대 법대	33
	2009년 8월	권정훈	대구	경원고	서울대 법대	34
	2010년 8월	김홍창	경북 경주	김천고	성균관 법대	34
강력부장	2008년	김현채	서울	대원고	연세대 법대	33
	2009년 1월	김영문	울산	경남고	서울대 법대	34
	2009년 8월	김홍창	경북 경주	김천고	성균관 법대	34
	2010년 8월	이종환	강원 정선	문일고	고려대 법대	35
안동지청장	2008년	이기석	경북 칠곡	경북고	서울대 법대	32
	2009년 1월	이헌상	서울	동성고	서울대 법대	33
	2009년 8월	이헌상	서울	동성고	서울대 법대	33
	2010년 8월	최재호	경북 상주	성동고	고려대 법대	34
경주지청장	2008년	장인중	서울	송실고	서울대 법대	28
	2009년 1월	서정식	경남 밀양	밀양고	건국대 법대	40
	2009년 8월	변창범	제주	제주 오현고	고려대 법대	35
	2010년 8월	정필재	전남 함평	조선대부고	서울대 법대	29
포항지청장	2008년	변찬우	경북 안동	대구 대건고	경북대 법대	28
	2009년 1월	김수창	서울	고려고	연세대 법대	29
	2009년 8월	박정식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30
	2010년 8월	송인택	대전	충남고	고려대 법대	31
김천지청장	2008년	정인창	부산	부산남고	서울대 법대	28
	2009년 1월	박진영	전남 목포	서울고	고려대 법대	28
	2009년 8월	박진영	전남 목포	서울고	고려대 법대	28
	2010년 8월	정석우	경남 진해	경북고	서울대 법대	30
상주지청장	2008년	배성범	경남 창원	마산고	서울대 법대	33
	2009년 1월	김한수	서울	송실고	서울대 법대	34
	2009년 8월	김한수	서울	송실고	서울대 법대	34
	2010년 8월	이두봉	강원 양양	강릉고	서울대 법대	35
의성지청장	2008년	정중택	대구	달성고	한양대 법대	31
	2009년 1월	박은재	서울	관악고	서울대 법대	34
	2009년 8월	박은재	서울	관악고	서울대 법대	34
	2010년 8월	전형근	인천	제물포고	서울대 법대	35
영덕지청장	2008년	강신엽	경북 안동	안동고	한양대 법대	31
	2009년 1월	이원곤	전남 함평	동성고	고려대 법대	34
	2009년 8월	이원곤	전남 함평	동성고	고려대 법대	34
	2010년 8월	이주형	대구	경원고	고려대 법대	35
대구서부 지청장	2008년	이종환	경북 구미	경북고	고려대 법대	25
	2009년 1월	황윤성	전북 전주	전주고	서울대 법대	26
	2009년 8월	박충근	서울	덕수상고	건국대 법대	27
	2010년 8월	조주태	경남 남해	진주고	한국외대 법대	28
대구서부 지청 차장	2008년	임상길	전남 진도	목포고	고려대 법대	27
	2009년 1월	장인중	서울	송실고	서울대 법대	28
	2009년 8월	김광준	경북 경주	영신고	서울대 법대	30
	2010년 8월	김용호	대구	대구 심인고	서울대 법대	30
대구서부 지청 1부장	2008년	손태근	밀양	경남 마산고	연세대 법대	32
	2009년 1월	이석우	경북 상주	대구 영남고	서울대 법대	33
	2009년 8월	심재계	경북 영천	영진고	경북대 법대	34
	2010년 8월	조인형	전남 강진	전남고	연세대 법대	33
대구서부	2008년	이경훈	충남 홍성	남대전고	고려대 법대	33

지청 2부장	2009년 1월	최재호	경북 상주	성동고	고려대 법대	34
	2009년 8월	박용기	충남 부여	군산 제일고	고려대 법대	35
	2010년 8월	권중영	대전	대전 대신고	서울대 법대	34
3부장	2010년 8월	정승면	대구	대구 덕원고	고려대 법대	36
부산지검						
2차장	2008년	한무근	경북 경산	경북고	서울대 법대	27
	2009년 1월	오광수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대	28
	2009년 8월	김수창	서울	고려고	연세대 법대	29
	2010년 8월	정점식	경남 고성	경상고	서울대 법대	30
형사1부장	2008년	김해수	경남 합천	대구고	고려대 법대	28
	2009년 1월	방철수	전북 남원	전라고	고려대 법대	29
	2009년 8월	강여찬	제주	한성고	고려대 법대	30
	2010년 8월	진경준	전남 목포	환일고	서울대 법대	33
형사2부장	2008년	고석홍	전북 고창	장충고	서울대 법대	29
	2009년 1월	남삼식	경남 거창	성동고	고려대 법대	30
	2009년 8월	정용수	경남 거창	경북영동고	서울대 법대	31
	2010년 8월	장호중	서울	장충고	서울대 법대	31
형사3부장	2008	서상희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1월	정용수	경남 거창	경북영동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8월	김승식	충남 당진	관악고	고려대 법대	31
	2010년 8월	백종우	서울	신일고	연세대 법대	32
형사4부장	2008년	이중재	서울	용산고	한양대 법대	32
	2009년 1월	정재봉	서울	서라벌고	성균관대 법대	32
	2009년 8월	김봉석	경남 고성	진주고	서울대 법대	33
	2010년 8월	최정숙	경남 진주	진주여고	이화여대 법대	33
형사5부장	2008년	홍순보	경남 함안	마산 경상고	고려대 법대	32
	2009년 1월	김봉석	경남 고성	진주고	서울대 법대	33
	2009년 8월	강경원	경북 영주	영주 중앙고	한양대 법대	33
	2010년 8월	정용진	대전	오산고	고려대 법대	33
공판부장	2008년	이태한	부산	경남고	고려대 법대	33
	2009년 1월	김 철	서울	광주고	서울대 법대	34
	2009년 8월	김도읍	부산	부산동고	동아대 법대	35
	2010년 8월	유 혁	서울	서울 선정고	서울대 전자공	36
공안부장	2008년	민영선	서울	서울고	건국대 법대	31
	2009년 1월	김승식	충남 당진	관악고	고려대 법대	31
	2009년 8월	임석필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대	33
	2010년 8월	최인호	인천	인천 부평고	서울대 법대	34
특수부장	2008년	최세훈	부산	부산남고	서울대 법대	32
	2009년 1월	배성범	경남 창원	마산고	서울대 법대	33
	2009년 8월	차맹기	경남 밀양	창원고	서울대 법대	34
	2010년 8월	김재구	강원 인제	경문고	서울시립 법대	34
강력부장	2008년	김희종	경남 산청	진주기계공고	부산대 법대	33
	2009년 1월	안성욱	경남 김해	성남서고	고려대 법대	33
	2009년 8월	박성진	부산	동성고	한양대 법대	34
	2010년 8월	양호산	전남 강진	광주 금호고	고려대 법대	35
외사부장	2008년					
	2009년 1월	김현채	서울	대원고	연세대 법대	33
	2009년 8월	박성동	경남 진주	동성고	경찰대 행정학	34
	2010년 8월	김도읍	부산	부산동고	동아대 법대	35
부산동부 지청장	2008년	이건중	서울	-	서울대 법대	25
	2009년 1월	임권수	전남 화순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26

부산동부지청 차장	2009년 8월	정대표	대구	경북고	성균관대 법대	27
	2010년 8월	김해수	경남 합천	대구고	고려대 법대	28
	2008년	김종로	경남 밀양	경남 세종고	부산대 법대	27
	2009년 1월	최해중	경남 김해	대광고	성균관대 법대	28
	2009년 8월	염동신	광주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30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장	2010년 8월	김태영	경남 마산	마산고	서울대 법대	30
	2008년	방봉혁	전북 장수	전주고	고려대 법대	31
	2009년 1월	박형수	경북 울진	영진고	서울대 법대	32
	2009년 8월	박형수	경북 울진	영진고	서울대 법대	32
부산동부지청 형사2부장	2010년 8월	이석우	경북 상주	대구 영남고	서울대 법대	33
	2008년	손준호	경북 의성	경북고	연세대 법대	32
	2009년 1월	강경원	경북 영주	영주 중앙고	한양대 법대	33
	2009년 8월	박찬일	서울	경성고	고려대 법대	34
부산동부지청 형사3부장	2010년 8월	서흥기	경기 평택	평택고	성균관대 법대	34
	2008년	박규은	대구	경기고	서울대 법대	33
	2009년 1월	박장우	충북 충주	상문고	서울대 법대	34
	2009년 8월	곽규택	부산	해광고	서울대 법대	35
2010년 8월	고민석	대구	대구 대륜고	서울대 법대	35	
울산지검						
차장	2008년	임정혁	서울	중앙고	서울대 법대	26
	2009년 1월	정대표	대구	경북고	성균관대 법대	27
	2009년 8월	박민표	인천	인창고	서울대 법대	28
	2010년 8월	이건태	전남 영암	광주 제일고	고려대 법대	29
형사1부장	2008년	손영재	경북 경산	성서고	서울대 법대	29
	2009년 1월	강길주	전남 신안	조선대부고	고려대 법대	30
	2009년 8월	이형철	부산	해운대고	서울대 법대	31
	2010년 8월	이종근	경기 파주	경기고	서강대 경제학	32
형사2부장	2008년	강길주	전남 신안	조선대 부고	고려대 법대	30
	2009년 1월	홍종호	경북 군위	대구성광고	성균관대 법대	31
	2009년 8월	유원근	강원 춘천	대성고	서울대 법대	32
	2010년 8월	고병민	경남 진주	진주 대아고	고려대 법대	33
공안부장	2008년	이정회	경북 상주	대구 계성고	서울대 법대	33
	2009년 1월	변창훈	경북 예천	대구 심인고	서울대 법대	33
	2009년 8월	최성남	강원 춘천	강원사대부고	서울대 법대	34
	2010년 8월	백용하	서울	서울고	서울대 법대	35
특수부장	2008년	김봉석	경남 고성	진주고	서울대 법대	33
	2009년 1월	이태한	부산	경남고	고려대 법대	33
	2009년 8월	최정운	울산	울산 학성고	서울대 법대	34
	2010년 8월	서영민	경남 창원	창원 경상고	고려대 법대	35
창원지검						
차장	2008년	김헌정	부산	부산 대동고	서울대 법대	26
	2009년 1월	한승철	광주	광주고	서울대 법대	27
	2009년 8월	서범정	대구	거제 중앙고	고려대 법대	28
	2010년 8월	곽규홍	충남	여의도고	고려대 법대	29
형사1부장	2008년	방철수	전북 남원	전라고	고려대 법대	29
	2009년 1월	김용주	울산	금성고	부산대 법대	30
	2009년 8월	김태광	충남 예산	예산고	서울대 법대	31
	2010년 8월	백성근	경남 진주	진주고	동아대 법대	32
형사2부장	2008년	김성은	경남 창원	마산고	성균관대 법대	32
	2009년 1월	정용진	대전	오산고	고려대 법대	33
	2009년 8월	서흥기	경기 평택	평택고	성균관대 법대	34
	2010년 8월	이광민	서울	동성고	고려대 법대	33

공안부장	2008년	임석필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대	33
	2009년 1월	오자성	대구	대구 영신고	성균관대 법대	33
	2009년 8월	윤영준	부산	해동고	고려대 법대	34
	2010년 8월	이종구	충북 제천	충북 제천고	한양대 법대	35
특수부장	2008년	안상훈	강원 철원	성남고	연세대 법대	33
	2009년 1월	한동영	전북 순창	전주고	성균관대 법대	33
	2009년 8월	한상진	충남 부여	공주사대부고	한양대 법대	34
	2010년 8월	이성희	충남 홍성	홍성고	고려대 법대	35
공판송무 부장	2008년					
	2009년 1월	박찬일	서울	경성고	고려대 법대	34
	2009년 8월	황순철	대구	대구 성광고	경북대 법대	35
	2010년 8월	김관정	경북 명주	대구 영진고	고려대 법대	36
진주지청장	2008년	조주태	경남 남해	진주고	한국외대 법대	28
	2009년 1월	정의식	경기 여주	수원고	서울대 법대	29
	2009년 8월	구본진	서울	세종고	서울대 법대	30
	2010년 8월	이혁	전북 무주	경희고	고려대 법대	30
통영지청장	2008년	이석수	서울	상문고	서울대 법대	28
	2009년 1월	홍효식	서울	성동고	고려대 법대	29
	2009년 8월	정점식	경남 고성	경상고	서울대 법대	30
	2010년 8월	염동신	광주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30
밀양지청장	2008년	김주원	경남 창원	경북고	서울대 법대	33
	2009년 1월	이종철	경남 마산	마산고	서울대 법대	34
	2009년 8월	이종철	경남 마산	마산고	서울대 법대	34
	2010년 8월	이종철	경남 마산	마산고	서울대 법대	34
거창지청장	2008년	백종우	서울	신일고	연세대 법대	32
	2009년 1월	여환섭	경북 김천	김천고	연세대 법대	34
	2009년 8월	여환섭	경북 김천	김천고	연세대 법대	34
	2010년 8월	김후곤	경남 남해	경동고	동국대 법대	35
광주지검						
형사1부장	2008년	박환용	전북 남원	전주고	서울대 사회교	28
	2009년 1월	최상철	충북 진천	세광고	서울대 법대	29
	2009년 8월	최상철	충북 진천	세광고	서울대 법대	29
	2010년 8월	이재구	충남 홍성	홍성고	연세대 법대	30
형사2부장	2008년	박재권	경기 안산	동인천고	한양대 법대	29
	2009년 1월	김경석	광주	광주고	전남대 법대	30
	2009년 8월	김경석	광주	광주고	전남대 법대	30
	2010년 8월	강신엽	경북 안동	안동고	한양대 법대	31
형사3부장	2008년	양부남	전남 담양	담양공고	전남대 법대	32
	2009년 1월	김성진	대구 달성	대구 대건고	고려대 법대	32
	2009년 8월	김중휘	경북 안동	안동고	한양대 법대	32
	2010년 8월	유원근	강원 춘천	대성고	서울대 법대	32
공안부장	2008년	오인서	서울	동성고	고려대 법대	33
	2009년 1월	김성렬	전남 함평	-	단국대 법대	33
	2009년 8월	김영규	전남 담양	인성고	고려대 법대	34
	2010년 8월	김형렬	전남 곡성	광주 송원고	서울대 법대	35
특수부장	2008년	이성윤	전북 무주	전주고	경희대 법대	33
	2009년 1월	최길수	경기 파주	명지고	서울대 법대	33
	2009년 8월	김재구	강원 인제	경문고	서울시립 법대	34
	2010년 8월	김호경	서울	용산고	한국외대 법대	35
강력부장	2008년	송삼현	전남 고흥	순천고	한양대 법대	33
	2009년 1월	조남관	전북 전주	전주고	서울대 법대	34
	2009년 8월	김철	서울	광주고	서울대 법대	34

	2010년 8월	심재천	서울	신일고	고려대 법대	35
공판부장	2008년	이광민	서울	동성고	고려대 법대	33
	2009년 1월	김영규	전남 담양	인성고	고려대 법대	34
	2009년 8월	이종환	강원 정선	문일고	고려대 법대	35
	2010년 8월	노상길	부산	부산 대동고	부산대 법대	36
목포지청장	2008년	박민표	인천	인창고	서울대 법대	28
	2009년 1월	김하중	전남 담양	사레지오고	고려대 법대	29
	2009년 8월	김하중	전남 담양	사레지오고	고려대 법대	29
	2010년 8월	김진수	충북 옥천	남대전고	서울대 법대	30
장흥지청장	2008년	김창회	서울	경기고	연세대 법대	32
	2009년 1월	김태철	전북 부안	전주 해성고	한양대 법대	34
	2009년 8월	김태철	전북 부안	전주 해성고	한양대 법대	34
	2010년 8월	황의수	경북 의성	달성고	고려대 법대	35
순천지청장	2008년	이경재	대전	대전고	고려대 법대	26
	2009년 1월	차동언	울산	경기고	서울대 법대	27
	2009년 8월	조주태	경남 남해	진주고	한국외대 법대	28
	2010년 8월	강인철	경남 하동	홍대부속고	고려대 법대	28
순천지청 차장	2008년	조상수	서울	경성고	고려대 법대	28
	2009년 1월	임채원	대구	서울고	고려대 법대	29
	2009년 8월	김희재	전남 여천	순천고	연세대 법대	30
	2010년 8월					
해남지청장	2008년	이석환	광주	광주 송일고	고려대 법대	31
	2009년 1월	문찬석	전남 영광	경기고	성균관대 법대	34
	2009년 8월	문찬석	전남 영광	경기고	성균관대 법대	34
	2010년 8월	권순범	서울	상문고	고려대 법대	35
전주지검						
차장	2008년	이건리	전남 함평	전주고	서울대 법대	26
	2009년 1월	정윤기	전남광양	순천고	전남대 법대	27
	2009년 8월	이석수	서울	상문고	서울대 법대	28
	2010년 8월	정의식	경기 여주	수원고	서울대 법대	29
1부장	2008년	이광진	서울	용산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1월	정인균	전북 순창	전주고	한양대 법대	31
	2009년 8월	하충현	경남 창녕	배명고	한양대 법대	33
	2010년 8월	이일권	경북 경주	동천고	연세대 법대	33
2부장	2008년	이광진	서울	용산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1월	윤영준	부산	해동고	고려대 법대	34
	2009년 8월	김신환	전북 전주	경신고	경희대 법대	35
	2010년 8월	유일석	부산	경남고	서울대 법대	34
3부장	2010년 8월	김용정	충남 논산	대전 보문고	서울대 법대	35
군산지청장	2008년	김종률	전남 순천	순천고	서울대 법대	26
	2009년 1월	이은중	강원 춘천	춘천고	서울대 법대	27
	2009년 8월	이의경	경북 예천	대구 대륜고	고려대 법대	28
	2010년 8월	신동현	전남 해남	광주 대동고	고려대 법대	29
정읍지청장	2008년	박형관	전남 보성	광주 광덕고	서울대 법대	32
	2009년 1월	이진우	전남 영광	광주 동신고	한국외대 법대	23
	2009년 8월	이진우	전남 영광	광주 동신고	한국외대 법대	23
	2010년 8월	김 훈	경북 영천	대구 영신고	서울대 법대	34
남원지청장	2008년	고기영	광주	광주 인성고	서울대 법대	33
	2009년 1월	이형택	전북 고창	전주 영생고	고려대 법대	34
	2009년 8월	이형택	전북 고창	전주 영생고	고려대 법대	34
	2010년 8월	장영섭	경북 영주	영주 영광고	연세대 법대	35
제주지검						

차장	2008년	손기호	부산	부산 해동고	서울대 법대	27
	2009년 1월	박민표	인천	인창고	서울대 법대	28
	2009년 8월	이건태	전남 영암	광주 제일고	고려대 법대	29
	2010년 8월	김주선	강원 속초	강릉고	단국대 법대	29
1부장	2008년	임진섭	경남 창원	광성고	서울대 법대	32
	2009년 1월	고병민	경남 진주	진주대아고	고려대 법대	33
	2009년 8월	유일석	부산	경남고	서울대 법대	34
	2010년 8월	박찬일	서울	경성고	고려대 법대	34
2부장	2008년	이승한	서울	여의도고	고려대 법대	33
	2009년 1월	유일석	부산	경남고	서울대 법대	34
	2009년 8월	김호경	서울	용산고	한국외대 법대	35
	2010년 8월	김연곤	부산	부산 배정고	서울대 법대	34

주 : 2011년 2월 고검 검사급 중간간부 인사 대상자(전보 5명 중 2명 : 박경춘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 서봉규 청주지검 영동지청장)는 별도로 표시했으며, 다른 직책의 경우는 2010년 8월 당시 검사가 그대로 해당 직책을 맡고 있음. 단, 일부 퇴직한 검사들이 있을 수 있음).

5. 2008 ~ 2009년 주요 수사 관련부서 인사

앞서 고검장급·검사장급·중간간부급 인사 명단을 정리한 바 있다. 이 중 사회적으로 주요한 관심을 받는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명단을 따로 정리하였는데, 대검 중앙수사부와 공안부, 서울중앙지검 형사1~8부, 공안1,2부, 특수1~3부 등이다.

1)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직책/ 인사시점	이름	출신지	출신고	출신 대학	사시 회수	이전 직책	이후 직책
대검 중앙수사부장							
2008년	박용석	경북 군위	경북고	서울대 법대	23	청주지검장(2007)	부산지검장- 법무연수원장
2009년 1월	이인규	경기 용인	경동고	서울대 법대	24	대검 기획조정부장 (2008)	사직
2009년 8월	김홍일	충남 예산	예산고	충남대 법대	24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20 09.1)	-
2010년 7월	김홍일	충남 예산	예산고	충남대 법대	24	대검 중앙수사부장 (유임)	-
2011년 2월	김홍일	충남 예산	예산고	충남대 법대	24	대검 중앙수사부장 (유임)	-
대검 수사기획관							
2008년	최재경	경남 산청	대구고	서울대 법대	27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중앙3차 장-법무부 기조실장
2009년 1월	홍만표	강원 삼척	대일고	성균관 대 법대	27	법무부 대변인	서울고검 송무부장
2009년 8월	이창재	서울	환일고	서울대 법대	29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서울남부차장
2010년 8월	우병우	경북 봉화	영주고	서울대 법대	29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
2011년 2월	우병우	경북 봉화	영주고	서울대 법대	29	대검 수사기획관(유임)	-
대검 중앙수사1과장							
2008년	박경호	충북 보은	서대전 고	연세대 법대	29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평택지청장- 대검과학수사 기획관
2009년 1월	우병우	경북 봉화	영주고	서울대 법대	29	서울중앙 금융조세조사2부장	대검범죄정보 기획관
2009년	노승권	대구	대구	서울대	31	서울중앙	-

8월			심인고	법대		첨단범죄수사2부장	
2010년 8월	노승권	대구	대구 심인고	서울대 법대	31	대검 중앙수사1과장(유임)	-
2011년 2월	노승권	대구	대구 심인고	서울대 법대	31	대검 중앙수사1과장(유임)	-
대검 중앙수사2과장							
2008년	박정식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30	인천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 특수2부장-포항지청장
2009년 1월	이석환	광주	광주 송일고	고려대 법대	31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
2009년 8월	이석환	광주	광주 송일고	고려대 법대	31	대검 중앙수사2과장(유임)	서울중앙금융 조세조사1부장
2010년 8월	윤석열	서울	충암고	서울대 법대	33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
2011년 2월	윤석열	서울	충암고	서울대 법대	33	대검 중앙수사2과장(유임)	-

2) 대검찰청 공안부

직책/ 인사시점	이름	출신지	출신고	출신대학	사시 회수	이전 직책	이후 직책
대검 공안부장							
2008년	박한철	부산	제물포고	서울대 법대	23	삼성비자금특별수사 본부장(2007)	대구지검장-서울동부지검장
2009년 1월	노환균	경북 상주	대건고	고려대 법대	24	울산지검장(2008)	서울중앙지검장
2009년 8월	신종대	서울	대일고	서울대 법대	23	춘천지검장(2009.1)-부산지검1차장(2008)	-
2010년 7월	신종대	서울	대일고	서울대 법대	14	대검 공안부장(유임)	-
2011년 2월	신종대	서울	대일고	서울대 법대	14	대검 공안부장(유임)	-
대검 공안기획관							
2008년	김희관	전북 익산	전주고	서울대 법대	27	서울중앙지검형사1부장	서울중앙2차장-대전지검차장
2009년 1월	오세인	강원 양양	강릉고	서울대 법대	28	대검 대변인	서울중앙2차장
2009년 8월	봉 옥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29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
2010년 8월	이영만	전남 화순	검정고시	서울대 국문학	30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

2011년 2월	이영만	전남 화순	검정고 시	서울대 국문학	30	대검 공안기획관(유임)	-
대검 공안1과장							
2008년	정점식	경남 고성	경상고	서울대 법대	30	대검 공안2과장	서울중앙공안 1부장-통영지 청장
2009년 1월	이진한	경기 화성	영등포 고	고려대 법대	31	대검 공안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2009년 8월	김창희	서울	영일고	서울대 법대	32	대검 공안2과장	-
2010년 8월	이정희	경북 상주	대구 계성고	서울대 법대	33	대검 공안2과장	-
2011년 2월	이정희	경북 상주	대구 계성고	서울대 법대	33	대검 공안1과장(유임)	-
대검 공안2과장							
2008년	이진한	경기 화성	영등포 고	고려대 법대	31	인천지검 부부장(법제처 파견)	대검 공안1과장
2009년 1월	김창희	서울	영일고	서울대 법대	32	대검 피해자인권과장	대검 공안2과장
2009년 8월	이정희	경북 상주	대구 계성고	서울대 법대	33	대구지검 공안부장	-
2010년 8월	최성남	강원 춘천	강원사 대부고	서울대 법대	34	울산지검 공안부장	-
2011년 2월	최성남	강원 춘천	강원사 대부고	서울대 법대	34	대검 공안2과장(유임)	-
대검 공안3과장							
2009년 3월	고기영	광주	광주 인성고	서울대 법대	33	남원지청장	-
2010년 8월	김영규	전남 담양	광주 인성고	고려대 법대	34	광주지검 부장검사	-
2011년 2월	김영규	전남 담양	광주 인성고	고려대 법대	34	대검 공안3과장(유임)	-

3) 일반 형사사건 담당 서울중앙지검 1차장 산하

직책/ 인사시점	이름	출신지	출신고	출신 대학	사시 회수	이전 직책	이후 직책
서울중앙지검 1차장							
2008년	최교일	경북 영주	경북고	고려대 법대	25	수원지검 1차장(2007)	서울고검차 장-법무부 검찰국장
2009년	정병두	경남	부산동	서울대	26	수원지검	춘천지검장

1월		하동	고	법대		1차장(2008)	
2009년 8월	신경식	서울	고려고	서울대 법대	26	수원지검 1차장(2009.1)-대검 미래기획단장(2007)	-
2010년 7월	신경식	서울	고려고	서울대 법대	26	서울중앙지검 1차장(유임)	-
2011년 2월	신경식	서울	고려고	서울대 법대	26	서울중앙지검 1차장(유임)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2008년	김주현	서울	서라벌 고	서울대 법대	28	법무부 검찰과장	법무부대변 인-서울중앙 3차장
2009년 1월	이창재	서울	환일고	서울대 법대	29	법무부 검찰과장	대검 수사기획관
2009년 8월	오정돈	서울	성동고	서울대 법대	30	법무부 법무심의관	-
2010년 8월	신유철	경기 김포	장훈고	서울대 법대	28	법무부 검찰과장	-
2011년 2월	신유철	경기 김포	장훈고	서울대 법대	28	서울중앙형사1부장 (유임)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2008년	임수빈	서울	장충고	서울대 법대	29	대검 공안1과장	사직
2009년 1월	이건태	전남 영암	광주 제일고	고려대 법대	29	법무부 법무심의관	제주지검 차장
2009년 8월	안상돈	경북 김천	우신고	고려대 법대	30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대구지검 2차장
2010년 8월	김 창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31	대검 감찰과장	-
2011년 2월	김 창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31	서울중앙형사2부장 (유임)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2008년	조은석	전남 장성	광덕고	고려대 법대	29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대검 대변인
2009년 1월	안상돈	경북 김천	우신고	고려대 법대	30	대검 형사1과장	서울중앙형 사2부장
2009년 8월	허상구	부산	부산동 고	부산대 법대	31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대전지검 형사2부장
2010년 8월	이기석	경북 칠곡	경북고	서울대 법대	32	서울중앙총무부장(20 09.8)-인천지검형사 5부장(2009.1)	-
2011년 2월	이기석	경북 칠곡	경북고	서울대 법대	32	서울중앙형사3부장(유임)	-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2008년	지익상	전북 김제	전주고	연세대 법대	29	서울북부지검형사3부 장	원주지청장- 인천지검2차 장
2009년	이금로	충북	청주신	고려대	30	법무부	서울고검

1월		괴산	흥고	법대		공공형사과장	검사
2009년 8월	백기봉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대	31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010년 8월	박 철	서울	성남고	서울대 법대	32	법무부 법질서담당관(2009. 1)	-
2011년 2월	박 철	서울	성남고	서울대 법대	32	서울중앙형사4부장 (유임)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2008년	김하중	전남 담양	사례지 오고	고려대 법대	29	서울중앙지검총무부 장	목포지청장
2009년 1월	염동신	광주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30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	부산동부지 청 차장
2009년 8월	박균택	광주	대동고	서울대 법대	31	대검 형사1과장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2010년 8월	이명순	강원 춘천	춘천고	서울대 법대	32	대검 형사1과장	-
2011년 2월	이명순	강원 춘천	춘천고	서울대 법대	32	유임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2008년	황철규	서울	명지고	서울대 법대	29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대검 미래기획단 장
2009년 1월	전현준	대구	화곡고	서울대 법대	30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서울중앙금 융조세조사1 부장
2009년 8월	장호중	서울	장충고	서울대 법대	31	대검 정책기획과장	부산지검 형사2부장
2010년 8월	차경환	서울	단대부 고	서울대 법대	32	대검 정책기획과장	-
2011년 2월	차경환	서울	단대부 고	서울대 법대	32	유임	-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2008년	조희진	충남 예산	성신여 고	고려대 법대	29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서울고검 검사-고양지 청차장
2009년 1월	김청현	부산	경남고	서울대 법대	30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수원지검 형사1부장
2009년 8월	이 옥	전남 고흥	사례지 오여고	고려대 법대	31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사직
2010년 8월	김창희	서울	영일고	서울대 법대	32	대검 공안1과장	-
2011년 2월	김창희	서울	영일고	서울대 법대	32	유임	-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2008년	정의식	경기 여주	수원고	서울대 법대	29	대검 감찰2과장	진주시청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2009년 1월	김태영	경남 마산	마산고	서울대 법대	30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충주지청장
2009년 8월	김학석	경북 경주	경주고	고려대 법대	31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	-
2010년 8월	박용호	경남 밀양	밀양고	한양대 법대	32	서울중앙공판2부장	-
2011년 2월	박용호	경남 밀양	밀양고	한양대 법대	32	유임	-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2008년	박은석	충북 청원	세광고	서울대 법대	30	법무부 국제법무부과장	법무연수원 교수-법무부 정책기획단 장
2009년 1월	최종원	경북 상주	경북고	연세대 법대	31	인천지검 특수부장	법무연수원 교수
2009년 8월	손준호	경북 의성	경북고	연세대 법대	32	안산지청 3부장	법무연수원 교수
2010년 8월	배성범	경남 창원	마산고	서울대 법대	33	서울남부지검형사6부 장	-
2011년 2월	배성범	경남 창원	마산고	서울대 법대	33	유임	-

4) 선거 및 공안 사건 담당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

직책/ 인사시점	이름	출신지	출신고	출신대 학	사시 회수	이전 직책	이후 직책
서울중앙지검 2차장							
2008년	국민수	대전	대신고	서울대 법대	26	수원지검 2차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대검기획조 정부장
2009년 1월	김희관	전북 익산	전주고	서울대 법대	27	대검 공안기획관	대전지검 차장
2009년 8월	오세인	강원 양양	강릉고	서울대 법대	28	대검 공안기획관	부산고검 검사
2010년 8월	공상훈	대구	대구고	서울대 법대	29	서울고검검사(국정원 파견)	-
2011년 2월	공상훈	대구	대구고	서울대 법대	29	유임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2008년	공상훈	대구	대구고	서울대 법대	29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서울고검 검사(국정원 파견)
2009년	정점식	경남	경상고	서울대	30	대검 공안1과장	통영지청장

1월		고성		법대			
2009년 8월	이진한	경기 화성	영등포고	고려대 법대	31	대검 공안1과장	-
2010년 8월	이진한	경기 화성	영등포고	고려대 법대	31	유임	-
2011년 2월	이진한	경기 화성	영등포고	고려대 법대	31	유임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2008년	이영만	전남 화순	검정고시	서울대 국문학	30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대검감찰1과장-평택지청장
2009년 1월	윤웅결	전남 해남	영등포고	고려대 법대	31	수원지검 공안부장	법무연수원 교수
2009년 8월	유호근	경북 안동	경기고	서울대 법대	32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수원지검 형사3부장
2010년 8월	안병익	강원 횡성	원주고	서울대 법대	32	법무부 법무과장	-
2011년 2월	안병익	강원 횡성	원주고	서울대 법대	32	유임	-
서울중앙지검 외사부(2009.12.31이전 3차장 산하)							
2008년	이홍재	서울	중동고	고려대 법대	29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2007.3)	서울고검검사-사임
2009년 1월	황인규	서울	대성고	서울대 법대	30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서산지청장
2009년 8월	함윤근	서울	영동고	고려대 법대	31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사임
2010년 8월	김석우	전북 임실	완산고	전북대 법대	31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	-
2011년 2월	김석우	전북 임실	완산고	전북대 법대	31	유임	-

5) 기업범죄 및 특수 사건 담당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직책/인사시점	이름	출신지	출신고	출신대학	사시회수	이전 직책	이후 직책
서울중앙지검 3차장							
2008년	김수남	대구	대구 청구고	서울대 법대	26	인천지검 2차장	법무부 기초실장-청주지검장
2009년 1월	최재경	경남 산청	대구고	서울대 법대	27	대검수사기획관	법무부 기초실장
2009년	김주현	서울	서라벌	서울대	28	법무부 대변인	수원지검

8월			고	법대			안양지청장
2010년 8월	윤갑근	충북 청주	청주고	성균관 대 법대	29	수원지검2차장	-
2011년 2월	윤갑근	충북 청주	청주고	성균관 대 법대	29	유임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2008년	문무일	광주	광주 제일고	고려대 법대	28	대검 중수1과장	수원지검2차 장-인천지검1 차장
2009년 1월	김오수	전남 영광	광주대 동고	서울대 법대	30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원주지청장
2009년 8월	김기동	경남 진주	부산해 광고	서울대 법대	31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
2010년 8월	이동열	경기 안양	안양 신성고	연세대 법대	32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
2011년 2월	이동열	경기 안양	안양 신성고	연세대 법대	32	유임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2008년	윤갑근	충북 청원	청주고	성균관 대 법대	29	법무부 보호기획과장	충주지청장- 수원지검2차 장
2009년 1월	박정식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30	대검 중수2과장	포항지청장
2009년 8월	권오성	경북 칠곡	영남고	경북대 법대	32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장	인천지검 형사 3부장
2010년 8월	최윤수	경북 금릉	부산 내성고	서울대 법대	31	대검 조직범죄과장	-
2011년 2월	최윤수	경북 금릉	부산 내성고	서울대 법대	31	유임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2008년	김광준	경북 경주	대구 영신고	서울대 법대	30	부산지검 특수부장	서울동부형사 1부장-대구서 부지청차장
2009년 1월	김기동	경남 진주	부산해 광고	서울대 법대	31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서울중앙특수 1부장
2009년 8월	양부남	전남 담양	담양공 고	전남대 법대	31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법무연수원 교수
2010년 8월	송삼현	전남 고흥	순천고	한양대 법대	33	수원지검특수부장	-
2011년 2월	송삼현	전남 고흥	순천고	한양대 법대	33	유임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2008년	봉 욱	서울	여의도 고	서울대	29	대검 혁신기획과장	여주지청장- 대검 공안기획관
2009년 1월	김강욱	경북 안동	경북고	서울대 법대	29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법무부 대변인

2009년 8월	전현준	대구	화곡고	서울대 법대	30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대검범죄정보 기획관
2010년 8월	이석환	광주	광주 송일고	고려대 법대	31	대검 중수2과장	-
2011년 2월	이석환	광주	광주 송일고	고려대 법대	31	유임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2008년	우병우	경북 봉화	영주고	서울대 법대	29	서울중앙지검부장	대검 중수1과장-대검범죄정보기획관
2009년 1월	안태근	경남 함안	영동고	서울대 법대	30	대검 정책기획과장	여주지청장
2009년 8월	진경준	전남 목포	환일고	서울대 법대	33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부산지검형사1부장
2010년 8월	이성운	전북 무주	전주고	경희대 법대	33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
2011년 2월	이성운	전북 무주	전주고	경희대 법대	33	유임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장							
2009년 1월	박진만	서울	경희고	서울대 법대	31	수원지검 특수부장	서울서부형사2부장
2009년 8월	유상범	강원 영월	경기고	서울대 법대	31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대구지검형사1부장
2010년 8월	이중희	충북 괴산	강릉고	고려대 법대	33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
2011년 2월	이중희	충북 괴산	강릉고	고려대 법대	33	유임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2009.1.이전 첨단범죄수사부)							
2008년	구본진	서울	세종고	서울대 법대	30	대검정보통신과장	법무연수원 교수-진주지청장
2009년 1월	이혁	전북 무주	경희고	고려대 법대	30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인천지검 형사1부장
2009년 8월	한찬식	서울	성남고	서울대 법대	31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	대검 대변인
2010년 8월	이천세	충남 논산	배문고	서울대 경제학	32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
2011년 2월	이천세	충남 논산	배문고	서울대 경제학	32	유임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2009.1. 신설)							
2009년 1월	노승권	대구	대구심인고	서울대 법대	31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대검 중수1과장
2009년 8월	위재천	전남 장흥	대동고	전남대 법대	31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010년 8월	김영대	경북 청송	영남고	경북대 법대	32	대검 정보통신과장	-

2011년 2월	김영대	경북 청송	영남고	경북대 법대	32	유임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2009.12.31이전 마약·조직범죄수사부)							
2008년	김주선	강원 속초	강릉고	단국대 법대	29	대검 조직범죄과장(2007. 3)	강릉지청장- 부천지청 차장
2009년 1월	이두식	충남 당진	천안고	단국대 법대	31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법무연수원 교수
2009년 8월	김영진	경북 안동	경희고	고려대 법대	31	대검 조직범죄과장	법무부 대변인
2010년 8월	김희준	전남 함평	광주 석산고	전남대 법대	32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
2011년 2월	김희준	전남 함평	광주 석산고	전남대 법대	32	유임	-

6. 2008 ~ 2010년 법무부 주요 직책 보직자들

- 법무부의 주요 직책은 국실장급인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그리고 과장급 가운데 요직이라고 평가되는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 공안기획과장(공공형사과장), 법무부 대변인, 그리고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신설된 법질서담당관(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 등 모두 10개 직책이다.
- 이들 주요 직책을 맡은 검사들이 '법무부 주요 직책을 거친 후 어떤 직책으로 옮겼는지', 또 이들 주요 직책 검사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 약진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대구경북(TK)지역 출신과 고려대 출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명박 정부 법무부 주요 10개 직책 담당자 중 대구경북 또는 고려대 출신 현황

인사시점	법무부 주요 직책	검사	지연/학연
2008년	법무실장	한상대	고려대
	범죄예방정책국장	박기준	경북고
	감찰관	곽상욱	고려대
	공공형사과장	이금로	고려대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	백방준	고려대
2009년 1월	검찰국장	한상대	고려대
	기획조정실장	김수남	대구
	감찰관	곽상욱	고려대
	공공형사과장	이상호	고려대
2009년 8월	검찰국장	최교일	고려대
	기획조정실장	최재경	대구고
	공안기획과장	이상호	고려대
	대변인	김강욱	경북 안동, 경북고
2010년 8월, 2011년 2월	검찰국장	최교일	고려대
	범죄예방정책국장	김수남	대구
	대변인	김영진	경북 안동, 고려대

이명박 정부 들어 2011년 2월까지 다섯 차례의 검찰인사가 있었는데, 이들 법무부의 10개 주요 직책에는 총 32명이 임명되었고, 그 중 11명이 대구경북 또는 고려대 출신이다(중복된 경우는 제외).

- 그런데 이명박 정부 이전인 2006년과 2007년 두 해 동안 이들 주요 직책(2008년에 신설된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 직책 제외 총 9개 직책)에 임명된 사람이 16명이었는데 그 중 대구 경북 또는 고려대 출신 비중은 3명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대통령 또는 현 집권세력과 가까운 지연(대구경북)과 학연(고려대)을 가진 검사들의 비중이 대폭 늘었다는 사실이 쉽게 확인된다.

**이명박 정부 직전 2년 법무부 주요 10개 직책 담당자 중
대구경북 또는 고려대 출신 현황 (2006 ~ 2007년)**

인사시점	법무부 주요 직책	검사	지연/학연
2006년 2,3월	홍보관리관	김수남	대구, 청구고
2007년 3월	법무실장	한상대	고려대
	보호국장	이상도	경북 영일, 대구고

3부. 2010년 검찰 주요 수사

3부는 2010년 검찰이 처리한 주요 수사를 요약·정리¹⁹⁾했다. 2010년 검찰이 다룬 수사 중에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은 사건을 중심으로, ▲국가 권력기관 관련 수사 ▲권력형 비리 수사 ▲정부정책 비판세력 관련 수사 ▲기업 및 금융관련 수사 ▲기타 수사를 그 범주로 하였다.

각각의 수사에 대해서는 △사건 개요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수사경과 및 결과 △재판경과 및 결과 △약평을 정리하였다.

○ 국가 권력기관 관련 수사

1.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2. 그랜저검사 수사
3. 스폰서검사 감찰
4. 조현오 경찰청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 권력형 비리 수사

- ▷ 현 정권 관련
5.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로비 수사

19) 2008과 2009년 주요수사는 2010년 3월 발간한 '이명박 정부 2년 검찰 보고서' 참조

6. '함바 비리' 관련 정·관계 의혹 수사

▷ 전 정권 관련

7.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위반 수사

○ 정부정책 비판세력 관련 수사

8. 4대강사업·무상급식 관련 선거법위반 수사·기소

9.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선거법위반 수사

10. 천안함·연평도 사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수사

11. G20포스터 낙서 수사

○ 기업 및 금융관련 수사

12. 신한금융지주그룹 수사

13. 이건희 회장 2천억 반환한 삼성에버랜드·SDS 수사

14. 태광그룹 수사

15. 한화그룹 수사

○ 기타 수사

16. 상지대 관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고발사건 수사

17.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 고발사건 수사

18. 공정택 전 교육감 뇌물수수 수사

국가 권력기관 관련 수사

1.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1) 사건 개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민간기업 회계자료 등을 압수수색하였으며, 사직을 강요하고, 불법적 행위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경찰서에 수사의뢰 하는 등 월권적·초법적 행위를 저지름. 검찰 수사과정에서 여권 국회의원까지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불법사찰의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청와대 행정관 등이 개입하여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등 조직적인 수사방해가 일어났으나 검찰은 실무자를 기소하는 수준에서 수사를 마무리하였음.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노환균 지검장 - 신경식 1차장 (총괄지휘) - 오정돈 형사1부장(팀장) - 장기석·신자용·최호영·배용찬·박홍주 검사

* 2009년 김종익 씨에 대한 검찰수사·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노환균 지검장 - 신경식 1차장 - 안상돈 부장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09.10.19 검찰, 김종익 씨 기소유예처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2010.6.21 민주당 신건 의원 등,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

2010.7.2~5 총리실 자체조사

2010.7.5 총리실 대검에 수사의뢰. 대검,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배당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구성

2010.7.9 검찰,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압수수색

2010.8.11 검찰,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3명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 “청와대
연관성 찾지 못했다” 수사결과 발표

2010.9.8 검찰,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지원관실 산하) 과장 등 3명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기소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0.11.15 이인규·김충곤·원충연·김화기(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방실수색) 1심유죄²⁰⁾

2010.11.22 진경락·장진수(증거인멸)·권중기(공용물건은닉) 1심유죄²¹⁾

5) 약평

검찰은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총리실 직원 3명을 직권을 남용하여 민간인을 불법사찰
한 혐의 등으로 기소하였으나, 사찰을 지시하고 정기적인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
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은 혐의가 없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함.

그러나 이러한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청와대가 사찰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잇달아 밝혀
지면서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음. 사찰 실무자의 수첩에 ‘BH(청와대) 지시’라는 메모가 수
시로 등장하고, 청와대 비서관이 총리실 직원에게 지급한 대포폰이 불법사찰의 증거를 인
멸하는 과정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미 검찰이 관련 자료
를 검토했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수사는 없다”고 공언하여 ‘꼬리자르기식 수사’라
는 비판을 받음.

2. 그랜저검사 수사

1) 사건 개요

2008년 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부장 검사로 재직했던 정인균이 건설업자 김모 씨로부터

2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정선재 부장판사

21) 서울중앙지법 2010고합1257, 형사합의35부 정선재 부장판사

터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잘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건을 담당했던 후배 검사들에게 “기록을 잘 살펴달라”고 청탁함. 이후 청탁의 대가로 정인균이 김모씨로부터 그랜저 승용차 등 4천6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한 사건 .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노환균 지검장 - 신경식 1차장 - 오정돈 형사1부장(주임검사)

(재수사) 특임검사팀

김준규 검찰총장 - 강찬우 대검 선임연구관(특임검사) - 이선봉(대검), 박철웅(부산지검), 김윤희(성남지청) 검사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09.3.31 정인균(알선수재)·도진호(직권남용·직무유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됨

2010.7. 검찰, 정인균 무혐의 처분

2010.8.2 정인균 검사 사직

2010.10. 사건 언론 보도, 국정감사에서 ‘부실수사’ 지적

2010.11.16 검찰총장, 재수사 지시

2010.12.8 검찰, 정인균 구속기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0.1.28 1심 유죄. 정인균 징역 2년6월²²⁾

5) 약평

검찰은 스폰서검사 파문 이후 자체개혁안으로 검사의 범죄는 관할 검찰청에 맡겨 수사하지 않고 ‘특임검사’를 지명하여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²³⁾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정인균과 도진호 검사에 대한 고발이 들어온 지 15개월여가 지난 2010.7. 이 둘에 대해 무혐의처분하였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정인균에 대해 “청탁이 아닌 차용관계”라며 금품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음. 또 한 번의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수사로 끝날 뻔 했던 사건은 2010.10.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결국 검찰총장이 2010.11. 특임검사를 임명해 재수사를 지시하기에 이룸. 이후 정인균이 건설업자로부터

22) 서울중앙지법 2010고합1614, 2011.1.28 선고. 형사합의23부 홍승면(재판장), 조지환, 황은규 판사

23) 대검찰청 <검찰 개혁 방안> 2010.6.11

1600만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 구속기소함.

1심 법원은 이 사건 판결에서, “검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상급자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상급자로부터 지휘감독 및 업무상 조언을 받기도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정인균은 당시 도진호, 이동현 검사에 대해 부부장검사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음. 이에 따라 정인균이 후배 검사들에게 “조사 없이 바로 처리하지 말고 기록을 잘 검토해 달라” “고소인이 억울하다고 하니 잘 들어봐 달라”라고 말한 것이 “청탁에 따라 위 검사들의 직무인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해 알선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함. 이는 검사가 상급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사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한 판결임.

3. 스폰서검사 감찰

1) 사건 개요

부산·경남지역에서 대형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정용재가 그 지역 검사들 백여 명에게 1984년부터 약 25년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성상납까지 하는 등 이른바 ‘스폰서’로 활동해온 사실에 대해 2010년 4월 20일 MBC PD수첩이 정씨의 인터뷰와 접대사실을 적은 일지 등을 보도하면서 알려진 사건. 그동안 정씨는 이러한 접대사실을 부산지검과 대검 등에 여러 차례 진정했으나 묵살되었으며, 사건이 알려진 뒤에도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감찰만 진행하다 결국 사건을 특검에 송치하였음.

2) 감찰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진상규명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

단장 채동욱(대전고검장) - 팀장 이성운(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 박찬호(서울고검), 김영기(서울중앙지검), 주영환(범죄정보연구원), 이용일(서울중앙지검), 신봉수(고양지청) 검사

3) 감찰 경과 및 결과

2010.4.20 MBC PD 수첩, ‘검사와 스폰서’편 방송

2010.4.22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위촉(성낙인 서울대 교수). 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 감찰 시작

2010.6.9 진상규명위원회, 진상조사결과·제도개선안 발표
검사 10명 징계, 7명 인사조치, 28명 검찰총장 엄중 경고를 권고함

2010.6.29 국회, 특검법 통과

4) 약평

“공익의 대표자로서 부정과 불의에 맞서 범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검사들이 특정업자와 유착되어 각종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방송내용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음.”²⁴⁾ 그러나 검찰은 내부 범죄행위에 대해 스스로 수사하지 않고 감찰이라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자기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여 별도의 수사·기소권을 가진 상설기구(예컨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검찰개혁안이 다시 한 번 제기되었음.

4. 조현오 경찰청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1) 사건 개요

2010년 8월 경찰청장 후보 인사청문회 과정 중,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가 서울경찰청장 재임 중 기동부대 지휘관특강(2010.3.31)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바로 전 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짐.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유족 등이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임.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지검장 노환균 - 1차장 신경식 - 부장 신유철

24) 진상규명위원회, “진상조사결과 : 부산·경남지역 검사 접대의혹 관련” 보도자료(2010.6.9)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0.8.18 노무현 전대통령 유족·노무현재단, 사자명예훼손혐의로 조현오 청장을 검찰에 고소·고발

2010.8.19 검찰, 형사1부에 사건 배당 수사착수

2010.9.5 검찰, 문재인 변호사, 곽상언 변호사(노 전 대통령 사위)에 대해 고소·고발인 조사

2010.12.14 문재인 변호사, 검찰의 늑장수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항의방문

※ 이후 경찰청장에 대한 조사방식이 논란이 되었지만, 현재까지 검찰은 조 청장에 대한 소환 여부 결정하지 않고 수사를 끌고 있음

4) 재판 경과 및 결과

* 현재 수사 중임

5) 약평

조현오 경찰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신분으로 이미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에 대해 수사에 관한 사항을 공개된 장소에서 이야기하였음.

검찰의 잘못된 수사방식이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조 청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따져야 할 검찰이 피고소인인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해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사건을 방기하고 있음.

권력층이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정한 검찰수사가 착수되고 진행되기 어렵다는 사실과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분쟁에 있어서는 적대관계지만 여전히 '가재는 게 편'임을 확인한 사건처리임.

권력형 비리 수사

○ 권력형 비리 : 現 정권 관련 수사

5.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로비 수사

1) 사건 개요

참여정부 때 임명된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2009년 2월 연임된 데 대해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권 실세를 통해 연임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대우조선해양 협력사인 임천공업을 통한 비자금 조성과 이명박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이자 현 정권실세인 천신일 세종나모여행회장 등을 통한 연임로비 등 '권력형 게이트'가 수사의 대상이 되었으나, 대우조선해양과의 연결고리는 밝히지 못한 채 임천공업 대표와 천신일 회장 사이에 이루어진 뇌물수수혐의로만 기소함.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지검장 노환균 - 3차장 윤갑근 - 부장 이동열 - 주임검사 주영환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0.7.초 검찰, 임천공업이 대우조선해양 납품과정에서 비자금 조성한 정황 포착했다고 밝힘

2010.7.말 검찰, 대우조선해양 방문. 임의제출 형식으로 회계자료 등 확보

2010.8.10 검찰, 임천공업 압수수색

2010.8.19 천신일 회장 출국

2010.9.15 검찰,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 구속기소(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2010.10.28 검찰, 천신일 회장 사무실 압수수색

2010.11.30 천신일 회장 귀국

2010.12.3 검찰, 천신일 회장 구속영장 청구 (7일, 법원 영장 발부)

2010.12.23 검찰, 천신일 회장 기소(특가법·특경가법상 알선수재)

4) 재판 경과 및 결과

* 1심 진행 중

5) 약평

천신일 회장은 임천공업 측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47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됨. 검찰수사 결과, 천 회장은 ▲임천공업 계열사인 동운공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대한 워크아웃 조기종결 ▲2007년 이수우 대표 사면 ▲2008년 삼성중공업과의 공유수면 매립분쟁 관련 민원조정 ▲2009년 세무조사 무마 ▲2010년 하나은행·우리은행 대출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으나, 이 가운데 산업은행 건을 제외하고는 “성공한 청탁은 없었다”고 함.

수사과정에서 천신일 회장은 도피성 출국을 했으나, 검찰은 외유 중인 천 회장에게 3차례에 걸쳐 소환통보만 했을 뿐 강제소환하지 않는 등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음. 남상태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 씨와 친구 사이로 김윤옥 여사와도 친분이 있으며, 현 정권 실세로 알려진 김희선 전 국정원 2차장과는 처남-매제 사이라는 점 등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이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왔음. 그러나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던 사실이 드러나는 등 수사과정 내내 외압의혹에 시달렸으며, 이후 수사를 남상태 사장으로까지 확대하지 않아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음.

6. ‘합바 비리’ 관련 정·관계 의혹 수사

1) 사건 개요

건설현장 식당(합바) 운영권 브로커인 유상봉이 합바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벌인 로비 사

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건설사 임원 뿐 아니라 강희락 전 경찰청장, 장수만 방위사업청장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가 로비에 개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지검장 이재원 - 차장 김강욱 - 부장 여환섭

3) 수사 진행경과 및 결과

2010.9. 검찰, 함바 비리 관련 제보 입수, 내사 착수

2010.10.말 검찰, 함바 운영권 브로커 유상봉 체포

2010.11.24 검찰, 유상봉 구속

2010.12.10 검찰, 유상봉 구속기소

2010.12.11 검찰, 한화건설 이근포 사장 구속기소(배임수재)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대가로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

2010.12.31 검찰, 울트라건설 대표, 삼환기업 전무 등 불구속기소(배임수재)

2011.1.10 검찰, 강희락 전 경찰청장 소환조사

2011.1.12 검찰, 강희락 구속영장 청구(13일 법원 영장기각)

2011.1.25 검찰, 강희락 구속영장 재청구(27일 법원 영장발부)

2011.2.15 검찰, 강희락 구속기소

2011.2.18 검찰, 이동선 전 경무국장 구속기소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김병철 전 울산경찰청장 불구속기소

2011.2.24 검찰, 최영 강원랜드 사장 구속기소

2011.2.25 검찰,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 불구속기소

2011.3.4 검찰, 양성철 전 광주경찰청장 불구속기소

2011.3.9 검찰, 장수만 전 방위산업청장 불구속기소

표 : 주요 피의자 및 혐의

이름 / 직책	혐의 내용	처분
강희락 전 경찰청장	건설현장 민원해결과 경찰관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유씨로부터 1억9천만원 수수 혐의	구속기소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 함바 운영권 청탁 등의 명목으로 유씨로부터 2천500만원 수수 혐의 -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강 모 총경에게 800만원 받은 혐의	불구속기소

장수만 방위산업청장	- 함바 운영권 청탁 등의 명목으로 유씨에게 4천500만원 수수 -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으로 부터 방위사업시설 공사 관련 청탁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 1천만원 어치를 수수한 혐의 - 서 사장으로 부터 받은 상품권 중 800만원 어치를 친구에게 맡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	불구속기소
배건기 청와대 감찰팀장	함바 운영권 수주에 대한 청와대 감찰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천만원 수수 혐의	불구속기소
최영 강원랜드 사장	함바 운영권,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유씨로부터 7천만원을 수수하고 5천만원 상당의 스위스제 시계를 사달라고 요구한 혐의	불구속기소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	고소 사건 처리 청탁 등의 명목으로 유씨로부터 8천900만원 수수 혐의	구속기소
김병철 울산지방경찰청장	함바 운영권 수주, 민원 해결 청탁 등의 명목으로 유씨로부터 2천만원 수수 혐의	불구속기소
양성철 광주지방경찰청장	함바 운영권 수주와 민원 해결 청탁 등의 명목으로 1천400만원 수수 혐의	불구속기소

4) 재판 진행경과 및 결과

* 1심 진행 중

5) 약평

건설현장 식당, 속칭 ‘함바’ 운영권과 관련하여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 및 정·관계 인사들에게까지 다방면에 걸친 로비가 이루어져 왔음을 밝혀낸 사건. 강희락 전 경찰청장, 이길범 전 해경청장 등 경찰과 해경의 전직 수장의 비리가 밝혀지면서 경찰조직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았음. 이외 현직 지방경찰청장 2명 등도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조현오 경찰청장은 전국 총경 이상 지휘관을 대상으로 브로커 유씨와 접촉한 사실에 대해 ‘양심고백’을 지시하기도 함.

정권과 관계된 인사로는, 이명박 대통령과 서울시장 시절부터 인연이 있었던 배건기 청와대 감찰팀장, 최영 강원랜드 사장 등이 연루되었으며, 정권 최측근으로 국방부 차관까지 지낸 장수만 방위사업청장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등 사실상 권력형 게이트로 확대되었음.

6개월여의 수사기간 동안 구속기소 5명, 불구속기소 9명 등 총 14명을 기소하였으며, 전·현직 고위관료와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까지 연루되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었으나 수사과정에서 모두 밝혀지지 못한.

○ 권력형 비리 : 前 정권 관련 수사

7.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위반 수사

1) 사건 개요

한명숙 전 총리가 2007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지검장 노환균 - 3차장 김주현 - 부장 이동열 - 주임검사 임관혁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0.4.8 검찰, 한신건영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10.4.14 검찰, 한 전 총리 측근 김문숙 씨 출국금지조치

2010.6.25 한 전 총리 검찰소환 불응

2010.6.28 검찰, 한 전 총리 소환 2차 통보(한 전 총리 불응)

2010.6.29 검찰, 한 전 총리 여동생에 대한 공판기일전 증인신문 청구(불출석 신고서 제출)

2010.7.13 법원, 한 전 총리 여동생에 구인영장 발부(7/16 자진출두)

2010.7.20 검찰, 한명숙 전 총리 불구속기소(정치자금법위반)

4) 재판 경과 및 결과

* 1심 진행 중

5) 약평

검찰이 뇌물수수로 기소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하루 전, 정치자금 수사에 착수함. 서울시장선거에 출마할 것이 예상되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또 다른 혐의로 미묘한 시

기에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표적수사' 논란이 제기되었음. 이와는 별도로 대검 중수부가 한 전 총리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다가 종결된 제3의 사건이 있다는 내용이 2010.4.15 국회 법사위에서 이귀남 장관의 발언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음. 결국 지방선거 이후로 수사를 유보하였지만 수사 초기부터 검찰 스스로가 표적수사 논란을 자초한 셈임.

정부정책 비판세력 관련 수사

8. 4대강사업·무상급식 관련 선거법위반 수사

1) 사건 개요

2010년 6.2지방선거 기간 중, 정부의 4대강사업 반대와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주장 등, 시민단체의 고유 캠페인 활동에 대해 선거법위반으로 판단해 대표자들을 기소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 무상급식연대 배옥병 상임운영위원장 수사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지검장 노환균 - 2차장 공상훈 - 부장 이진한 - 주임검사 이정훈
- 4대강범국민대책위 최승국 집행위원장 수사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지검장 노환균 - 2차장 공상훈 - 부장 이진한 - 주임검사 백재명
-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명균 사무국장 등 수사 :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
지청장 김주현 - 차장 김희재 - 부장 임석필 - 주임검사 이선혁
-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국장 수사 : 수원지검 공안부
지검장 김영한 - 차장 박경호 - 부장 이태형 - 주임검사 홍용준

3) 수사 경과 및 결과

- 2010.10.20 검찰, 수원환경련 장동빈 사무국장 불구속기소
- 2010.10.22 검찰, 안양군포의왕환경련 안명균·우명근 씨 불구속기소
- 2010.11.9 검찰, 무상급식연대 배옥병 위원장 불구속기소

2010.11.17 검찰, 4대강범대위 최승국 위원장 불구속기소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1.1.22 1심²⁵⁾ 안명균 사무국장, 우명근 간사 모두 무죄

2011.2.18 1심²⁶⁾, 배옥병 위원장 벌금 200만원 선고

1심²⁷⁾, 장동빈 사무국장 벌금 80만원 선고

2011.2.23 2심²⁸⁾ 안명균 사무국장, 우명근 간사 모두 검찰항고 기각 판결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태중 부장판사)

* 최승국 위원장 1심 진행 중

5) 약평

4대강사업 반대와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는 관련 시민단체가 선거 이전부터 주장해 왔던 사안임. 선거 기간 동안 인정되는 시민단체 활동의 범위가 논란이 되었음.

9.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선거법위반 수사

1) 사건 개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2009년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장학기금으로 출연한 사실을 두고, 검찰은 김 교육감이 2010년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해당 선거구 내에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 수원지검 공안부

25)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 정성태 부장판사

26)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김형두 부장판사

27) 수원지법 형사12부 유상재 부장판사

28) 서울고법 제6형사부 이태중 부장판사

지검장 김영한 - 2차장 박경호 - 부장 이태형 - 주임검사 홍용준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0.11.26 검찰, 경기도교육청 재무과 압수수색

2010.12.1 검찰, 김상곤 교육감 불구속기소(지방자치에관한법률위반)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1.2.8 1심 무죄²⁹⁾

5) 약평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해 검찰은 이미 직무유기 혐의로 2010.3. 기소한 바 있음. 직무유기에 대한 판결은 2010.7. 1심 무죄, 2011.1. 2심 무죄가 났음. 그런 가운데 또다시 검찰이 김 교육감을 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하여 기소하였고, 이 또한 2011.2. 1심 무죄가 선고됨.

앞선 직무유기혐의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은 민선 교육감의 재량권을 편협하게 해석하여,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시행령 해석을 들어 김 교육감을 기소한 바 있음. 이러한 무리한 기소 이후 검찰은 다시 김 교육감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는데, 이 역시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높았음.

김상곤 교육감이 출연한 장학기금은 전임 교육감 김진춘의 주도로 2007년부터 시행되었던 사업이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다가 김상곤 교육감에 대해서만 수사하여 기소했음. 1심 법원은 판결문에서 “경기도 내 인재 양성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에 근거한 것으로,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적극 장려되는 사업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면서 “전국의 시·도 교육청도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와 같은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기소가 얼마나 형평성을 잃은 것인지 드러내 주고 있음.

10. 천안함·연평도 사태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수사

29) 수원지법 2010고합567, 제11형사부 유상재(재판장), 오지원, 정선균 판사

1) 사건 개요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등 사태가 벌어지자 검찰은 “유언비어로 인해 많은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문자, 인터넷 글 등에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허위의 통신)을 적용하여 수사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등³⁰⁾

지검장 노환균 - 3차장 윤갑근 - 부장 위재천/김영대 - 주임검사 이준식/김영민

* 대전지검 형사부, 공안부 등

지검장 - 차장 - 형사부장 허상구 - 주임검사 정제훈

지검장 - 차장 - 공안부장 최태원 - 주임검사 김신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0.5.11 검찰, 천안함 관련 전기통신기본법 적용 첫 기소

“천안함 침몰원인은 침수이며, 해군 지휘부가 관련 보고를 묵살했다”는 내용의 양심선언이 있었다”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

2010.6.23 검찰,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대통령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다”는 쪽지를 보낸 강모 양을 기소함

2010.8.17 검찰, 연평도 사건으로 ‘국방부 사칭 허위문자’를 돌린 혐의로 이모·황모 씨 기소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0.12.28 헌법재판소,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위헌결정

2011.2.10 위헌 결정 이후 항소심에서 처음 무죄 판결

5) 약평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을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은, 법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적용되지 않다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사회 불안을 조장’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검찰이 적극적으로 활용한 조항. 피해자나 범죄행위를 특정해야 하는 명예훼손죄보다 자의적이고 모호하게 적용하기 쉬운 이 조항은, 검찰에 의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형사범죄화하는 데 악용되었음.

30) 판결문이 존재하는 사건에 한하여 수사·지휘라인을 확인하였음

‘미네르바’ 박대성 씨에 대해 이 조항을 적용한 이후, 이에 대한 위헌성 시비가 높았으며,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져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천안함 사고 원인에 대한 의혹제기와 연평도 폭격에 대한 허위문자 등에 대해 이 조항을 발 빠르게 적용하여 왔음. 결국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 공익의 개념이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 조항으로 기소된 사건은 법원에 의해 무죄가 선고되거나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음.

11. G20 포스터 낙서 수사

1) 사건 개요

길거리에 부착된 G20 정상회의 홍보포스터 위에 쥐 그림을 그린 혐의로 대학강사 박정수 씨 등을 수사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지검장 노환균 - 2차장 공상훈 - 부장 안병익 - 주임검사 강수산나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0.10.31 경찰, 서울 을지로 G20 포스터에 쥐 그림 그린 박정수 씨 등 긴급체포
2010.11.1 검찰, 박정수 씨 구속영장 청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
2010.11.2 법원, 구속영장 기각. 경찰, 대학생 박모씨에 대해 체포시킨 넘겨 불법구금
2011.01.26 검찰, 박정수 씨 등 2명 불구속기소(공용물건손상)

4) 재판 경과 및 결과

* 1심 진행 중

5) 약평

검찰은 “피고인들이 G20홍보포스터에 쥐를 그려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기로 공모

하고, 스티로폼 판에 스프레이를 고르게 분사하는 연습을 실시한 뒤, 총 22개의 홍보물에 쥐그림을 그려 홍보물을 효용을 해함으로써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관리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함.

일반적으로 훈방하거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할 만한 사안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까지 청구(11월 1일)했다 기각 당함.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는 사건의 수사를 공안부에서 담당할 검찰은 "G20이라는 국가 중대 행사를 폄훼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결국 불구속 기소하였음. 혐의사실과는 다르게 공안사건화 하려고 애씀.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검찰 내 공안부서의 무리한 수사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음.

기업 및 금융 관련 수사

12. 신한금융그룹 사태 관련 수사

1) 사건 개요

신한금융지주의 라응찬 회장과 신상훈 사장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다, 서로를 고소·고발하면서 검찰이 수사한 사건.

2) 수사담당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

지검장 노환균 - 3차장 윤갑근 - 부장 이중희

3) 수사경과 및 결과

- 2010.9.2 신한은행 이백순 행장,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
2006~2007년 (주)투모로와 금강산랜드(주)에 대한 438억원 부당대출 및 대주주인 이희건 명예 회장에 지급할 자문료 15억 6000만원 횡령혐의
- 2010.9.13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등 보수단체,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라응찬 회장 고발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시, 라응찬 회장이 박연차 회장에게 차명계좌를 통해 50억을 전달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음
투모로그룹, 이백순 행장 명예훼손 혐의 고소
- 2010.9.14 신한금융지주 이사회, 신상훈 사장 직무정지 결정
- 2010.10.7 금융감독원, 신한은행 검사 결과 라응찬 회장 중징계 방침 통보
- 2010.10.30 라응찬 회장 사퇴, 신한금융지주 류시열 회장 직무대행 선임
- 2010.11.2 검찰, 신상훈·라응찬·이백순 사무실 압수수색

2010.11.17 검찰, 신상훈 사장 소환

2010.11.18 금융위원회, 라웅찬 전 회장에 업무집행 정지 3개월 중징계(4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음)

2010.11.22 검찰, 이백순 행장 소환

2010.11.30 검찰, 라웅찬 전 회장 소환

2010.12.6 신상훈 사장 사퇴. 신한은행, 신상훈 사장 고소취하

2010.12.8 검찰, 이백순 행장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2010.12.9 언론, “김준규 검찰총장, 신상훈·이백순 구속수사 방침” 보도

2010.12.29 검찰, 신상훈·이백순 불구속기소, 라웅찬 불기소처분

신상훈 전 사장에 대해 15억66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업무추진비로 2억1천만원을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이백순 행장에 대해서는 횡령의 공범으로 기소함.

4) 재판경과 및 결과

* 1심 진행 중

5) 약평

신한금융지주 라웅찬 회장과 이백순 행장 측이 신상훈 사장이 은행장 시절 수백억원을 불법 대출해주고 대주주 자문료 15억6000만원을 횡령했다고 고소하자, 신상훈 사장 측도 이에 맞서 라웅찬 회장 또한 자문료를 사용했으며, 50억원 차명계좌 건을 수사할 것을 주장하면서 시작된 신한은행 경영권 다툼 성격의 사건임.

2010.9.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적극적으로 불법행위를 밝혀내기보다 양쪽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가 2010.11.에야 압수수색에 나서, 증거인멸 및 말 맞추기 시간만 벌여주었다는 비판을 샀음. 그 과정에서 신상훈 사장이 사퇴하고, 신한은행 측이 고소를 취하함. 라웅찬 회장에 대한 실명제법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지 않다가, 금융감독원이 2009년에 이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은폐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금감원과 검찰의 책임론이 제기됨. 금감원이 뒤늦게 파악에 나서면서 2백억 원대의 차명계좌를 확인했고,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전달되었다는 진술이 있었으나 검찰은 이 부분을 밝히지 않고, 라웅찬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함.

13. 이건희 회장 2천억 반환한 삼성에버랜드·SDS 수사

1) 사건 개요

특별검사가 이건희 회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기재한 손해액을, 2008.7. 이건희 회장이 삼성 에버랜드와 삼성SDS에 각각 969억과 1,539억씩 반환한 바 있음. 그러나 에버랜드와 SDS는 이에 대해 회사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다가, 이건희 회장의 재판이 확정되면서 손해액이 줄어들거나 무죄가 난 부분을 다시 이건희에게 반환하였음.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가 에버랜드와 SDS 전현직 대표이사 3명을 배임혐의 등으로 고발하여 검찰이 수사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지검장 노환균 - 3차장 윤갑근 - 부장 이석환 - 주임검사 조명순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0.4.14 경제개혁연대, 박노빈·최주현·김인 고발(특경가법상 배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2010.9.17 검찰, 모두 무혐의처분

4) 재판 경과 및 결과

5) 약평

2008.7.11 이건희 회장은 삼성특검 사건 1심 재판부에, “회사의 손해발생 여부를 떠나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돈을 위 회사에 지급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양형 참고자료를 낸 바 있음. 그러나 2009.8.22 이건희 회장에 대한 확정판결 이후 삼성에버랜드는 받았던 주식과 현금을 전액 반환하였고, 삼성SDS는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그 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였음. 검찰은 삼성에버랜드와 SDS측의 “세부약정서에 따라 손해금을 반환하여 정산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배임 및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림. 검찰은 불기소이유서에서 “이건희 측이 세부약정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양형판단을 받도록” 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에 대해서는 수사

를 하지 않아 '삼성 앞에 무력한 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음.

14.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

1) 사건의 개요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무자료로 대리점에 납품(무자료거래)하고 임직원 급여·작업복비 등을 허위 회계처리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태광그룹이 4천40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7천여 개의 차명계좌를 관리해 온 혐의가 검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짐.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

지검장 남기춘(2011년 2월 퇴임) - 차장 봉욱 - 부장 이원곤

3) 수사 진행경과 및 결과

2010.10.11 검찰, '태광그룹 비자금 운용 및 회사 이익 불법취득 의혹' 제기 내부고발자 제보에 따라 수사착수

2010.10.13 검찰, 태광그룹 본사, 고려상호저축은행·한국도서보급 압수수색

2010.10.14 검찰, 오용일 태광그룹 부회장 소환조사

2010.10.16 검찰, 이호진 회장 개인 사무실 및 이 회장 자택 압수수색

2010.10.18 검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압수수색

2010.10.21 검찰, 이선애 상무 자택 압수수색

2010.11.17~18 검찰, 태광산업 대리점, 태광CC 등 압수수색

2010.12.30 검찰, 오용일 부회장 소환조사

2011.1.4 검찰, 이호진 회장 1차 소환조사

2011.1.6 검찰, 이호진 회장 2차 소환

2011.1.12 검찰, 이선애 상무 소환조사

2011.1.13 검찰, 이호진 회장 3차 소환

2011.1.18 검찰, 이호진 회장 등 관련자 3명 구속영장 청구

- 2011.1.21 법원, 이 회장 구속. 함께 영장 청구된 2명은 영장기각됨
- 2011.1.28 남기춘 서울서부지검장 사의 표명
- 2011.1.30 검찰, 이호진 회장 구속기소. 이선애 상무 등 6명 불구속기소
- 2011.1.31 검찰, 수사결과 발표
- 2011.4.6 검찰, 이호진 회장, 이선애 상무, (주)태광산업에 대해 추가 기소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섬유제품을 무자료 거래하거나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법인
 세와 부가가치세 26억원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의 조세포탈)

4) 약평

재계순위 40위권의 중견그룹인 태광그룹의 오너 일가가 무자료거래,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공장인부 피복비 착복 등의 수법으로 오랜 기간 동안 회사 돈을 착복해온 혐의가 수사결과 밝혀짐. 또한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사들이고, 이 회장 개인회사의 골프장 건설비용을 계열사로부터 무담보 대출 받는 등 다양한 비리혐의도 적발됨.

그러나 조성된 비자금의 일부가 케이블방송사업과 관련한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지 못했이라며 수사를 마무리함. 남기춘 서부지검장의 사퇴 이후 추가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음.

15.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

1) 사건의 개요

검찰이 금융감독원의 수사의뢰를 받아 한화그룹의 비자금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여 ▲차명계좌 382개와 현금·채권 등을 통한 비자금 1천억여원 조성·관리 ▲ 김승연 회장 등 차명소유회사의 빚 불법변제 ▲ 계열사 보유 주식 저가 매각 등, 김승연 회장 일가 및 한화그룹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

지검장 남기춘 - 차장 봉욱 - 부장 이원곤

3) 수사의 진행경과 및 결과

- 2010.8.19 금융감독원, 한화그룹의 비자금 의심 차명계좌 5개 관련,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 2010.8.27 대검, 서부지검으로 관련 수사첩보 이첩
- 2010.9.16 / 9.28 검찰, 한화그룹 본사 및 차명소유회사 에스엔에스에이스 본사 압수수색
- 2010.11.17~2011.1.17 검찰, 홍동욱 한화그룹 전 재무총책임자 10회 소환조사
- 2010.12.1 / 12.15 / 12.30 검찰, 김승연 회장 3회 소환조사
- 2010.12.1 검찰, 홍동욱 구속영장 청구(3일 법원 영장기각)
- 2010.12.14 검찰, 김승연 회장 장남 동관 씨 소환조사
- 2011.1.20 검찰, 홍동욱 구속영장 재청구 등 5명 구속영장 청구(24일 법원 전원 영장기각)
- 2011.1.28 남기춘 서부지검장 사의 표명
- 2011.1.30 서부지검, 한화그룹 수사 결과 발표. 김승연 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4) 약평

4개월이 넘게 한화그룹 관계자 321명을 800여 차례 소환하고 13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으나, 한화그룹 측의 압수수색 이전 자료파기, 내부고발자 회유 등의 조직적인 수사방해 행위와 내외부의 압력 등으로 수사에 난항을 거듭함. 한화그룹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여러 차례 기각되자 재계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과잉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남기춘 서부지검장의 사퇴까지 초래하였으나 결국 김승연 회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함. 남기춘 서부지검장이 사퇴한 이후,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말라'며 수사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었음.

기타 수사

16. 상지대 관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고발사건 수사

1) 사건 개요

참여연대 등이 상지대 학내 분쟁과 관련해 이우근 사학분쟁조정위원장 등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이 각하한 사건.

2) 수사담당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지검장 노환균 - 1차장 신경식 - 부장 김창 - 주임검사 이정용

3) 수사경과 및 결과

2010.4.29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51차 회의

상지대 정이사 선임 관련, 구재단(김문기 측) 추천 5인, 관할부처(교육부) 추천 2인, 상지대
구성원 추천 2인으로 정이사를 선임기로 결정

2010.6.29 사분위 52차 회의

51차 회의 결정에 따라 정이사 추천 결의

2010.8.9 사분위 53차 회의

상지대의 옛 이사장 김문기측 인사의 정이사 복귀를 허용하는 결정

2010.9.3 변재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긴급 현안보고 질의를 위해 사분위에 51, 52차
회의록 제출 요구

사분위, 51~52차 회의 속기록은 사분위 자체 결정에 따라 폐기하였다고 답변

2010.9.9 전국교수노조·참여연대, 이우근 사분위 위원장 등 12명 고발

사분위가 제51~제52차 회의의 속기록을 무단 폐기해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2010.12.28 검찰, 고발 각하처분

사분위가 속기록을 토대로 회의록 작성 후 속기록을 폐기한 것으로, 법리상 속기록은 회의록
작성을 위한 보조자료이기에 공공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논리. 속기록 폐기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결정이라고 판단

4) 약평

이미 작성된 속기록의 경우, 폐기 시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사분위는 임의 결정으로 폐기하였다고 밝힘. 사분위가 속기록 폐기 근거로 든 운영규칙에도 속기록에 관한 규정이 없었음.

검찰은 무혐의처분을 하면서, 사분위원들에 대한 조사조차 거치지 않고, 사분위 측 주장을 받아들여 봐주기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17.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 고발사건 수사

1) 사건의 개요

음성직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해피존 사업 및 스마트몰 사업, 전동차 제작 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에 대해 참여연대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

2) 수사담당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지검장 노환균 - 1차장 신경식 - 부장 이명순 - 주임검사 박영수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0.8.24 참여연대, 음성직 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

※해피존(Happy-Zone)사업 : 서울도시철도 5~8호선 역무실 등을 휴게·문화 공간으로 개발하는 1조원대의 사업. 사업권을 한 회사가 따내는 과정에서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됨

※스마트몰(SMRT Mall)사업 : 5~8호선의 역사 및 전동차에 첨단 IT시스템을 구축하는 2천억 원대 사업. 계약체결 과정에서 관련 법률과 규정을 무시하고 특정업체의 입찰보증금 및 이행 보증금을 면하도록 해 특정 업체가 수십억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도록 했음

※전동차 제작사업 : 7호선 연장구간에 투입될 추가 전동차 제작사업. 서울시의 지시를 무시하고, 특정업체와 특혜성 계약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이 과정에서 서울시 조례 개정과정에도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됨

2010.11.29 검찰, 음성직 사장 등 불기소처분

해피존 사업 등은 공개적인 입찰을 통해 추진되었고 의혹을 증명할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으며 피고발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

2010.12.18 감사원, 해피존과 스마트몰 선정과정 감사 후, 검찰에 수사의뢰.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사실상 재수사되고 있음

2011.2.11 참여연대, 검찰 항고 및 항고이유서 제출

2011.3.2 음성직 사장 사퇴

4) 약평

검찰은 수사의 주체이면서도, 시민단체가 고발한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도리어 고발인의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도 않은 채 고발을 기각함. 그러나 이후 감사원의 수사의뢰로, 사실상 검찰이 재수사하고 있는 상황임. 검찰의 부실수사가 논란이 되었음.

18. 공정택 전 교육감 뇌물수수 혐의 수사

1) 사건의 개요

공정택 전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2005~2009년, 교육청 간부 9명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1억4천600만원을 받고 승진 순위가 아닌 장학사나 교사를 장학관이나 교장으로 승진시키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로 검찰이 수사해 구속기소한 사건.

2) 수사담당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

지검장 남기춘 - 차장 오광수 - 부장 이성운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0.3.19 검찰, 공정택 전 교육감 소환조사

2010.4.14 검찰, 공정택 전 교육감 구속기소(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4) 재판결과

2010.6.16 1심³¹⁾, 징역 4년 및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만원 선고

2010.10.1 2심³²⁾, 항소기각

2011.2.10 3심³³⁾, 원심 확정

31)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김현미 부장판사

32) 서울고법 형사1부 조해현 부장판사

33) 대법원 3부 주심 차한성 대법관

4부. 2010년 검찰(법무) 주요 일지

2010년 검찰(법무) 주요 일지는, 검찰이 수사한 사건과 검찰(법무)의 인사·정책·개혁논의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것이다.³⁴⁾

이 일지에는 2010년 검찰이 국민의 주목을 받은 사건 및 검찰(법무)를 평가하는 데 빠지면 안 될 기본적 사항들을 모았다.

‘개별 주요사건 수사’는 검찰이 수사한 사건 중 앞서 3부에서 정치사회적 중요성이 큰 사건으로 뽑은 것들을 중심으로 시간 순서상 배열하였다. ‘법무검찰 인사·정책·개혁논의 등’은 정기·부정기 인사 및 검찰권 행사의 방향을 보여주는 공식회의나 지휘부의 발언, 제도 시행과 검찰개혁 논의 등을 정리했다.

34) 2010년 주요일지는 2010.3.~2011.3.까지 기간 동안의 사건을 정리함. 2008~2009년 검찰(법무) 주요일지는 <이명박 정부 2년 검찰 보고서>를 참고

<p>개별 주요사건 수사</p>	<p>법무검찰 인사·정책·개혁논의 등</p>
	<p>2010. 3. 2</p> <p>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제도 도입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
<p>2010. 3. 5</p> <p>수원지검 공안부, 김상곤 경기교육감 불구속기소(직무유기 협의)</p>	
	<p>2010. 3. 9</p> <p>대검 형사부, 전국 성폭력·아동전담 검사 화상회의에서 전자발찌 소급 적 용 논의</p>
	<p>2010. 3. 16</p> <p>법무장관, ‘보호감호제 재도입’ 추진,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시설 설치 검 토’ 지시</p>
	<p>2010. 3. 31</p> <p>국회 본회의, 전자발찌 3년 소급 적 용 등 성범죄자 처벌 강화 법안 6건 의결</p>
	<p>2010. 4. 20</p> <p>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 ‘보호 감호제’ 형법개정안 포함 결정</p>
<p>2010.4.22</p> <p>‘스폰서검사’ 진상규명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 감찰 시작</p>	
	<p>2010. 4. 26</p> <p>대통령, “검찰은 ‘스폰서’ 사건을 내 부문화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p>
	<p>2010. 5. 5</p> <p>프랭크 라 튀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p>

에 관한 특별보고관 공식 방한

국내 의사표현의 자유 실태 파악 목적

2010.5.11

검찰, 천안함 관련 전기통신기본법
적용 첫 기소

2010.6.9

‘스폰서검사’ 진상규명위원회 진상조
사결과·제도개선안 발표

2010. 6. 11

법무부, 수사기관의 친인척 공안범죄
기록 사용금지

‘공안사범자료 관리규정’의 일부 개정령
 공포. 수사기관이 공안사범을 기소할 때
 친인척의 공안범죄 기록을 첨부하는 등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함

2010. 6. 17

법무·행안·여성 장관, “아동 성폭행
범 ‘화학적 거세’ 찬성” 입장 (교육·사
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2010. 6. 21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 입법예고

2010년 8월부터 범죄 피해로 8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에서 구조금을
받을 수 있음

2010. 6. 22

청와대, “7월중 법무부, 대검, 감사원
에 감사직 개방 위해 직제개편”

국무회의에서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관들

	의 고문·가혹 행위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감사관 외부 개방하는 직제개편안 의결
2010.6.29	2010. 6. 29
국회, '스폰서검사' 특검법 통과	대검 검찰부장·법무부 검찰관, 외부 공모 시작
	2010. 6. 29
	국회 본회의, '성충동 약물치료법' 의결
2010.7.5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대검에 수사의뢰	
	2010. 7. 15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등 내부공모로 선출기로 함
	법무부 검찰국, 최근 검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 법무부·법무연수원·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급 29개 보직과 외부기관 파견 28개 보직(부장검사급 17개·평검사 11개)을 공모한다고 밝힘
2010.7.20	
검찰, 한명숙 전 총리 불구속기소(정치자금법위반)	
	2010. 7. 26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459명 인사
	2010. 8. 6
	인권위, "공개수배 남용, 기본권 침해 우려"
	인권위, 법무장관·경찰청장에게 형사소송법에 공개수배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 공

개수배의 근거 규정을 신설·준수하도록 권고

2010.8.11

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3명 기소. "청와대와 연관성 찾지 못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 발표

2010. 8. 11

법무부,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109명에 전자발찌 부착"

2010. 8. 13

광복절 특별사면 발표

노건평 씨, 서정원 미래희망연대 대표,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 2,493명에 특사 단행됨

2010. 8. 15

대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운영 예규' 시행

2010. 8. 17

법무부,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금 횡령이나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감사원 감사를 받는 등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 등의 도피성 출국을 막기 위해 출국금지 대상자 범위의 확대를 주요내용으

2010. 8. 22

법무부, 광복절 특사에 비리 법조인 포함된 사실 공개하지 않은 것 밝혀짐

2010. 8. 25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 '형법 총칙 개정 시안' 세부내용 발표

'작량감경' 제도 요건 대폭 제한, 보호감호제도 부활 추진 등을 골자

2010. 8. 31

**법무부 검찰관·대검 검찰부장, 외부
인사 최초 임용**

법무부 검찰관에 안장근 전 감사원 감사
청구조사국장을, 대검 검찰부장에는 홍지
욱 변호사를 각각 임용

2010.9.5

검찰, '조현오 경찰청장 명예훼손 혐
의로 고소·고발한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측에 대한 고소·고발인 조사

2010.9.17

검찰, 박노빈·최주현·김인 삼성에버
랜드·SDS 전현직 대표 불기소처분(특
경가법상 배임 등)

2010. 10. 5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 형법
· 형사소송법 개정 시안 공청회

사법협조자 형벌 면책·감면제,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 사법방해죄 신설을 골자

2010. 10. 6

인권위, “무죄판결 때는 수사피의자
의 수사경력자료 삭제” 법무부에 권고

2010. 10. 20

법무부가 '불법집단행동 민사소송 지
원 태스크포스' 운영해온 사실 밝혀짐

이춘석 의원(법사위), 법무부가 파업노동
자나 시위에 나선 시민을 상대로 해당 기
관이 적극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독려한다는 취지로 2010년 1월부터 운영
중이라는 자료를 공개

2010.11.9

<p>검찰, 배옥병 무상급식연대 상임위원 장 불구속기소(공직선거법위반)</p> <p>2010.11.16</p> <p>검찰총장, '그랜저검사' 재수사 지시</p> <p>2010.11.29</p> <p>검찰, 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사장 불 기소처분</p> <p>2010.12.1</p> <p>검찰, 김상곤 경기교육감 불구속기소 (지방자치에관한법률위반)</p> <p>2010.12.8</p> <p>검찰, '그랜저검사' 정인균 구속기소 (특가법상 뇌물)</p> <p>2010.12.23</p> <p>검찰, 천신일 회장 구속기소(특가법· 특경가법상 알선수재)</p> <p>검찰, '신한사태' 신상훈·이백순 불기 소처분</p> <p>2011.1.26</p> <p>검찰, 'G20포스터 낙서' 박정수 씨 등 2명 불구속기소(공용물건손상)</p>	<p>2011.1.28</p> <p>법무부, 고검장급 전보인사(2월 1일 자)</p> <p>남기춘 서울서부지검장 사의 표명</p>
<p>2011.1.30</p> <p>검찰,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구속기 소</p> <p>검찰,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불구속 기소</p>	<p>2011.2.7</p>

법무부, 2011년 상반기 인사(14일자)

검사 561명 전보·신규임용

2011.2.15

검찰, '함바비리' 강희락 전 경찰청장
구속기소(특가법상 뇌물)

2011.3.9

검찰, 장수만 전 방위산업청장 불구
속기소(특가법상 뇌물)

※ 본 자료는 웹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참여연대 이명박 정부 3년 검찰 보고서

발 간 일 | 2011. 04. 13 (총 137 쪽)

공동대표 | 이석태·임종대·정현백·청화

발 신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2-723-0666 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